



8

1997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7. 8호

(루게 598)



차 례

잊을수 없는 날	4
우리의 노래	5
다시 살아난 행복의 새	6
이 나라 대지위에 끝없이 이어진 사랑의 자욱	9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11
경애하는 장군님 고맙습니다	12
흰눈	17
그날처럼	18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신념의 노래를 안겨주시려	19
만수대언덕을 찾아갑니다.....	20
목화꽃	21
명언해설	22
우로 뵈!.....	23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25
축복	33
어머님의 모습	34
날으자 정의의 불새들아	34
숲향기	35
내 마음 비춰보네	42
음악처럼 우아하고 류창한 맛이 나는 시를!.....	43
그 부름이 좋다	45
엄마의 노래	46

병사에겐 별이 많네	48
방울산	49
범민족대회는 폐회를 선언하지 않는다	53
속사리 사람들	54
한 녀인과 병사들	56
함께 가고싶다	62
저고리	63
여름에도 락엽이	70
조상의 땅에서	71
영원하라 평양이여	75
그들은 있었다	75
간석지 새땅을 받쳐드립니다	76
오로지 통일!	77
신념과 의리에 대한 생각	78
비루먹은 개가 자네를 부르네	80

잊을수 없는 날

한찬보

1

그날 하늘의 해는 유난히 밝았더라
구름 한점 없는 쾌청이었노라
내 영원히 잊을수 없는 1945년 8월 15일
오, 해방, 해방의 날이여
잃어 없던 내 나라 다시 생겨나고
내 삶이 새로 시작된 날이여
그때 내 나이 열일곱 꿈도 많은 청년이었건만
깃잡힌 강산에선 그 꿈이 태동할 자리가 없었노
라
내 나서 오래동안 비운이 잠긴 허무한 날이 흐르
더니
격동적인 사변을 맞았나니
재생의 기쁨안고 나는 웨쳤노라 만세의 합성을
앞에서도 뒤에서도 저도 모르게 터지는
감격의 환호성,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 참지 못해 내뿜는 탄성이었어라
불러도 불러도 끝이 없을 웨침
힘껏 웨치는 그 소리 벌써 목이 쉬었던만
목이 신들 아니 목이 상한들 어떠리
웨치다 죽어도 한이 없을 기쁨이며 영광이었나니
내 어찌 가만히 있을수 있었으랴
새 희망에 부푼 가슴을 안고 자유로운 내 땅을
활보했노라
모든것이 내것이 되어 강산도 기쁨에 끓고
사람들도 너무 기뻐 울고 너무 좋아 입을 다문채
설레인 그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그저 서성거리기만 한
인산인해여
여기저기 푸른 솔대문이 우뚝우뚝 솟아났고
그밑으로 오가는 사람들 한식솔이 된듯
서로 반갑고 다정하고 즐겁기만 해
누구를 만나건 알던 모르던 주고받는 인사말은
해방만세! 해방만세!
그때 그보다 더 잘 통하는 인사말은 없었노라
그 뉘도 이보다 더한 기쁨 더한 영광은 누려본적
이 없었기에
아 나도 나를 잊어버리게 기뻐던 날이여
내 한생에 두번 없을 진짜 기쁨을 알게 한 날이
여

2

견잡을수 없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애써 마음 잦
히니
오늘의 이 기쁨 이 영광을 마련해주신

그 은인을 몰라보고 저만 기쁘다 돌아치는 그 송
구러움이
문득 제정신 가다듬게 하였노라
조국을 해방하고 참다운 내 인생길을 열어주신
우리 수령님 생각에 내 마음 정색해지며
그 고마움에 자연히 머리 숙여지었노라
평양이 낳은 아들 **김일성** 장군님이 이룩하신
애국적이며 영웅적인 업적을 그 무엇에 비길수
있었으랴
허나 장군님은 어디에 계실가 언제면 오실가
그이를 뵈고싶은 마음 하도 간절하여
내 사무치는 걱정을 싣고 사색의 노를 저어갔노
라
하여 《언제면 오실가》라고 제목하고
자자구구 새겨간 흠모의 시 이것이 내 인생의 첫
시였노라
모든것이 새로 시작되는 내 나라에서
내 인생도 바로 시작되고 진정한 꿈이 나래치었
노라
참으로 이 땅의 모든것은 젊어있었더라
나라도 젊고 장군님도 젊으셨고
나도 장군님품에 자랄 꽃다운 청춘 피끓는 청년
이었으니
내 나라 강산에 희망이 넘쳐흘렀더라
아 해방, 조선의 해방, 해빛 찬란하고 꿈이 무르
익는 땅의 환희로운 날이여
만일 이날이 없었던들 우리 어찌 되었을것인가
식민지, 노예, 죽음,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참
상만이 어려울뿐
그렇다, 바로 이날이 있어
아침해 빛나는 조선이 세계지도에서 자기 위치를
뚜렷이 차지했고
오늘의 높은 존엄과 긍지를 가졌어라
불멸의 주체사상이 동방일각에 해빛으로 솟아
만방에 진리의 빛을 영원히 뿌릴수 있게 되었어
라
이 해방의 날을 뜻깊게 맞이하게 하신분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이시여라
그이는 우리의 운명이며 모든것이거니 우리 조국
은 바로 장군님품이여라
하기에 내 해방의 날을 맞을 때마다
조국을 찾아주고 빛내여주신
우리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정
더해만 가거니
나는 조국과 력사앞에 이날을 맞으며
마음속에 있는 말을 터치고싶노라

위대한 날은 위대한 령수의 성스러운 투쟁으로하
여 맞이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런 위인 절세의 애국자가 있어
어머니조국도 력사의 그날도 영원히 빛나는것이
라고
바로 그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라고
그렇다 해방은 조국을 찾아주었고
참된 삶을 찾아주었고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궁지
행복과 미래-
그 모든것을 안겨주었어라

우리의 노래

한원희

노래의 마디마디에
뜨거운 숨결이 어려든다
내 가슴에 절로 솟는 노래
불러도불러도 다함없는 노래

노래의 가락가락에 깃든
한없는 신비로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가지가지 전설들이
구절구절 나래돋혀 창공을 날은다

아, 천만의 심장에서 솟구친 노래
세월의 언덕넘어 메아리치는 노래
하많은 노래의 구절마다에
숨결처럼 흐르는 환희여
《백두광명성 솟았다!》
그날에 한없는 격정을 터뜨리던
밀림의 설레임소리
소백수의 맑은 물소리도 들려와라

너무나 숭엄해
내 넋을 잃고 듣는다
백두의 장군봉에서 향도봉마루까지
신비경을 펼치던 쌍무지개
그날의 감격도 노래의 물결우에 실려온다

너무나 거룩해
뜨거운 이슬이 눈굽을 적신다
최전연고지에 그이 오르시자
비개인 하늘에 일어서던 무지개
그날의 환희도 노래속에 굽이친다

그이는 하늘이 내신분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
인간이 받아보지 못했던
위대한 사랑을 안겨주시는분
그 사랑 하늘도 알아
땅도 알아
천지조화를 일으키게 하시는분

그이의 위업 전설로 전하고싶은
인민의 한마음이
숭배의 한마음이
그대로 전설의 노래가 되었거니

아, 우리의 노래
너는 만민의 가슴에 끓던 노래
너는 우주만리에 비껴가는 노래
아, 노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 시대 환희의 송가여!

다시 살아난 행복의 새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을 향해 파도를 헤가르며 가느라면 그리 크지 않은 섬이 나지게 된다.

이 섬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시대의 향도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350년전에 없어졌던 도도새를 다시 살려주시었다는 전설을 들을수 있다.

어떻게 없어졌던 도도새가 다시 살아났을까?

도도새는 유독 이 섬에서만 살고있던 새로서 이 고장 사람들은 희망과 행복의 상징으로 구세주처럼 여기는 새이다.

그 새를 구세주처럼 믿고있는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고 한다.

아득한 옛날 지중해로 가는배길에서 풍랑을 만나 망망대해로 표류하던 한사람이 무인도였던 이 섬의 바위돌에 걸렸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다.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릴수 있는것은 얼굴에 떨어지는 물방울의 찬기운과 자지러진 새소리의 덕분이였다.

그 새는 섬에 처음으로 나타난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바라는지 공지에 물을 묻혀가지고 와 물방울을 떨구면서 큰 소리로 우는것이였다.

이 새가 바로 도도새였다.

눈이 부시도록 청신하고 불수록 도고해보이는 우아한 새의 모습에서 생에 대한 욕망이 되살아난 그는 정신을 차리고 전신에 힘을 모았다.

일어나려고 손바닥을 땅에 짚는 순간, 무엇인가 선풍하는 감촉을 느끼게 되였다.

그것은 도도새알을 노리고 나무에 기어오르는 흉물스러운 뱀의 꼬리였다.

무서움보다 먹을것이 생겼다는 생각이 앞선 그는 손에 잡히는대로 돌을 들어 힘껏 던졌다.

다행히도 돌은 뱀의 머리에 명중되였다.

그는 땅에 떨어진 뱀을 집어들어 씹어먹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었던지 그때부터 도도새는 그의 곁에서 살면서 미리 예고해주기도 하였다.

그때부터 이 섬사람들은 도도새를 행복과 구원의 상징으로 구세주처럼 믿게 되였다.

그들은 누구나 도도새가 있어 섬에 평온이 깃들고 행복이 찾아온다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사실 섬사람들의 지나온 생활을 더듬어봐도 도도새의 운명과 신통기도 하나로 일치되어있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년전 섬에 기여든 식민주의자들은 화목하게 살던 이곳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으며 아름다운 도도새사냥에 미쳐날뛰었

다.

그리하여 섬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름다운 도도새는 1630년대말에 이르러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끝마치게 되였다.

도도새가 없어진 섬에는 나날이 더 큰 불행이 생겼다.

식민주의자들의 발굽아래 짓눌려 마소가 되어버린 남너로소들은 나무잎으로 겨우 몸을 가리고 손끝으로 땅을 두지며 사탕수수농사를 지었다.

그러다가 열대의 장글속에 옥실거리는 독사한테 물려죽거나 이마에 도장이 찍힌 《상품》이 되어 어디론가 팔려가군하였다.

불행이 겹칠수록 섬사람들은 아름다운 도도새가 나타나 구원해줄기를 빌고 또 빌었다.

그러던 어느해였다.

연 수십일 살가죽을 태우고 돌을 녹이는 열풍이 계속되더니 온 섬을 쓸어갈듯한 폭풍우가 쏟아져내렸다.

어설핀 초막에 의지하여 근근히 살아가던 섬사람들이 순간에 한지에 나왔게 되였다. 살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은 약속도 없이 도도새가 많이 모이군하던 해안가 벼랑밑에 모여들었다.

모여든 섬사람들은 섬의 좌상인 호센지로인을 둘러싸고 그의 입만 지켜보고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호센지로인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여보게들, 아무래도 도도새없인 살수 없는것이 우리네 운명인가 보오.

그래서 나는 온 섬이 달라붙어 도도새를 만들어보자는거요. 도도새를 그리는 우리의 정성이 차고넘치면 하늘도 무심하겠소?》

로인의 말을 섬사람들은 한결같이 찬동하였다.

하여 남너로소가 펼쳐나 바다가를 헤매고 물속을 또 뒤지여 1만 5천개의 희귀한 조개껍질과 갖가지 진주보석을 모아왔다. 그리고는 몇밤을 새우며 조개껍질을 다듬어 도도새의 털을 하나하나 만들어붙였다.

드디어 도도새를 완성하는 날이 왔다.

호센지로인은 갖가지 모양의 조개껍질로 단장한 아름다운 도도새를 하늘높이 쌓아올린 석탑우에 올려놓았다.

섬사람들은 희망을 안고 도도새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어찌하랴!

그들의 정성이 쌓이고 피가 모여 만들어진 도도새는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건만 행복은 찾아들줄 몰랐다.

오히려 그해에는 례년에 없이 가물만 계속되더니 몸쓸 병마까지 휩쓸어 술한 무리죽음을 냈다.

《아, 하늘도 무심하구나. 과연 저 도도새는 우리의 행복을 찾아줄수 없단말인가?...》

가슴을 허비는 로인의 말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었다.

섬사람들은 며칠째 토론을 거듭하고있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오래동안 침묵이 흘렀으나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였다.

섬안에서 가장 성품이 강직하고 용감하기로 소문난 까다로라는 청년이 머리를 번쩍 쳐들더니 호센지로인앞에 나서며 말하였다.

《로인님, 제가 이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행복의 도도새를 꼭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나 호센지로인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닐세, 괜한 고생일랑 말게.

수백년전에 없어진 도도새가 어디에 있겠나?》

하지만 까다로는 자기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로인님, 이렇게 앉아서 죽느니보다 도도새를 찾다가 죽는것이 선친들에게도 떳떳할줄 압니다.

악마들이 아무리 포악하다 하여도 그 많던 도도새를 다 잡지는 못하였을것입니다.

저는 필경 이 세상 가장 살기좋은 어느곳에 도도새가 살고있으리라 봅니다.》

확신에 넘친 까다로의 말에 젊은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호응하여 따라나섰다.

그리하여 섬에서 선발된 아홉명의 끝끝한 장정들이 도도새를 찾아 떠나게 되었다.

어디라 딱히 정한곳은 없었다.

그들은 우선 가까운 물에 올라 도도새의 행방을 알아보리라 결심하고 서쪽으로 노를 저어갔다.

파도와 싸우며 십여일, 그들이 처음으로 물에 오른곳은 끝간데없이 펼쳐진 사막이었다.

까다로는 모래물을 헤치느라 지칠대로 지친 사람들을 부축하며 이악하게 일행을 이끌어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억대우같은 까다로는 더는 이겨내지 못하고 모래가 흩날리는 언덕에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까다로는 입안으로 흘러드는 따스한 물기운을 느끼며 가까스로 눈을 떴다.

눈을 뜨고 주위를 올려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벽에 의지하여 반나마 몸을 일궈세우고 창밖을 내다보니 정신이 들도록 푸르싱싱한 강냉이바다가 펼쳐져있었다.

(여기가 어디일까. 혹시 도도새가 살고있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닐까?)

까다로는 전신에 힘을 주며 일어나앉았다.

그러자 둘러앉은 사람들가운데서 그중 나이가 많아보이는 로인이 다가앉으며 물었다.

《젊은이,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인데 어디로 가다가 이렇게 됐소?》

까다로에게서 자기들이 섬을 떠나게 된 눈물겨운 사연을 들은 로인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혼자 소리로 말하였다.

《음... 행복의 새를 찾으러 간단말이지. 그런데 해빛을 등지고 서쪽으로 왔으니까 고생할수밖에...》

자네들이 행복의 새를 찾으려면 서쪽으로가 아니라 동쪽으로 찾아가야 하네.》

그러자 모여섰던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다.

《아무렴, 그렇구말구.》

로인의 말은 까다로일행을 크나큰 기쁨에 휩싸이게 하였다.

《로인님, 우리 섬사람들을 살리는 마음에서 부디 그 향도성을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주십시오.》

까다로일행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난 로인은 머리를 끄덕이었다.

《자네들이 옳게 결심하였네. 오늘 인간세상의 태양인 향도성을 찾아가야 그대들이 바라는 행복을 찾을수 있네 그대들이 해쫓는 동쪽을 향해 가느라면 맑은 아침의 나라로 불리우는 조선에 가 닿게 될것세. 조선의 평양에는 경치절묘한 대동강이 있는데 강가운데서는 두마리의 청룡과 황룡이 분수를 뿜어올리고있을것세. 그우에 하늘높이 솟아 빛나는 별이 바로 시대를 밝히는 주체의 향도성이네.》

임자들은 대동강의 해돋이가 시작될무렵 향도성을 우리러 자기 소원을 말씀올리게. 그러면 반드시 소원을 풀어줄거네.》

다음날 아침 까다로와 그 일행은 신심에 넘쳐 길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기어이 주체의 향도성을 찾아뵙고 행복의 새를 안고 오리라.)

이렇게 굳게 맹세한 그들이 동쪽을 향해 돌아섰을 때였다.

갑자기 바다가운데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면서 온 천지가 더욱 환해졌다.

밤에는 밤대로 그 빛발이 반짝이는 별빛이 되어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주체의 향도성이 자기들을 부르고있는것이 분명하였다.

까다로와 그 일행은 힘든줄도 모르고 낮에 밤을 이어 가고 또 갔다.

해빛이 밝혀주고 별빛이 이끌어주는 길을 따라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걸음을 다그치던 어느날이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참으로 희한한 황홀경이 나타

났다.

수려한 산천에는 온갖새 노래하고 크고작은 나무들에 꽃들이 활짝 피어나 향기를 풍기고있는데 곳곳마다에는 하늘을 치받들고 일떠선 여러가지 모양의 궁전같은 집들이 짙 들어차있었다.

마치도, 이 세상 만가지 경치를 한데 뭉쳐놓은듯한 대도시가 눈에 안겨왔던것이다.

(여기가 옛말에 나오는 지상천국이 아닌가?)

까다로와 그 일행이 어리둥절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리고있을 때 어디선가 처음 듣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정신없이 달려가보니 날아갈듯한 합각지붕을 인 웅장한 건물앞에 술한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온 세계는 일떠서 나가네
주체의 한길로 가네
자신의 운명을 틀어쥐고
새 세계를 창조하네
김정일 그이는 향도성
김정일 그이는 향도성
온 세계는 우리러 받드네
주체의 향도성

(아, 그러니까 여기가 주체의 향도성이 빛나는 곳이로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까다로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활활 타오르는 그 별빛아래에는 유유히 흐르는 강줄기가 비단필처럼 뻗어있었고 그 강가운데서는 두줄기의 물기둥이 솟구쳐올라 은구슬, 금구슬을 뿌리고있었다.

까다로와 그 일행은 해돋이가 시작될 무렵을 놓치지 말라고 하던 로인의 말이 생각나 서둘러 옷매무시를 바로잡았다.

드디어 그 시각이 왔다.

온 강물을 쇠물처럼 붉게 물들이며 해돋이가 시작되었다.

이 순간, 갑자기 그들의 머리우에서 찌렁찌렁하는 목소리가 울려왔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입니다. 그대들은 행복의 새를 찾으려다니지 말고 자기 땅에서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들에게 행복을 찾도록 슬기와 용맹을 주는 보물을 주겠으니 저 합각지붕을 이고있는 집에 들어가 받아가시오.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게 보이시오.》

까다로일행은 곱게 생긴 선녀들이 반가이 맞아주는 합각지붕을 한 집에서 금빛도는 함을 받아

가지고 나와 서둘러 펼쳐보았다.

이 순간, 함안에는 신기한 책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보물이로구나!)

그들이 귀중한 보물을 가슴에 고이 간직하였을 때였다.

주체의 향도성에서 쏟아져내리는 류다른 빛발이 그들의 머리우를 비치더니 온몸이 허공에 뜨는것이였다.

한발자국 옮기니 벌써 하늘높이 솟아올랐고 열발자국 옮기니 그리운 섬이 눈아래 펼쳐졌다.

주체의 향도성이 뿌리는 빛발을 타고 눈깜박할 사이에 섬으로 돌아온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그 신기한 책을 읽었다.

읽으면읽을수록 슬기가 생기고 팔다리에는 장수힘이 뻗쳐 모르는것이 없고 무서운것이 없게 되었다.

그 책의 신통력은 그것만이 아니였다.

그 책을 다 읽은 사람이 나타나면 수백년동안 섬에 기여들어 온갖 못된짓을 하며 도도새를 쏘아 잡던 식민주의자들이 열풍에 절은 풀대처럼 맥을 못추고 비실비실 뒤걸음치는것이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섬안에 기여든 원수들을 모조리 때려잡게 되었다.

섬사람들이 가져간 신기한 책은 바로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쓰신 로작들이었다고 한다.

수백년동안 짓눌려 살던 섬사람들은 드디어 자기 세상을 되찾았으며 섬에는 또다시 행복이 깃들었다.

행복을 되찾아주신 주체의 향도성을 우리러 섬사람들은 큰절을 하였다.

섬사람들을 둘러보며 호센지로인은 격정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게들! 이 섬에 행복을 찾아주신 은정 무엇으로 보답하겠소. 우리에게 행복을 다시 찾아주신 그이께 도도새와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드렸으면 하오.

이것이 은혜를 받아안은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 하오.》

이렇게 되어 350년만에 다시 살아난 도도새의 모형이 섬사람들의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소원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선물로 드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도 국제천선전람관에 있는 섬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그 도도새는 시대의 향도성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온 세상 사람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한다.

이 나라 대지우에 끝없이 이어진 사랑의 자욱

8월이 왔다.

늑늑한 감을주던 장마철의 날씨는 풀려가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군한다.

푸르른 하늘중천에서는 한여름의 태양이 밝은 빛을 뿌리고 그 따사로운 해월에 달아오른 대지에서는 산천초목이 향기로운 열매를 무르익히며 풍요한 가을을 기다리는 계절이다.

청신한 기운이 감도는 상쾌한 이 아침 우리는 모란봉기슭 개선문앞에 서있다.

세월의 만고풍상, 력사의 온갖 시련을 다 헤치시며 피어린 눈보라만리, 혈전만리를 걸으시여 내 나라를 찾아주시고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천만년 길이전하며 솟아있는 력사의 기념비-개선문.

우러를수록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조국을 광복하기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압록강반에 남기시고 장장 20여성상, 백두의 밀림속에서 풍찬로숙하시며 수십수백배나 되는 대적과 맞서 고군분투하시여 광복성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 조국인민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던 30대의 젊으신 백두산장군의 릉름한, 모습이 숨엄히 어려온다.

귀기울이면 광복의 기쁨, 해방의 기쁨에 울고 웃으며 개선의 단상에 높이 서신 젊으신 수령님의 모습에서 휘황할 조국의 래일, 민족의 전도를 내다보며 우리 인민들이 터치던 그날의 환호성, 조국강산에 메아리치던 **《김일성장군 만세》** 소리 가 귀전에 들려오는듯싶다.

장백산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개선문에 새겨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한자한자 되새겨가느라니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로 수놓아진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이 가슴드겁게 어려와 우리의 마음은 후덥게 달아올랐다.

백두산 줄기줄기마다에 피어린 자욱을 새기시고 압록강 굽이굽이마다에 혈전의 자욱을 남기시며 인류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간난신고를 다 겪으시며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건져

주시고 재생의 빛발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

그러시고도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속에 신음하는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해주시려고 스무해 긴긴세월 그 어느 하루도 잊지 못하시던 고향집, 꿈결에도 그림던 늙으신 조부모님 손꼽아 기다리시는 고향집을 찾으시기에 앞서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거니...

그날로부터 큰 반세기동안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추시는 그날까지 그 어느 하루의 휴식도 없이, 일요일과 명절날마저도 인민을 위한 길에 바쳐가시며 굶은길, 험한길 가림없이 걷고걸으신 우리 수령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민위천>은 나의 지론이고 철학입니다.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평생 인민대중을 하늘과 같이 여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여왔습니다.》

그렇다.

《이민위천》 이는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리념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을 위해 바치신 삶,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이였다.

언제나 인민과 함께 제시며 인민과 더불어 회로애락을 함께 나누신분,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삼으시며 인민의 슬픔과 피로움을 두고 그 누구보다도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걸음도 많이 걸으신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정녕 우리 수령님 이 나라 대지우에 찍으신 자욱자욱마다에는 인민을 위해 바치신 끝없는 사색과 심혈이 깃들어있고 우리 수령님 내 조국땅우에 쉬임없이 잇고 또 이으신 현지도로정마다에는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거늘.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그날의 사연을.

그것은 1949년 9월 21일에 있는 일이었다.

그날 황해도 금천군 서천면 시변리(현재 황해북도 토산군 토산읍)를 현지도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급보를 받으시고 평양으로 떠나시였다.

일본일초를 다투는 길이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중환에 계신것이였다.

자신의 가장 충직한 전사이시며 혁명동지이신

김정숙동지를 그려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은 벌써 평양의 저택에 가계시였다. 자신의 목소리만 들으시면 김정숙동지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것만싶으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주 손목시계를 보시며 평양까지의 거리도 알아보시였다.

안타까우신 아버지수령님의 마음을 담아시고 승용차는 전속력으로 달리였다.

그런데 차가 신계군의 어느한 마을을 지날 때였다.

차창밖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갑자기 차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가물에 타서 얼마나 말라버렸던지 고추꼬투리만한 조이삭을 보신것이였다.

차문을 열고 내려서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조이삭을 가슴아프신 눈길로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그러시던 수령님께서서는 길가에서 얼마 떨어진 강기슭에 있는 물레방아간으로 찾아가시여 조를 쟁고있는 농민과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원래 이 지대는 물이 없어 논 한뼉이 풀지 못하고 조나 강냉이 농사만 짓고있었다. 그나마 제대로 여물지 못해 쪽정이가 절반이였다.

방아확에서 쪽정이진 조이삭을 한줌 꺼내드시고 손수 비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농민에게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놀고먹는 강을 막아 논을 많이 풀고 산기슭에는 파수나무도 심고 집집승도 많이 길러 잘 살아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수행원들은 《장군님!》하고 목매여 부르짖으며 오열을 터뜨렸다.

김정숙동지의 병환을 잘 알고계시는 수령님이시였다. 그날 평양에 한시라도 빨리 가닿고싶으신 마음 얼마나 크시였으랴.

한순간이 더없이 귀중한 시각, 빨리 떠나셔야 할 그 바쁘신 길이였으나 가물에 타는 하나의 조이삭에서 흘러간 지난날의 수난의 력사와 농민들의 고달팠던 생활을 가슴해보시며 휘황한 래일을 안아오시려 달리는 차를 멈춰세우게 하신 아버지수령님

인민들의 먹는 문제가 걱정되시여 자신의 슬픔도 피로움도 묵묵히 새겨가시며 우리 수령님 바쳐가신 그날의 그 사랑있어 오늘 신계, 곡산벌은 비옥한 농경지로, 축산기지로 그면모를 일신하였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 어찌 그뿐이라 어느한 기계공장 노동자들이 추운곳에서 일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것이 그리도 가슴아프시여 국가주석이며 당총비서인 내가 어떻게 모자를 쓰고 털외투를 입고 갈수 있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며 그 공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단념하신

아버이수령님.

해방직후 숙천군의 농민들과 담화하시다가 기침을 하느라 모대기는 농민들을 보시고 마타리물을 먹는 사람들의 고통이 헤아려져 잠 못이루시며 다른데서 물을 끌어다가라도 맑은 물을 먹고싶어하는 이 지방 농민들의 소원을 풀어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관개공사를 하기로 결심하신 아버지수령님.

이렇듯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우에서 자신의 80여평생을 보내신 아버지수령님이시였기에 탄생 80돐을 맞는그해 봄날에는 날씨가 아직 쌀쌀한 한지에서 나물채를 반찬으로 둔 수수한 팍팍을 길가의 잔디밭에 펼쳐놓으시고 그 찬감과 물 한 고뿌로 아침식사를 달게 드시며 이렇게 하면 인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시간도 절약해서 좋다고 하시며 또다시 길을 이어가시지 않으셨던가.

정녕 우리 수령님은 한평생 인민을 위한 길에서 자신의 사색과 심혈, 로고를 깡그리 다 바치시며 이 나라와 대지우에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자욱을 남기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력사의 대성인이시였다.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 모습 그대로 수령님의 사랑의 자욱이 깃든 내 나라, 내 조국의 정든 대지우에 위대한 령도의 자욱을 새겨가신다.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 어린 《이민위천》을 그대로 자신의 좌우명으로 받아안으시고 아버지수령님 한평생 타고오신 《인민행렬차》에 오르시여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의 력사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일찌기 혁명을 하는 궁극적목적도 인민을 잘살게 하자는데 있다고 하시며 인민을 자신의 선생으로, 스승으로 여기시며 위대한 령도의 첫자욱을 인민들을 찾아가시는 현지도로 시작하시여 보다 큰 행복, 보다 큰 기쁨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기위해 낮과 밤, 쉬는날, 명절날이 따로 없이 인민을 위한 그 길우에서 자신의 생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어느해 5월 어느날 밤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조국의 북단 바다기슭을 따라 달리고있었다.

밤길을 쉬임없이 달리던 승용차가 어느 한 바다가마일에 이르렀을 때였다.

불이 꺼진 바다가마을에는 깊은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차창밖으로 고요히 단잠에 든 어촌마을을 내다보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운전수더러 예정보다 늦어졌으니 속도를 내여 달리라고 하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 일군에게 마을을 에돌아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늦어진 길인데 예돌아가다니?!)
 일군은 의혹을 감추지 못하였다.
 마을을 예돌아가는 길은 멀뿐아니라 바다가습
 지를 지나야 하므로 매우 험하기때문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러는 일군을 바라보
 시며 깨우쳐주듯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어로공들이 한창 깊은 잠에 들었겠는데 마을
 길로 불을 켜고 차가 달리면 그들의 곤한잠을 깨
 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였구나!)
 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심중이 헤아려져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리하여 승용차는 탄탄한 마을길을 옆에 두고
 멀리 돌아가는 진창길에 들어섰다.
 감탕에 빠졌다가는 간신히 빠져나오고 빠져나
 왔다가는 다시 감탕에 빠지기를 그 몇번... 퍼그
 나 오랜 시간을 신고해서야 승용차는 습지길을
 빠져나왔다.
 승용차가 큰길에 나서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차창뒤로 멀어져가는 바다가마을, 불이 꺼진
 고요한 어촌마을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
 으시였다.
 자신은 험한 진창길을 걸으시며 행복의 단잠에
 든 인민의 모습을 그려보시고 거기에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시며 미소지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어느때인가는 바쁘신 길이었건만 앓는 어린
 애를 업고가는 너인을 보시고는 차를 멈추시고
 병원까지 태워다주시며 어린애의 병을 못내 걱정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잠은 쪽잠이 제일 달고 밥은 췌기밥이 제일 맛

있다시며 겹쌓이는 피곤을 차안에서의 쪽잠으로
 몰아내시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분, 소박한 췌기밥 두덩어리로 길가
 의 바위우에서 점심식사를 하시며 췌기밥은 혁명
 가들에게 있어서 리상적인 도중식사라고 말씀하
 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생애의 순간순간을 자나깨나 인민만을
 생각하시던 아버지수령님 그대로 경애하는 장군
 님의 마음속엔 언제나 인민밖에 없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수령님 모
 습으로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수령님께서 평
 생토록 걸으시던 이민을 위한 그 길을 변함없이
 걷고걸으시는것이다.
 이길은 바로 우리 수령님 조국과 민족,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 헤쳐오신 불면불휴의 로고의 길
 이다. 이 길은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
 이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우리의 사회주의와 인민
 의 운명을 지켜 단신으로 력사의 광풍을 막아내
 시며 우리 인민의 영원무궁한 행복한 래일을 안
 아오시기 위해 오늘도 걸으시는 그길이다.
 이 길에서 더욱 부강번영할 내 나라, 내 조국
 의 래일도 사회주의의 승리도 우리는 보고있다.
 아버지수령님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이길,
 경애하는 장군님 진두에 서시여 이끄시는 이 길
 을 따라 우리는 일편단심 충효의 마음을 안고 영
 원히 변함없이 걸어갈것이다.
 그 어떤 시련의 광풍이 불어온대도, 그 어떤
 험산준령이 가로 막아도 영원히 변함없이...

본사기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계이제마 작곡

김정일동지 그이는 시대의 탁월한 사상리론가
 그이의 업적 위대하여라
 그이의 사상 강철처럼 굳세고
 그이의 리론 금강석처럼 불멸하리

김정일동지 그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위업의 계승자
 인민들은 그이의 업적 노래하여라
 그이의 사상은 당의 숨결
 그이의 저작 우리를 가르치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길을

통일을 지향하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아들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는
 정력적인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주체의 사상리론의 거장
 평화와 진보의 수호자
 그이는 세계혁명의 뇌수

(필자는 르완다교원임)

경애하는 장군님 고맙습니다

리광근

찾아뵈온것이 었그제이건만
울적마다 떠나고싶지 않아
돌아서기 서운해
다시 찾아뵈웁기를 몇번
그때마다 언제나 처음인듯
언제나 새로와지는것을

아, 어제도 오늘도 그렇게 날은 흘러
벌써 3년세월이 흐른것인가
못잊어 어버이수령님 뵈고싶어
그리워그리워 맞고보낸 나날은
세해의 날과 달로 이어졌건만
어버이수령님을 그려온 나날은
언제나 한낱갈아
계절이 바뀌어 몇번이여도
내 여기 금수산기념궁전으로
어버이수령님을 뵈오려 처음 찾아오던
세해전 그 걱정의 날로 되돌아감이어
...

말없이 울렀노라
가슴 후더이
경건히 들어앉았노라
산뜻한 전동차
부드러운 자리에

정복차림 단정한 안내원의 신호에 따라
조용히 미끄러져간 이 몸
점점 가까와오는 금수산기념궁전
빨리 편히 가라고
뜨거웠노라 이 길을 마련해주신 은정

만사람의 간절한 소원 풀어주시려
우리의 장군님 이 길에 오르셨을 때
마을사람, 길사람들 어떻게 알았는가
경애하는 장군님 가까이 뵈오려
만세를 부르며 엮어지며 달려오던 그날

이 사람들
충성스런 이 사람들을
한품에 다 안아보시며
환하신 미소로 차창밖에
손저어 답례하시던 장군님의 심정이어

얼마나 좋은 우리 인민인가
자기의 령도자를 저렇듯 믿고 따르는

이런 인민모두에게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의 모습
하루빨리 뵈웁게 하리라
더더욱 다짐하시던 그날의 장군님

자애로운 그 영상
이 전동차안에 환히 어려
그이의 다정하신 가르치심 들려와라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제십니다

한결음한결음
흐르는 대오따라
가까이가까이 다가서는
금수산기념궁전

웅장한 건물 높다란 정면에
환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영상 우러르니
뜨거이 안겨와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생각깊으신 가르치심

기념궁전의 성격에 맞게 창문들을 다 막고
우리 인민들의 눈물의 영결식때
그리도 속깊이 간직한 영상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 초상을 모시자고
정면벽의 가까이 밀리를 오가시며
그 위치까지 가늠하여 정해주신
장군님의 안광으로 밝게 비쳐오는 초상이여

우리 앞서 수령님을 만나뵈우고 나오는가
충혈된 눈에서 손수건을 떼는 사람
나를 보며 말없이 눈인사하는 그는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 모신 대회의 연단에서
선동경험 토론하여 칭찬받던 제대군인-작업반장

그였다 이름난 쌀고장의 그 동무
자기의 논벌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맞이한
그 자랑 그 사적을 세상에 전하자고
그를 찾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헤어졌거니
무엇때문이었던가 무엇때문이었던가

1

그날도 그 작업반장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가슴 들먹이며 논벌을 거닐고있었다.
정중히 세운 길가의 표식비앞에서
그 뜨거운 이야기 몇시간이나 들었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논벌의 벼이삭을 살펴보시며
탐스러이 잘되었다고 만족해하셨다고
동무들이 우리 당의 주체농법의 정당성을
만풍의 열매로 확증했다고 환히 웃으시며
대견히 바라보시던 모습 가까이 뵈옵는듯
감격에 젖어있던 그 목소리 잊을수 없어라

누런 벼이삭들이 흥치며 설레이는
일망무제 황금벌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대풍이 든 논벌에 찾아오면
마음이 흐뭇해져서 쭉어지는것 같다고
래년가을에 다시 오시겠대시던 어버이수령님

그날 그 가을날을 그리어보며
그 작업반장과 함께
푸르러 설레이는 논벌에
흐뭇한 마음
느실느실 실어보던 그 순간이던가

무연한 논벌을 흔들며
무게있게 울리는 방송원의 목소리
잠시후에 증대방송이 있겠대고
거듭거듭 알리는
그 목소리

?!...
허공중에서 마주치는 두눈빛
서거?!...
서거라니
무슨 갑작스러운 일인가

어쩔사이 없이
인사는 무슨 인사
급기야 농장으로 내달리는 작업반장
급기야 역으로 나도 내달려
평양행 열차에 올랐던 그날이어

아 어버이수령님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해 가을도 지나
피눈물을 뿌리며
수령님 령전에 인사드린 작업반장
오늘의 이 기념궁전길에서 다시 만났구나

순간에 만나 순간에 나눈 그와의 눈인사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장군님 은덕에
감사를 드리는 뜨거움의 오고감이어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장군님을 길이길이 모시고 받들자고
말없는 다짐을 나눈 그와의 눈인사
순간은 짧았어도 한생토록 간직하리니
걸음걸음 그 다짐을 새기고새기며

승엄히 들어서는 금수산기념궁전
바라보는 광장에 설레이누나
활짝 피여 향기풍기는 갖가지 꽃들이며
무성히 그늘져 덮은 포도넝쿨

어느것이라 그 하나하나
어버이수령님의 손길 다 스며있어
마음은 스스로 거기로 달려가
살어보고 매만지고 소중히 안아보면

아 금시라도
어버이수령님 다정하게 손을 들어
어서 가까이 오라고 정답게 부르시는듯
잘 익어 탐스러운 포도송이 똑똑 따서
아름벌도록 한아름 안겨주시는것만 같아

못잊어못잊어
눈에 삼삼
인자하신 수령님의 그 영상
눈앞에 이 가슴에 꼭 찬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 높은곳으로
걸음 앞서 앞서만 달려가는 마음이어

언제 어느곳이라
뉘라없이 만수축원의 한마음으로
만수대언덕으로만 물결치던 걸음들이
오늘엔 여기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영생기원의 승엄한 걸음으로
끝없이 이어져 대해같이 넓어진
그 물결

2

활짝 열린 큰 문
넓다란 홀엔 불빛이 환해
조심히조심히 옮기는 걸음따라
천천히천천히 들어서면

온몸이 스스로 이끌리어라
저앞
노을빛 흐르는 저앞에
근엄하게 서시여
한사람한사람 차례차례로
만나주시여라 우리 수령님
은은히 흐르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승엄하게 이 가슴 흔들어
깊은 생각을 불러냄이어

서서히 울리는 노래속에
누리에 솟아오른 태양과 같이
불타는 노을을 펼치시며
우리앞에 위대한 수령님 서계시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뜻 깊이깊이
가까이가까이
타오르는 노을 가까이 다가서면
눈부시게 비치는 태양의 모습
근엄하게 서계시는
아 어버이수령님!

환한 이 홀에 들어선 첫걸음에서
예까지 오는 거리 얼마이라만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한치라도 거침없으라고 대리석을 번듯 깔아
이 몸을 떠밀어 수령님앞에 세워주시니

멀리 분계연선의 어느 초소길
인적드문 외진 두메의 오솔길
대양과 대륙을 넘어
길은 끝없이 이어져있어라
수령님 뵈오려 오는 걸음걸음마다
경애하는 장군님 마련해주신 이 길로
세월을 넘어 이어져있어라

뵈우고싶던 마음 하나이어서
서로서로 품은 생각도 하나같아서
여기서는 아뢰이는 소원도 하나
여기서는 다지는 맹세도 하나

깊이 허리굽히는 순간
한눈에 안겨와라
수수하게 신고계시는 수령님 신발
이 나라의 외진 두렁길과
온 세계의 방방곡곡으로 이어지는
로고의 그 자욱 밝혀와

저 발걸음이 아니시던가
못잊을 그 가을날
몸소 찾으셨던 분계연선의 그 농장길
온 하루 들길을 걸으시며
흙먼지가 뽕얇게 앉았던 그 신발

어쩐지 나에겐
그날의 그 로고가 가슴 뜨거워
나도 몰라라 손수건을 매만지며
못다 바친 충효심을 가다듬는 마음

수령님의 그 신발
자꾸만 어른어른 눈앞에 떠올라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바치신 한평생
뜨겁게 느껴안노라
한평생 그 걸음 쉬심이 없이
찬이슬 찬비
눈보라 흙먼지에

진길 마른길 가리십없이
인민을 찾아 걷고 걸으신
아 어버이수령님

생전의 모습 그대로 어제날같이
집무실에서 우릴 마중하시려
문앞에서 두팔 활짝 펼치신 품이런가
경애하는 장군님 넓게도 열어주신 계단이어

무심히 볼수 없어라
내 밟는 드넓은 홀
한단한단 뻗어간 저 계단
그 폭과 높이를 두고
또다시 넓이도 가늠해보시며
장군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해주신
그 사랑이 노을로 피어나는 홀이어

이만하면 됐다고
어린이들도 오르내리기 맞춤하겠다시며
널다랗게 열린 계단을 두고
만족하여 환하게 웃으신 장군님이시여

언제나 언제나와 같이
다심히 보살펴주시며
다정히도 불러주시며
수령님께서 수령님께로만 가까이가까이
손잡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장군님

따뜻하신 그 부름 그 손길에
걸음걸음 경건히
어버이수령님앞에
내가 들어서고
인민이 들어서고
세기를 넘어넘어
인류의 발걸음 그치지 않으리라

아, 하늘땅이 열려
수천수백만의 인류사에
수십수백으로 헤아리는 국사들에
자기 수령의 영생을 이토록 기원하시는 령도자
언제 어느 갈피에서도 못찾아

그 하나의 뜻으로 인민을 품에 안아
이 높은곳으로 올려세워주시며
이 한길로 령도하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같으신분
세상에 더는 없어 더는 몰라
걸음걸음 뜨거움이 솟구침이어

3

여기에 계시여라 위대한 수령님

그리도 뵈고싶던 우리 아버지
영영 떠나셨다고 떠나셨다고
땅을 치며 가슴치며 통곡했더니
이렇게 여기에 서계시는것을

너무도 격하여 너무 격하여
왈각 쏟아지는것을 가까스로 누르며
마음속으로 터치는 소리소리
-아버이수령님
아버이수령님!
저희들이 왔습니다
정말 뵈고싶었습니다

정중히 아뢰이며
깊이 허리굽혀 인사드릴 때
숫구치는 격정에 잠겨 머뭇거리며
내 등을 가벼이 두드려주시며
우리의 장군님 조용히 타이르시는듯

생전의 모습 그대로이신 수령님
어제날 그 농장벌을 찾으셨던
그 저녁같이 노을속에 서계신다
세월의 고비고비 80여성상 쌓인 피로
여기 풍치수려한 금수산기슭에서 잠시 푸시려는가

아 생각깊어라
1912-1994
먼 그 나날의 자욱자욱이여
얼마나 많은 뜻 담겨져있는가
20세기 갈피갈피에 기록된 력사
수천수만으로 엮어진 태양의 년력이
이 년대에 다 있어라

기나긴 나날을 하루와 같이
사나운 눈길. 폐허의 험한 길에
산촌의 농가집 부엌문 너머에도
쉬임없이 허물없이 남기신 자욱
이 년대에서 빛나라

조용히조용히 다가서면
마치 어제날 그 포전머리에서처럼
친근한 음성도 들려와라

-스무해전 그 대회장에 왔던
기자동무구만
그때 토론 잘하던 그 작업반장도 왔더랬소
그 동무와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해 이렇게 여기서 만났소

그 약속은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 지도간부들을 그 농장에 보내어
나대신 잘 지켜주어 마음이 놓ियो

그 동무도 이 자리에서 눈물을 삼키며
고맙다고 거듭거듭 인사하더군

-아버이수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작업반장의 마음과 함께
다시금 정중히 인사드리니
타이르며 고무해주시는 수령님 말씀
-건강하여 일들을 잘하시오
동무들이 김정일동지를 받들어
조국을 통일하고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바라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수령님 유훈을 명심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모시고 받들겠습니다
심장깊이 다짐하고다짐하며
수령님결을 떠나는 아쉬움이여

아쉬워아쉬워
마음은 여기에 남아있건만
전동차에 앉아 떠나는 나의 눈엔
금시 다녀온곳이 삼삼해
차창밖을 내다보고 바라보는 이 심사
그 숭엄한곳에 생전과 다름없이
아버이수령님 집무실에 계시니

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천지가 곡성으로 차있던 그날에 벌써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예나 다름없이
금수산기념궁전의 집무실에 계시리라
사람들이여 수령님은 잠시 출장길에 오르셨으니
꼭 돌아오시여
기어이 다시 만나리라
비구름덮인 그날 천지에 새기신 뜻이여

완공의 날에 광장에 나서시여
새로이 꾸려진 기념궁전을 일별하시며
장군님께서 만족하시여 하신 말씀 가슴울려라
-이제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기를 두고 전무후무할 대기념궁전입니다
인민들이 바라는것을 풀어주었습니다

드르릉드르릉 메아리쳤다
이 나라 이 하늘에 넘어
위도와 경도를 지나 세상천지에
태양과 태양 산발과 하늘을 두드리며
만족하시여 하신 장군님 말씀
뢰성처럼 메아리쳐 울렸어라
진정한 공산주의자
티끌만한 사심도 없는 전사-혁명가가
자기 수령에 대한 참다운 의리와 도덕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인류사에 처음 밝힌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소박한 신인이여
 그 높으신 뜻에 받들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여기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여
 생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시여
 떨어져 못살 꿈결에도 그리는 인민의 심정
 속깊이 헤아려 풀어주신 장군님 은정에
 얼마나 뜨거운것이 솟구치는것인가

아, 우리 수령님
 어제도 오늘도 세상에 없는
 이 기념궁전에서
 어제와 다름없이
 온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나주시며
 따사로운 햇빛을 안겨주시니
 진정 금수산기념궁전은 태양의 집
 주체의 대성당, 인류의 최고성지로
 세상사람들의 순례는 끝없으리라

스르르 미끄러지듯
 전동차는 주차장에 멈춰서고
 생각많은 걸음들과 같이
 정갈한 차안에서 내려섰어도
 다시금 뒤돌아보는 금수산기념궁전

생전의 그 음성, 그 자애로움으로
 당부하시는 수령님 말씀 다시금 들리는듯
 -그 제대군인 작업반장도 왔더랬소
 그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만났소

아 그 말씀
 마치도 생전에 들려주시는듯
 귀로의 주차장에 나선 이 시각에도
 가슴 가득히 울려와
 걸음걸음 서성거릴 때

저만치에서 가까이 다가오는
 반가와라 분계연선농장의 그 작업반장 아닌가
 기념궁전광장길에서 만났던
 그 순간만으로는 헤여질수 없어
 여기서 나를 기다린 제대군인 작업반장

뜨겁게 손을 맞잡으며
 어버이수령님을 이렇게 다시 뵈웠다고
 그날 그 논머리에서
 뜻밖의 일로 급기야 헤어져
 비통한 나날을 보내던 그
 두해전 여기로 오게 된 사연에
 다시금 눈물이 글썽해져라

그날저녁도 논벌에서 돌아오는 길에

급한 부름을 받고 찾아간 리당
 도당의 책임일군이 정중히 전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
 뜨거우신 그 은정에 솟구친 걱정이며

문서로 가득한 집무탁에서
 수령님 서거 한뼘 중앙추모회 참가를 위한
 각 도별명단을 일별하시던 그이
 붉은 열필로 가벼이 집무탁을 두드리시며
 잠시 사색에 잠기시였거니

분계선지구 도당의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뜨거이 하시는 말씀
 수령님 서거 한뼘 중앙추모회참가자명단에
 분계선마을 그 작업반장이 왜 없는가
 그 동무는 이번에 평양에 올라와
 어버이수령님을 꼭 만나뵈게 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 그 말씀

아 그 말씀 그 지시
 꿈이런가 생시런가 걱정속에 받아안으며
 눈물에 눈물을 흘리던 그 저녁
 엄숙한 중앙추모회 참가에 이어
 기어이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웠음이며

감격스러운 그의 이야기
 들을수록 고마우신 장군님 은덕에
 감사에 겨워 바라보노라
 저기 당중앙창가로 달려가는 마음에
 환히 빛발쳐오는 장군님 영상
 경건히 우러러 아뢰이는 두 심정아

-장군님, 장군님 고맙습니다
 인민의 소원 헤아려 송엄하게 꾸려주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수령님을 뵈고 읍니다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이시여!

진정 이렇게
 우리의 장군님을 우러러
 고마움의 인사를 드린것이
 나 혼자뿐이었던가
 그날뿐이었던가

그렇게 인사를 드린것이
 벌써 날이 흘러 세해전이여도
 오늘 또다시 이곳을 찾는 인민들을 걱정하시여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대외랑
 어버이수령님을 더 정중히 만나뵈우라고
 것처럼 훌륭히 마련해주신

장군님을 우러르는 고마움의 인사
날이 갈수록 더해져

몇배로 더해진 그 인사
아마도 여기서 만났던
분계연선 농장의 그 작업반장도
이름없는 먼 산촌마을의 한 로인과
그 로인의 막내손자도 있으리라

그렇더라 저 멀리 다도해의 섬기슭을 떠나
수령님 품에 안겨 박사로 된
어느 지식인도
동백꽃피는 언덕에서 인민군전사의 등에 업혀온
그날의 소녀 오늘의 한 당일군도 있으리니

그렇더라 해방의 나날과 전화의 나날
폐허의 재더미를 헤쳐온 복구건설의 나날에
아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셨던
그 농민영웅 그 천리마기수들이
어제와 다름없이
수령님을 뵈옵는 마음
그 어이 감사에 목메이지 않으랴

산넘어 구름넘어 세계의 벗들도
끝없이 찾아오고 떠나며
오늘에 이른 3년세월

이 3년이 30년
3천년이 흐른들
아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리

천년만년 세월이 흐른들
아버이수령님은
경애하는 장군님 마련해주신
금수산기념궁전과 함께 영생하시리
생전의 모습 그대로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리

세기를 넘고넘어 세대를 이어
끝없으리라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 사립문으로부터
여기 금수산기념궁전으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찾아뵈오려
굽이치는 대오는 끝없으리니

아, 그 대오의 선두에
나의 세대, 우리의 세대가 서있어
오늘도 래일도 맨 선참으로
금수산기념궁전의 문에 들어서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여라
-경애하는 장군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흰눈

박창화

두손모아 백두의 흰눈을 소중히
췌에 담아서
불에 대이면
왜 이리도 가슴뜨거워지는가

상기도 식지 않은
투사들의 더운피 그대로 배여있는듯
아늑한 불빛을 옆에 두고
사령부로만 배필이해간 자옥 남아있는듯

눈은 차거워도 마음 뜨거웁고
눈은 가벼워도 마음 무거운것
아마도 항일의 그날
그 선혈, 그 자옥때문이라!

청술우의 쪽잠을 덮어주었고
떨어진 량식을 대신해주었고
적들이 따르는 발자욱 지워도 주었고...
그래서 사연도 깊은 백두의 흰눈!-

이 흰눈우에
내 어이 선뜻 발자욱 새기랴
일구월심 수령님만을 따른
그 자옥들과 나란히 새기랴

《반일전가》의 불멸의 메아리도
이 눈우에서 시작되었고
조국해방의 위대한 대강도
이 눈우에서 움터났거늘

아아, 백두의 흰눈우에
누구든 발자욱 쉬이 새기지 말라
깨끗한 그 눈속에 투사들처럼
한생을 아낌없이 묻을 각오 없이는

죽어도 변치 않을 숭배의 신념
한생을 덮지 않을 충효의 마음
그 신념, 그 순정으로
장군님을 따르고 받들기전에는!...

그날처럼

윤경남

천상의 구름라고 오르시였는가
설령의 바람라고 오르시였는가
높고 험한 대덕산초소에
소문없이 찾아오신 우리의 장군님

-결사옹위! 총폭탄!
하늘땅을 진감하는 병사들의 함성
감격의 파도 설레이는 고지에 오르시여
원한의 콩크리트장벽이 뻗어간
최전연의 산발을 오래도록 굽어보시며
감회깊은 추억에 잠기시었네

생년길 헤치시며
찬바람 맞으시며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몸소 찾아오셨던 초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어제날 애어린 다박술도
수십여년 년륜을 아로새기며
뻗어간 아지에 펼쳐진 푸른 잎새

아, 두분께서 찾아오셨던
그날을 못잊어선가
오늘 또다시
영광의 시각을 맞이해서인가
무성한 숲도
기쁨에 끝없이 설레는데

우리의 장군님
수령님을 그리시며
현지교시판 앞에서도
조용히 발걸음 멈추시고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라

전군이 하나가 백을 당하는
《일당백》 장수힘 키울
슬기와 용맹을 안겨주시고
산정에 물줄기까지 끌어올려주신
수령님 그 은정 뜨겁게 회고하시며
걸음걸음 옮기시는 우리 장군님

그날처럼

수수한 야전복 바람에 날리시며
수령님 걸으시었던
오솔길을 따라
감시소에도 오르시고
근무에 나온 병사들과
인사도 다정히 나누시는 장군님

병사들의 훈련모습도
대견히 보아주시고
감격에 눈시울 적시는
병사들과 함께
한집안식솔처럼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천하제일 인정미 많으시분
어버이수령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병사들을 생각하시는분

세월은 흘러도
그날처럼 변함없어라
끝없이 이어지는 사랑의 길이어!
세월은 흘러도
그날처럼 변함없어라
언제나 똑같은 모습이어!

말씀을 하시어도
수령님과 똑같은 말씀
현지도의 길을 가시어도
수령님과 똑같은 현지도의 길을 가시는
장군님은 수령님
수령님은 장군님

오 그날처럼
병사들 고마움에 목메여
담찬 가슴 들먹이며
장군님 오셨다 가시는 길
추원하였네 만수무강 추원하였네

여기서 평양은 멀어도
서리발 총창 비껴들고
조국의 숨결 남먼저 들으며
조국의 관문 지켜가는
병사의 영예 빛내가리라
마음 굳게 다지였네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신념의 노래를 안겨주시려

오늘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며 피와 땀으로 지키고 가꾸어온 행복의 락원을 더욱 빛내여가고있다.

갈수록 시련과 난관은 겹쌓이지만 한번 택한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가려는 인민의 굳센 의지가 신념의 노래로 더욱 높이 울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적인 노래는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사람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고 있으며 우리 시대의 진군을 고무하면서 온 사회에 혁명적분위기를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영광넘친 날에도 준엄한 날에도 일편단심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자기 운명을 함께 하려는 인민의 의지가 심어진 노래들을 들으며 세계는 우리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보고있다.

오늘의 《고난의 행군》길 위에 얼마나 장엄한 시대의 진군가, 불변할 맹세의 노래가 붉은기와 더불어 울려 퍼지고있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지키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충효의 마음으로 받들어가려는 인민의 의지가 그대로 심어진 노래들.

그 노래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민 모두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강자, 굳센 인간들로 키워가시며 이 땅위에 영원한 신념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군한다.

인민의 의지와 맹세가 담긴 한편한편의 노래들은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울으신 크나큰 로고속에 완성된 시대의 명가요이며 세월의 흐름과 함께 끝없이 불리워질 신념에 대한 찬가이다.

혁명의 진군가들이 끊임없이 태어나던 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혁명적신념에 대한 주제가요들이 창작되던 그 날들을 우리는 흘러간 세월의 갈피에서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된다.

1981년 10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몇몇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문학예술 창작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의 열정적인 말씀을 듣느라 일군들은 시간가는줄 모르고 있었다.

어느덧 자정도 지나고 새벽이 가까와오고있었다.

이때였다.

문득 귀밑머리 희숙한 한 항일혁명투사가 방안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를 반가이 맞아주시며 밤이 깊었는데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투사는 스스럼없이 나가다보니 방에 불이 꺼져 있지 않아서 걱정되어 들렀다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다정히 그를 이끌어 자신의 곁에 앉혀주시고나서 친근하신 음성으로 수령님을 모시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천만리길을 헤쳐온 투사동지들이 오늘은 우리 당을 따라서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가고있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모두의 가슴을 송엄하게 울려주는 말씀이였다.

거기에는 뜻깊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철학이 담겨져있었으며 심오한 문학적 종자가 깃들어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웃으시면서 혁명의 계승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노래를 하나 잘 지을 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제목은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로 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1982년 2월의 뜻깊은 공연무대에서 처음으로 높이 울린 가요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는 이렇게 되어 세상에 태어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노래를 들으시고 좋은 노래라고, 훌륭한 노래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이 노래와 같은 노래들이 계속 창작되어야 한다고 창작가들을 고무해주시였다.

그이의 치하의 말씀과 믿음을 안고 창작가들은 혁명의 계승문제와 대를 이어 혁명을 완수해가려는 인민의 굳센 신념의 마음이 깃든 가요창작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하지만 종자를 뿌렸이 부각시키면서 노래를 향상하자니 잘되지 않았다.

그러던 1982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기회에 혁명적신념에 대한 참으로 명백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한 일군에게 혁명적신념이란 무엇인가고 물으

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이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신념으로 되고있다는 그의 말을 들으시며 그것은 너무 일반적인 대답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적신념이란 얻어놓아도 쇠소리가 나고 뒤집어놓아도 쇠소리가 나며 행복한 날에도 준엄한 시련의 날에도 오직 한길을 가면서 한가지 말만 하는 인간의 억센 마음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한번 다진 맹세, 한번 찾은 혁명의 진리를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고 한번 택한 혁명의 길을 순간의 동요도 없이 걸어나가는 사람을 두고 혁명적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이르시는것이였다.

참으로 혁명적신념에 대한 내용이 형상적으로 밝혀져있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그 말씀을 전달받은 창작가들의 가슴은 세찬 창작적충동으로 끓어번졌다.

신념에 대한 노래는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을 사회하여 그대로 옮겨놓기만 하면 되였다.

그들은 곧 《한번 다진 전사의 맹세》, 《한번 찾은 혁명의 진리》, 《한번 택한 혁명의 길》을 세개절 핵으로 하여 가사를 창작해나갔다.

얼마후에는 씌여진 가사에 맞추어 곡도 창작되였다.

노래가 창작된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여러번 노래를 들어주시면서 더 훌륭한 선율을 찾아낼수 있는 방도도 가르쳐주시고 많은 곡들을 일일이 들으시며 제일 잘된 곡도 친히 선정해주시였다.

또한 가사의 매절 마지막에 있는 《우리 당에 자기 운명 의탁하리》라는 표현을 《우리 당과 자기 운명 함께 하리》라고 하는것이 더 뜻깊고 좋을 것이라고 창작가들을 깨우쳐 주시면서 노래가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되도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렇게 완성된 노래를 두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노래 《우리의 신념은 하나》가 아주 잘되었다고, 명곡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이 노래를 15번이나 반복하여 들었는데 웅장하고 무게있게 잘되었다고 거듭거듭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

한편의 노래를 위하여 그토록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시고 무려 15번이나 반복하여 들어주시며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다니?!...

정녕 우리 인민에게 더 좋은 노래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남모르게 바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그 로고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그후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노래를 두고 여러차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노래의 가사를 다듬도록 하시고 형상을 세련시켜주시기도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좋은 노래를 창작한 창작가들에게 축하를 보내자고 하시면서 크게 먼저 박수를 쳐주신 우리의 장군님이시였다.

어찌 이 축하의 박수를 개별적인 창작가들이 받아야 한단말인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이고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창작된 혁명적신념을 노래한 가요들은 실로 허다하다.

그러니 그 노래들마다에 깃들어있는 전설같은 사연들은 또 얼마나 많고 많은것이라!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그 업적을 투쟁의 노래, 신념의 노래에 담아 부르며 위대한 영도자를 받들어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것이다.

본사기자 로창일

가사

만수대언덕을 찾아갑니다

리병호

이른새벽 가슴마다 꽃을 안고서
인민들은 만수대를 찾아갑니다
한평생 새벽길을 헤쳐가시며
행복한 새날만을 펼치신 수령님
아, 그 새벽을 생각하며 찾아갑니다

명절이면 더해지는 그리움속에
인민들은 만수대를 찾아갑니다
단하루 명절날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세월 명절처럼 펼치신 수령님
아, 그 언덕을 생각하며 찾아갑니다

그 어디에 갔다가도 첫걸음으로
인민들은 만수대를 찾아갑니다
충성의 보고만을 안고오르며
영원히 받들어갈 우리 수령님
아, 사시절 하루같이 찾아갑니다

너성일군은 그이께 둘째 부류의 사람이 곱다고 말씀드렸다.

그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동무의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물고뜯는 자본주의사회 같으면 첫째 부류의 사람이 곱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를 들고 투쟁하는 우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곱다고 할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고운 사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꽃병의 장미꽃송이에서 향기를 맡아보시다가 사람치고 고운 용모와 향수냄새를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그러나 그 고운 용모와 향수냄새가 인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는 미운것으로, 역겨운것으로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속담에 사람이 고운것이 아니라 일이 곱다는 말이 있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 » » » » » »
» » » » » » »
» » » » Ё »
» » » » » » »
» » Ё »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그러나 목화꽃은 장미꽃처럼 향기롭고 화려하지는 못하지만 그대신 훌륭한 숨을 준다고, 세계적으로 볼 때 숨의 신세를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것이라

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 » » » Ё »
» » » » » » »
» Ё
» » » » » » »
» » » » » » »
» Ё » » » »
» » » » » » »
» » » » » » »
Ё

너성일군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걱정을 가스로 참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뜻과 깊은 마음을 잘 알았다고 말씀드렸다.

» » » Ё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의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담아 피는 목란꽃이나 봄을 먼저 알리는 진달래를 비롯하여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과 함께 비록 향기는 적고 화려하지는 못하지만 목화꽃과 같이 사람들을 위해 큰일을 하면서도 제 자랑을 할줄 모르는 꽃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을 위해 큰일을 하고도 제 자랑을 할줄 모르는 꽃을 귀중히 여기고 좋아하는것, 이것은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이익을 모든 사고와 실천의 첫자리에 놓으시고 언제나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미학관이다.

명언해설

《나의 정치철학은 주체사상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정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정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치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일반적으로 정치는 일정한 철학사상에 기초하여 진행되며 정치가가 의거하고있는 철학사상에 따라 정치내용과 정치방식이 규정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정치를 펼쳐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주정치, 민주정치, 인덕정치로 특징지어진다.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치는 정치적대가 확고하고 그 어떤 퇴성벽력에도 드물지 않는 자주정치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민주정치로 세인의 찬양을 받고있으며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차넘치고있는것으로하여 사회주의정치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있다.

우리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정치를 높이 받들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한다.

우로 봤!

-건군절 65돐 열병식장에서-

동기춘

1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이여
우리를 배신한 비겁한자여
세계의 예민한 신경들을
이 땅에 팽팽히 끌어조이는
조선의 근엄한 열병식을 보거든
버리라, 그 어떤 흑심의 기대도
가지라, 운명의 필연한 결심을
평양 거리들에 병사들이 찾다
번개를 베어서 총신에 꽂고
우뢰를 잡아서 탄창에 채우고
열병중대들이 구령을 기다리는
긴장이여, 정적이여, 순간이여
불쑥 칼로 베어치듯
새된 구령이 정적을 찌르자
무엇인가 거창한것이 꿈틀 번지고
폭발적군악에 후끈 들리운
흥분한 종대들 땅을 때려라
군기는 앞으로
총들어 경례.
우로 봤!
거리거리 뒤울리며 부딪치며
우로 봤!

2

겨울이 깨여져나간 땅
봉쇄의 사슬을 풀어헤치고
지켜낸 우리의것이
하늘에서 땅에서
급류한다 진감한다
하늘엔 퇴성이 울고
광장엔 불이 튀고
적동색 근위병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향하여
만세!
만세!
종대의 우렁찬 함성
《김정일!》
《결사옹위》
우러러 단상에는
우리의 **김정일**장군
미소는 따뜻하고
손길은 엄숙하다
위대한 강철의 령장

열병대오에 내리시는 축하의 영광이며
무한대에 뻗치는 그 영광이
대오를 짜고 나아간다
한담벽이 나아가면
또 한담벽이 다가오고
서서히 거리를 미끄러져
광장에 닿아 폭포치는 격류
땅이 들들 떨리도록
축하받은 영광이 나아가며
받들어 총!
우로 봤!

3

장군님 축하하신 영광이여
너 대오에 굽이치는 조선의 정신이여
정신이여, 우로 봤!
군인들의 청동가슴에서 열기를 뿜고
군화의 징에서 불꽃을 튀기며
우리의 정신이 나아간다
잠시 조용하라
어데서 들려오는 소리나
《땡- 땡-》
지하 백리 굴속이다
봉락으로 갇힌 군인들이
마지막숨결을 모으며
암반을 까내는 소리
살기 위해 통풍구를 뚫는 소리 아니다
살곳은 저쪽
허나 장군님께 보고드릴 길을 열려
이쪽으로 목숨던져 나아가는 소리
오, 그 소리 광장에 울린다
우리를 봉쇄하고 압살하려던
부디 그 원수들이 들으라
붉은기를 버리고간
부디 그 배신자들이 들으라
조선의 군인정신이 나아가며
정신의 기치를 향해
칼들어 웨치는 소리를
차려-엇!
우로 봤!

4

장군님 축하하신 영광이여
너 대오에 굽이치는 사회주의 기상이여

사회주의여, 우로 봤!
 군인들의 어깨에 받들려
 보라, 무엇이 나아가는가를...
 섯! - 손가락을 입에 낸 그림판밀
 산원의 복도로 처녀가 바람처럼 달린다
 -선물이에요, 아기들에게
 호실마다 뚫는다 걱정하는 소리
 -어쩌나 이름도 못지었는데
 하지만 미래의 공민에게
 장군님 선물이 이름보다 먼저 달았다
 이 세상 제일 좋은 이름을 골라가지고
 애기아버지는 달려오리라
 노예! 그것을 거부한 사회주의여
 주인! 그 증서를
 축복의 선물로 안겨주는 제도여
 군인들이 나아가간다, 제도를 총대에 거머쥐고
 수령을 향해
 심장을 향해
 우로 봤!

5

장군님 축하하신 영광이여
 나아가는 대오는 우리의 힘이다
 무적의 힘이여, 우로 봤!
 약자는 말이 많아도
 강자는 태연히 웃는 법이여라
 동서 천연천리를 눌러딘고
 바다와 하늘을 거머쥐신 령장
 그 눈길 적진을 꿰어 서리치게 하더니
 자그마한 야전병실에서
 군인들의 소박한 공연을 보실 때는
 아버지의 미소를 지으셨다
 눈이 내렸다, 삼가 저어하며,
 그이는 근원히 초소의 눈을 밝으셨다
 그 미소를 지으신채...
 엄엄히 쳐든 포신에
 그 웃음이 흐른다
 검푸른 땅크의 장갑에
 그 웃음이 번쩍거린다
 무력이여, 장군을 향해
 백승의 힘을 향해
 우로 봤!

6

이날은 조선의 명절이다

봄은 꽃을 안고왔다
 실가지 푸른 버들 근심없이 휘늘어지고
 좋은 세상의 햇빛을 쏘이며
 늙은이들이 잔디밭에 앉아있다
 그들의 잔등에 건너갔던
 노예주의 채찍자리는 아물었다
 그 등이 다시 터지지 않기 위해
 늙은이들도 《고난의 행군》을 견뎌냈다
 승리의 이 몸을 향해
 모두가 묵묵히 나아갔나니
 지켜낸 행복이여 기쁨이여
 너도 들어서라 저 열병대오에
 꽃이여, 나비여, 봄썩이여
 푸른 들과 밭이랑
 저기 흐르는 시내물이며
 우리의 모든 살뜰한 생활이여
 너 우리것이 옳거든
 발을 맞추라
 태양을 향해
 오, 운명을 향해
 우로 봤!

7

세계의 정의여 량심이여
 우리를 보라
 교만한 원수들이여 더러운 《유다》들이여
 우리를 보라
 우리의 열병식은
 건군절의 의식만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우리가 무엇을 중오하는가를 알려거든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무엇에 단호한가를 알려거든
 열병무력의 이 광장을 보라
 우리의 사회주의의 태양
 우리의 신념과 의지의 장군
 우리의 힘의 사령관
 자주와 통일과 미래
 그 구성이신 **김정일**동지
 손길들어 사열하시는 단상을 우러러
 조선은 나아가간다
 우로 봤!
 그렇게 영원히 나아가리라-
 변함없는 한자세로
 우로 봤!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황귀현

인류력사는 수많은 위인들과 수령들의 덕성을 허다히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우리 수령님 같이 높은 덕성을 지니신 그런분을 그 어느 력사기록의 갈피에서도 찾아보지 못하였다.

아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 전사들에 대한 의리는 하해에도 비길수없다. 거기에는 기슭도 바닥도 지붕도 없으며 구석도 없다. 또한 그 사랑, 그 은정은 한없이 뜨겁고 열렬하며 다심하고 지극하다. 나는 지나온 생활체험을 통하여 이것을 헤아릴수 없이 수많은 느끼였다.

그것은 전설아닌 전설과도 같은것이다. 나는 이에 대하여 소리높이 자랑하며 대를 이어 길이 전하고싶다.

나는 강도 일본제국주의가 꺼꾸러지고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목메이는 소식을 중국동북지방의 연길시에서 들었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께서 항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랑하는 조국땅에 개선했시였다는 소식도 들었다. 금시 눈물이 쏟아지며 가슴이 들먹거렸다.

생각할아서는 당장에라도 조국에 달려나와 《조국해방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고싶었다. 그러나 일은 즉석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 당장 말은바 사업도 뿌리치기가 어려웠고 이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게 되리라는 여유있는 생각 또한 그렇게 하게했다.

그러던 1947년 10월중순경의 어느날이었다.

나는 뜻밖에도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나를 조국으로 부르신다는 소식을 담은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이미 내가 길림에 있을 때부터 알고있던 황씨성을 가진 동무가 보내온것이었는데 그는 나더러 누이라면서 거기에 이렇게 썼다.

...누이, 기뻐하오.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누이를 찾으시고 부르셨소.

어느날 우리들을 만나주신 장군님께서서는 내 성이 황씨이고 길림에서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혹시 황귀현이를 모르는가고 물으시였소.

내가 너무 기뻐 안다고, 제 누이라고 말씀드리자 장군님께서서는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누이가 되는가를 알아보시더니 이제는 귀헌동무를 만날수 있게 되었다, 그 동무는 내 길림시절의 잊을수 없는 동무라고 하시면서 못내 기뻐하시였소. 그리고 나더러 동무가 내대신 소식을 알려 그가

그처럼 그리워하던 조국이 해방되었는데 평양에 한번 다녀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였소.

후에 들으니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소식을 모르는 잇을수 없는 옛전우들과 함께 누이에 대해서도 여러번 알아보시고 찾으셨다고 합니다.

누이, 거기 일도 바쁘겠지만 지체말고 빨리 평양에 나오오. 누이에게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뵙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나는 한동안 땡해서 편지만을 곱씹어 읽었다. 첫순간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편지의 사연이 사실이라는것이 확인되자 나의 눈에서는 소리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뜻깊은 길림시절에 우리를 지도해주시던 김성주선생님, 그분께서 목격한바대로 조국을 해방하시고 나를 찾아주시다니!

생각할수록 고마운 일이었다. 편지를 받고 나는 온밤 뜨거운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잠들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가슴아픈것은 장군님께서 그토록 모진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며 조국을 찾아주셨는데 그 위업을 받들고 너무도 한 일이 적다는것이였다.

제판에는 그래도 수령님께서 심어주신 혁명의 불씨를 안고산다고 하면서 뛰어다녔지만 남은것은 쓰라린 실패와 좌절뿐 견어질만한 열매는 없었다.

길림에서 중학을 졸업한후 혁명을 찾아 일본으로 갔던 일, 거기에서 다시 동북으로 돌아와 장춘, 길림 등지를 전전하면서 조직을 찾아 헤매던 일, 서울에 나가있다가 거기서 또 놈들의 지명수배에 걸려 건디지 못하고 길림으로 쫓겨들어오던 일, 그러다가 조국해방직전야 겨우 중국공산당조직을 알게 되어 거기에 들어가던 일들이 한꺼번에 머리에 떠올랐다.

탁월한 수령의 평도를 받지 못하는 투쟁이었으니 웅당 그렇게밖에 더 달리 될수도 없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다.

1945년 서른두살에 나는 같은 조직에서 생활하던 나와 비슷한 생활경로를 걸어온 배동무와 결혼하였다.

토의끝에 우리는 장군님께 이제부터 조국에 나가 못다한 일까지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로 하였다.

그날부터 나는 조국을 다녀올 준비에 바빴다. 정작 장군님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어지간히 마음이 급해났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정작 장군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거나 할가. 무슨 옷을 입고가야 장군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암만 생각해도 그이앞에 남의 나라 군복을 입고는 나설수 없었다.

나는 당시 연길시에 자리잡고있던 군정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었다. 그런데다 신혼생활을 하였으므로 군복외에는 변변히 입을만한 사복이 없었다.

할수없이 이곳에 부탁하여 치마저고리를 빌려입는수밖에 없었다.

나는 젖먹이 아들을 안고 렬차에 올랐다.

헐치 않은 수천리길이였다.

하지만 오직 위대한 장군님을 뵈오려간다는 그 한가지 생각으로 나는 힘든줄 모르고 국경의 철다리를 건넜다.

평양에 도착하여 며칠 렬관에서 묵고있는데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차를 보내주시었다.

그날이 바로 1947년 10월 23일이였다.

나는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차를 타고 당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청사였던 지금의 당창건사적관으로 갔다.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2층으로 올라가는 나의 가슴속에서는 세찬 격량이 일었다.

한걸음, 두걸음 또 한걸음, 두걸음...

그런데 내가 설레이는 가슴을 가가스로 누르며 청사안에 들어섰을 때였다. 문득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아! 귀한동무, 이게 얼마만이요.》라고 하시며 반갑게 마주 걸어나오시였다.

순간 나는 《김성주선생님! 아니 김일성장군님!》하고 마음속으로 불렀을뿐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꼭 메여 인사의 말씀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다.

잠시 진정하고나서야 나는 옷때무시를 바로 하고 장군님께서 망국의 도탄에 빠진 겨레를 위하여 항일대전의 총소리를 높이 울리시여 이처럼 해방의 새날을 맞이할수 있게 되었다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맙소, 고맙소!》라고 하시면서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나를 지리에 앉혀주시면서 감회가 깊으신듯 그래 우리가 몇해만에 만나게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그때 저희들이 길림에서 헤어진지는 18년이 된다고 말씀올리였다.

《18년이라...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구만. 정말 길림시기를 잊을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어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다시금 우러러보았다.

18년... 그이께서도 그동안 몰라보게 변모하시였다. 길림시절의 학생다운 인상은 없고 풍상고

초에 다스려지신 억세고 강의한 기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겪으셨을 엄청난 고생이 짐작되어 나는 또 저도 모르게 눈곱이 젖어들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히려 길림시기를 추억하시면서 그때 소년회 회원들이 정말 견결하게 잘 싸웠다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너무도 송구스러워 머리를 숙인채 연신 조심히 눈곱을 짖어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길림시절동무들의 안부를 일일이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길림을 떠나신후 자신께서 걸어오신 행로를 요약해 밀씀해주시고 나의 그후 생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주시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혁명을 찾아헤매던 지난날의 곡절많은 행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하고있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였다. 그리고 너무도 한 일이 없어 수령님앞에 나설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 조국에 돌아와서 못다한 일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왜 한 일이 없다고 하는가, 술한 고생을 했는데 그게 다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고생이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이 당장 조국으로 나올 생각을 하는것 같은데 자신의 생각에는 지금 동무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당분간은 중국에서 그 일을 계속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뜨겁고 감회깊은 이야기가 계속되였다.

그런데 자꾸 전화가 걸려와 이야기가 중단되군했다. 걸려오는 전화종소리만 들어도 그이께서 얼마나 분망하신가를 알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자 못내 딱해하시며 후에 집에 가서나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제야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바쁘신 사업에 지장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령님께서서는 소탈하게 웃으시면서 동무도 겪어보아서 알겠지만 혁명은 늘 이렇게 복잡하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손님도 몰라본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나를 바래워주시며 거듭 안됐다고, 시간을 내여 집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였다.

나는 렬관에 나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시 찾으시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틀후에 한 일꾼이 찾아왔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갑자기 급한 일이 제기되어 외국으로 출장을 떠나셨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나에게 보내신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나에게 약속을 어겨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내가 돌아가는것을 잘 돌보아줄데 대해 당부하시고 돌아갈 때 러비로 쓰라고 현금을 보내주시였다.

나는 수령님께서 베푸시는 뜨거운 은정에 눈시

울을 적시며 조국을 떠나 동북으로 들어갔다.

그후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말은 교원생활을 열심히 하였다.

그러던 1959년 초가을 어느날이었다.

연길에 있는 우리 집으로 조국에서 온 대표단 성원들이 찾아왔다.

처음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혁명전적지 답사단이라고 소개한후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시여 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그해 5월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느날 혁명전적지 답사를 떠나는 성원들을 친히 만나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커다란 지도가 펼쳐져 있는 곳으로 이끄시고 어디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는 어떤 전투가 벌어졌다고 일일이 가르쳐주시다가 길림을 쫓으시고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시며 깊은 감회에 잠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시 지도에 다가서시여, 그들에게 연길에 가면 황귀현이라는 동무가 있을 것이요, 그 동무를 꼭 만나보시오, 그 동무는 조선인길림소년회 핵심성원이었소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그를 만나면 자신의 안부도 전하고 가정형편도 알아보고 오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대로 답사단성원들은 혁명전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연길에 들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안부도 전하고 가정형편까지 알아보고 오라고 하시다니?!

너무나도 큰 충격에 나는 그들의 뜨거운 인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그날도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은정에 목이 매여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1980년 가을,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번째로 큰딸과 함께 조국땅을 밟게 되었다.

그때 평양에서는 역사적인 당 제6차대회와 당 창건 35돐 행사들이 겹치여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일군들을 보내여 나와 나의 딸을 위하여 동식식사까지 마련해주시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하여 몸둘바를 몰라했다. 그 뿐이 아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10월 25일 나를 평양으로 불러주시고 한 일군을 러관에 보내주시여 자신의 명의로 만찬을 베풀어 주시였으며 가을이 되며 때 이르게 선기가 드는것을 걱정하시여 나와 딸 애에게 춘추옷 일식을 선물로 보내주시었다.

실로 다심하고 지극한 아버지사랑이었다. 그속

에서 나는 매일과 같이 조국참관을 하였다.

그러던 그해 11월 1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끝내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나와 나의 딸을 몸가끼아 불러 주시었다.

전날밤, 폭신한 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소년회와 학우회에서 생활하던 길림의 옛시절이 사무친 그리움속에 떠올랐다.

그런가 하면 길림에서 간고한 옥살이를 타고 나오신후 거치른 만주광야를 누비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어나가시였을 그분의 모습이 떠오르고 동시에 조국참관을 통하여 뼈저리게 느낀 우리 인민의 시련에 찬 투쟁행로, 그를 진두에서 승리로 이끄신 수령님의 로고가 헤아려졌다.

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과 인민의 행복 한 오늘을 안아오시기 위하여 얼마나 뼈아픈 고통과 무자비한 혈투의 언덕을 넘어오셨을 것인가. 저도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그렇수록 마음은 조금하게 수령님께로 달려갔다.

이튿날 날밝기전부터 나는 딸과 함께 서둘러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지방으로 떠났다.

승용차는 어느덧 아늑한 정원프락에 멎었다.

나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누구인가 늦가을 찬바람을 맞으시며 현관앞에 서계시지 않는가.

나는 몇걸음 걸어가다가 그만 그자리에 우뚝 서버리고말았다. 현관앞에까지 나오시여 기다리시는분이 바로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던것이다.

그런데 그 모습을 자세히 뵈오려고 머리를 들었으나 눈물이 앞을 가리워 도저히 그렇게 할수 없었다.

이게 누구요라고 하시는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지심에서처럼 귀전에 울려서야 나는 어푸러지듯 수령님앞으로 달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마주 다가오시더니 나의 두손을 꼭 그러잡으시며

《이게 얼마만이요, 세월이 많이도 흘렀구만... 피가 끓던 청춘시절은 어데 가고 이제는... 다 늙은이기 되었구만.》라고 밀씀하시었다.

나는 걱정이 솟구쳐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그저 마음속으로 (수령님!) 하고 목메게 외웠을 뿐이었다.

《울지 마시오. 이렇게 기쁘게 만났는데 울면 되겠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음성도 갈리시었다.

한동안 다음 말씀을 잊지 못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끝에 서있는 나의 딸을 보시며 다정히

《너도 왔구나. 이 애가 만팔이라지요. 조국 땅을 한번도 밟아보지 못하고있다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 왔구나.》라고 하시더니 그애의 잔등을 가볍게 두드리주셨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념도 못하고있는데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모녀를 앞세우고 방으로 들어가시었다.

응접실의자에 자리를 같이하고 앉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못내 기쁘신듯 우리 모녀를 대견히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다시 만나니 매우 반갑습니다. 동무가 왔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지만 그동안 6차당 대회와 당창건 35돐 행사들이 겹치여 외국 손님들을 만나느라고 이렇게 오늘에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1947년에 지금의 당창건사적관에서 만났던 일이 있는데 벌써 3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대접을 잘하지 못하여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바빠 보내다나니 대접을 잘하지 못했소.

참 그때는 매우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일을 상기하시는듯 잠시 말씀이 없으시었다.

이윽고 수령님께서서는 화제를 돌리시여 59년도에 소식을 들은후 나를 여러번 찾았다고 하시면서 가정형편과 살아온 경위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었다.

나는 수령님께서 물으시는대로 가정형편과 생활경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나의 아버지 황백하에 대해서도 선생이라고 부르시면서 문의하시고 사망을 애석해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어 1920년대말 길림에서 활동하시던 시기를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손목사네 레배당이며 《태풍합》, 《북흥태》정미소, 삼풍려관과 복산공원, 거리와 골목들을 구체적으로 상기하시었다. 그리고 오늘의 변모된 형편을 묻기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시 길림에 살던 독립운동자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녀성독립운동자로서 이름이 알려졌던 리관린(그때는 리장칭이라고 불렀다.)에 대해서도 회상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녀성의 몸으로 열일곱살인가 일여덟살때에 압록강을 건너 평안북도의 어느 한 군에 나와 왜놈주재소를 습격하여 《동아일보》에 녀장군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몇해전에 제 나라에 뼈를 묻겠다고 조국에 돌아와 지금 잘 지내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독립운동자들인 고원암, 김사헌, 장철호 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 길림에서 우리들과 헤어지신후 길로를 헤쳐나가시던 그 어렵고 준엄하였던 나날들에 대해서도 회고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때 길림에 있다가 간도지방에 나와 명월구회의를 지도하였는데 강낭죽에 갖김치를

먹으면서 이불없이 목침을 베고 자곤하시었다고, 그래서 어머님에게 덧저고리를 하나 지어달라고 하여 낮에는 입고다니시고 밤에는 이불삼아 덮고 자곤 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다시 솟구치는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일찌기 조선혁명의 초행길을 헤치시던 젊으신 시절에 벌써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동생분을 이국의 거치른 광야에 물으시고 풀길없는 원한과 슬픔만을 화약처럼 가슴속에 쌓아오신 수령님, 세상에 인간이 겪을수 있는 천만고초 있다 한들 그이께서 겪으신 고초보다 더한 고초 어데 있으며 아픈 상처 또한 그보다야 어떻게 더할수 있었으랴.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의 하늘같은 근친들보다도 오히려 혁명의 길에서 일시 만났던 동지들과 전우들을 더 애뜻이 그리시며 젖어오는 감회를 금치 못해하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계속하여 잊지 못할 길림시절의 소년회원들과 류길학우회원들을 비롯하여 알고계시던사람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회상하시었다.

반세기가 흘러간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하시여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자옥을 남긴 유명무명의 동지들과 전사들, 인사들의 성 하나, 이름 하나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에 놀라움과 감동을 금치 못하며 나의 딸애가 세월이 아득히 흘렀는데 어떻게 그때 있던 일과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도 잊지 않고계시는가고 말씀올리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웃음어린 표정을 지으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때 일을 잊을수 없지. 걸음걸음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였고 그 속에서 얻은 동지 한사람은 천금보다 귀중하였단다.

그러니 그때 일을 어떻게 잊을수 있겠니. 사선을 헤치며 얻은 동지들이였기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래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단다.》

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말씀을 멈추시고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다가 나에게 눈길을 돌리시며 문득 한영애동무에 대해 물으시었다.

한영애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길림에서 활동하다가 교하로 간후 거기에서도 혁명사업을 계속하였다.

그는 일제와 국민당반동군벌의 검거선봉으로 혁명조직들이 파괴되고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에 위험이 닥쳐왔을 때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혁명활동을 보좌해드렸다.

그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할빈에 가서 활동했으며 그후 놈들에게 체포되어 신의주감옥에서 옥중투쟁도 하였다.

나는 길림에서 그의 삼촌을 통하여 들은 소식과 일본으로 가던 길에 서울에서 만난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그의 소식을 몰라 몹시 안타까와하시였다.

나는 조국에 와서 아버지수령님께서 한영애동무의 생사여부를 아시기 위하여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실때마다 두고두고 말씀하신다는것을 여러사람들로부터 들었다.

이날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영애동무의 그후 소식을 몰라 안타까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해방후에 나는 평양화학공장에 나가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하였는데 군중속에 한영애동무의 삼촌이 서있는것을 보게 되였소. 그래서 나는 연설을 마치자 인차 그를 찾았는데 어데로 사라졌는지 찾을수가 없었소. 아마 그는 혁명을 중도에서 그만 두었기때문에 떳떳치 못해서 자리를 피한것 같은데 그때 그를 놓친것이 제일 후회됩니다. 그를 만나면 한영애동무의 소식을 혹시 알수도 있을텐데.》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그의 바다보다 웅심깊고 강물처럼 연연한 의리심에 목이 메었다.

가슴속에 끓어넘치는 격한 감정을 누를길 없어하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못내 안색을 흐리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때 길림에서 함께 싸우던 사람들이 다 어데로 갔는지 알수 없습니다. 적들에게 잡혔으면 신문에라도 나졌는데 그런것도 없고... 그들이 생각날 때가 많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시 화제를 돌리시여 파묵하고 의지적인 동지인 박소심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을 떠나신후 위임에 의하여 소년회사업을 지도하다가 조직의 소환으로 길림을 떠났는데 그후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럴것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그후 운명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주시였다.

1930년여름 무장투쟁을 벌리시기 위하여 고위수에서 동만으로 나가시다가 그가 폐결핵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일부러 멀리 에돌아 그가 거처하고있는 카륜으로 찾아가셨던 일, 수령님의 건강을 녀려하여 가까이 다가오시지 못하게 하는 그를 달래시며 강가에 지어놓은 오두막에서 그와 함께 밤을 지새우시던 일 그리고 내가에 가마를 걸어놓고 제손으로 밥을 끓여먹으면서도 잘사는 집 딸이라 해서 서울에 있는 안해를 멀리하고있는 그의 웅졸한 생각을 돌려세워 안해를 데려다가 따뜻한 간호를 받게 하신 일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희생을 애석해하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는 키도 크고 잘 생긴 사람이였지. 나라없는 탓으로 똑똑한 우리 조선청년들이 혁명을 하다가 그렇게 약 한점 못쓰고 이역땅에서 앓아죽

고 굶어죽고 총에 맞아 죽었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격한 심정을 누를길 없으신듯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방안을 거니시였다.

그러시다가 내가 다시 눈곱을 씻어내서인지 안색을 밝게 가지시며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길림시절에 있었던 인상깊은 사실들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시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시다.

나는 급한 일이 제기되어 복만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권총을 가지고 가는것이 문제였습니다.

동무들은 나의 신변이 걱정되어 어떤 촌로친을 한명 앞선해가지고 와서 그에게 권총을 채워가지고 떠나는것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로친을 소개하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복차림을 하고 로친과 함께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아직 일본놈들이 장춘까지 점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그곳 철도는 쏘련사람들이 운영하고 일본놈들은 장춘-려순사이 철도를 운영하고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차에 올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로씨야사람들이 차표를 검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차표를 검열하기 시작하자 권총을 허리춤에 찬 로친은 입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몸을 와들와들 떠는데 아무리 진정시켜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로친은 물론, 나의 신변도 위태로울것은 뻔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검표원이 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검표원에게 차표를 먼저 보이고 출입문쪽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련차는 속도를 늦추고 철다리를 건느고있었습니다. 나는 더 생각할 사이 없이 련차가 철교를 건느자 속도를 더 내기전에 기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해두었습니다. 내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나는 옷을 갈아입고 목적지에 가서 일을 볼수 있었습니다.

당시 쏘련사람들이 운영하는 련차에서는 녀성들에 대한 몸수색은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친이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것이 수상하여 그의 몸을 수색하였습니다. 로씨야사람들은 차안에 있는 손님들이 무기를 가지고있지 않는가 하여 단속하거나 몸수색을 하는일은 없었습니다. 그때에 아편밀수업자들이 많기때문에 그 로친도 아편장사군이 아닌가 하여 몸수색을 하였는데 권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로친이 붙잡힌 다음날 권총을 가진 로친을 붙잡았다고 신문에 평장히 떠돌았습니다.

로친은 붙잡힌 다음 웬 독립군청년이 총을 날라다 달라고 하여 그와 함께 가던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 로친은 내가 누구라는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로친이 붙잡히자 혁명조직에서는 그를 내놓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무기명협박편지를 국

민당군벌들에게 띄웠습니다. 국민당군벌들은 협박편지를 받고 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로친을 오래 붙잡아두면 재미없을것 같아서인지 한주일만에 그를 내놓았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로친보다 용감하고 대담한 청년들이 낫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백두산가까이에 있는 내도산마을에 무송의 연예대원들을 데리고가셨던 일에 대하여서도 감회깊이 회상하시었다.

그러시고나서 나에게 이번에 조국에 와보니 감정이 어떤가고 물으시었다.

나는 평양이 몰라보게 변했다고 말씀올리면서 당창건사적관에 가보니 47년도에 갔을 때보다 방들이 매우 작아보였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웃으시면서 그때는 그 집이 제일 큰집이었기때문에 모든것이 커보였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집들이 일어섰는가, 앞으로 우리 인민은 더 잘살게 된다, 이제 10년후면 더 잘살게 될것이다...

30년만에 조국에 와보니 지상천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여 그렇지 이만하면 괜찮은 편이다.

우리 인민들은 미제와 싸우는 과정에 더 단련되고 용감하여졌으며 혁명을 더 잘해야겠다는 결의도 굳게 다지게 되었다.

우리는 오직 인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일하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시 화제를 돌리시여 조국에 대표단을 보낼 때마다 동무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중시 못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내가 왜 그때 사람들을 금싸래기처럼 귀중히 여기는가...

그때 사람들은 오직 진리 하나만을 믿고 따라나섰던것이요. 때문에 나는 그 시절의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귀중히 여기는것입니다.》

순간 나는 형언할수 없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찌하여 혁명의 첫시기에 나타났다가 일찌기도 먼저간 전사들을 그렇게도 귀중히 여기시고 잊지 못해하시는지, 또 나같이 해놓은 일 없는 녀성을 기나긴 반세기가 넘는 오늘날까지도 잊지 못하시고 각근히 대해주시는지 그 까닭이 더욱 가슴뜨겁게 사무쳐왔던것이다.

어느덧시간이 흘러 낮 12시가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제 점심이나 나누자고 하시면서 우리를 앞세우시고 복도로 나서시었다.

홀에 이르렀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를 멈춰세우시었다. 상봉의 기념으로 사진을 찍으시자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일행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서는 이번에는 내 귀현동무와

단둘이 찍겠소라고 하시며 나를 곁에 나란히 세워주시었다.

그만 나는 이름할수 없는 걱정애 싸여 저도 모르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 이역의 들판에서 쓰러진 길림시절의 옛 동지들이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있다면... 김혁, 차광수, 김원우, 계영춘 그리고 박소심, 한영애... 모두들 입가에 밝은 웃음을 담고 어버이수령님곁에 쌍벽을 짓고있다면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울지 마시오. 눈물을 보이면 사진이 안되요.》

수령님께서서는 어느새 보셨는지 나를 가볍게 나 무람하시고 묵묵히 천정 한곳을 보시었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수령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나와 딸애를 좌우에 앉히시고 들쭉술을 부어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산에서 싸울 때 식량이 없으면 들쭉을 따먹고 끼니를 에우곤하였는데 해방후 오랜 기간 그 좋은 열매를 버려오던것을 자신께서 현지에 나가신 기회에 찾아내시여 술이랑 식료품을 만들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들쭉술은 연해서 마시기도 좋고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잔 드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허물없이 말씀하시면서 잔을 드시었다.

나는 수령님께서 권하시기에 술잔을 들기는 하였으나 자꾸만 눈앞이 흐려와 마실수가 없었다.

수령님께서 재차 권하시여서야 나는 목메이는 뜨거운것과 함께 잔을 비웠다.

그리고는 서둘러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술을 부어올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의 축원을 기꺼이 받으시고는 상우에 놓여있는 갖가지 음식물을 손수 수저로 집어 우리들에게 주시었다.

그러시다가 다시금 나를 유심히 보시더니 침통하신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나라를 찾겠다고 목숨걸고 싸우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나라를 찾아놓고 밥 한그릇이라도 같이 나누어먹었으면 이다지도 가슴이 아프지 않겠소.》

떠나간 혁명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숭고한 의리가 넘치는 어버이수령님의 절절한 말씀에 나도 나의 딸도 목메여 눈물을 흘리었다.

잠시후에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 그동안 조국에 와서 보고 듣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었다.

《수령님, 조국에 와보니 참으로 모든것이 놀라게 변모되고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조국에 와서 창창한 앞날을 보았습니다. 절출한 계승자를 모신것이 제일 기쁘고 마음 든든합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맙습니다.》라

고 가볍게 대답하신후 말머리를 돌리시어 조국의 어디어디를 보았는가 물으시었다.

나는 그동안 본것들을 하나하나 꼽아가며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제 돌아가는 길에 묘향산을 꼭 보라고 이르시었다.

그런데 이때였다.

한 일군이 조심히 들어와 머뭇거리다가 《수령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것이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벌써 시간이 다 되었나?》라고 하시며 매우 아쉬워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그 일군에게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르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일군은 급히 방에서 나갔다가 잠시후에 자그마한 함을 들고 다시 들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손수 함을 여시고 안에서 눈부신 시계를 꺼내드시더니

《외국에 가있으면서 조국이 그리워질 때면 이것을 들여다보시오. 우리가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말ियो. 기념으로 두고두고 리용하시요.》라고 하시면서 친히 존함이 새겨진 그것을 나의 팔목에 채워주시었다.

그리고 내 딸애의 팔목에도 역시 같은 시계를 친히 채워주시었다.

그러자 딸애는 아버지수령님께 팔을 맡긴채 어린애처럼 소리내여 울면서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애절하게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러는 딸애에게 자애에 넘치는 어조로 《조국이 그리울테지. 조국이 그리우면 또 와야지. 아무때나 오너라. 꼭 오너라.》라고 하시고는 눈물을 흘리며 서있는 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나이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조국에 돌아오는것이 어땡소? 같이 모여삼시다. 만일 오지 못하겠으면 자식들이라도 보내시오. 내가 잘 키워주겠소.》

나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종시 거두지 못한채 수령님의 말씀대로 조국에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리고나서 정중히 작별인사를 올리였다.

딸애는 점점 더 소리내여 울면서 아버지수령님께 작별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문밖에까지 따라나오시여 우리를 태우고 떠난 차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손저어 바라워주시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령님 계신곳을 떠나 신안주려관에 도착했을 때였다. 갑자기 승용차 한대가 뒤따라 달려들어오더니 차에서 무엇인가를 무겁게 넣은 지함을 내리여 우리에게 안겨주는것이였다.

웬일인가 하였더니 따라온 일군이 알려주기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를 떠나보내신 다음 내

팔애가 울면서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친히 다과를 보내주라고 이르시었다는것이였다.

그런데 이 가슴뜨거운 순간에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이 생길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북반치는 감격을 금할길 없어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있던 딸애가 그만 다과지함을 끌어안은채 정신을 잃었던것이다.

딸애는 급히 달려온 의사에게서 주사를 맞고 인차 피어났는데 전화로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몹시 놀라시며 그 일군에게 딸애가 완전히 회복되기전에는 돌아오지 말고 보아주라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그리고 우리가 묘향산에 도착한후에도 다시 전화를 거시여 딸애가 이제는 일없는가, 나를 속이지 않는가, 객지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탈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거듭거듭 당부하시었다.

그후 우리는 아버지수령님의 이와 같은 사랑에 떠날들리여 두달반이라는 오랜 기간을 두고 조국의 방방곡곡을 즐겁게 돌아보았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일대의 혁명전적지도 답사하고 회령의 오산덕이며 왕재산을 비롯한 북부일대의 유서깊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도 돌아보았다.

그리고 강원도에 가서는 풍치아름다운 송도원이며 금강산의 경계를 즐기고 개성에 가서는 판문점에 서린 민족분렬의 비운도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참관일정을 일일이 짜주시면서 우리 모녀를 위하여 만수대에술단의 공연까지 몸소 조직해주시었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거의 매일 같이 자주 전화를 거시여 그곳은 지대가 높기때문에 혈압을 조심하라고, 그곳은 물이 세기때문에 랭수를 마셔서는 안된다고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당부하군하시었다.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 일본일초가 새로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자그마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별히 보살펴주시실 때 우리는 어느 하루도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송구함에 가슴죄이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지만 이뿐이 아니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온갖 배려와 사랑을 다 누리고 마침내 조국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는 또다시 따뜻한 성찬을 베풀어주시었으며 두고온 가족들에게 기념품까지 마련해가지고 가도록 각별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참으로 그때 받은 아버지수령님의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벌써 10여년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오늘도 문득 가슴이 뜨거워진다. 아,

아버이수령님의 한없는 그 사랑, 그 은정을 하늘 땅 어디에 비기랴!

그때로부터 1년 4개월만인 1982년 4월 나는 시집장가간 아들딸 4가정을 이끌고 오매에도 그리던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귀국했다.

그런데 우리가 조국의 수도 평양에 도착한지 이틀밖에 안되는 4월 8일이였다. 뜻밖에 일군들이 차를 가지고와서 어서 청류관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였다.

나는 속으로 또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렸구나 하고 생각하며 일가와 함께 청류관으로 갔다.

가보니 과연 거기에는 연회상이 차려져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친히 나와 나의 가족의 귀국을 환영하여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었던것이다.

조국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우리는 이렇게 다심한 환대부터 받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튿날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귀국한 나와 나의 가족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였는데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잘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은정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짐도 풀기전에 나와 딸들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돏경축대회대표로 불러주시고 가족들에게는 승용차와 배스를 내려 한달동안 조국참관을 하도록 배려하여주시였다.

또한 새로 건설한 문수거리에 나란히 네 세대가 자리를 잡도록 하시고 항아리로부터 물바게쓰에 이르기까지 부엌세간을 일식으로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가정을 가진 아들, 딸, 사위들의 일자리며 학교편입문제도 일일이 보살펴주시면서 지방에 따라 직장도 알선해주시고 대학에도 보내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을 위하여 한 일도 없는 나에게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셨으며 그해 12월 13일에는 나와 나의 아들, 사위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는 커다란 신임을 베풀어 주시였다.

또한 나의 아버지 황백하에게도 《반일에국렬사》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처럼 조국에 돌아온 나와 나의 가족이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도록 높은 신임과 배려를 돌려주시고도 부족되는점이 있을세라 자주 알아보시고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결같이 뜨거운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나 역시 생각이 깊어졌다.

토의끝에 우리는 1983년, 2월 16일 민족 최대경사의 날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그이께 소박하나마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표시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모두가 지혜와 열정, 정성을 담아 수놓이그림 《백두산밀영》과 충성의 송가 《그 사랑 못잊어 이 노래 드리웁니다》를 지어 편지와 함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올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해 2월 23일 친히 나와 나의 가족들이 올린 편지와 선물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뜨거운 감사의 인사까지 보내주시였다.

또한 나의 아들딸을 비롯한 온 가족이 1920년대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모시고 목숨바쳐 투쟁한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울것을 바란다고 하시면서 선물을 정무원의 해당부문에 보내어 국가에서 길이 보관하도록 해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내가 뜻하지 않게 도 뇌혈전을 일으켜 운신을 못하게 되었을 때 유능한 의사들과 함께 사향을 비롯한 귀중한 고가약품들을 친히 보내주시여 근 7개월만에 나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주시였다. 그리고 과분하게도 훌륭한 승용차를 배려해주신데 이어 또다시 새로 일떠선 더 좋은 여러칸짜리 살림집에서 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끊임 없는 배려와 사랑이 하도 고맙고 은혜로워 나는 1985년 새해를 맞이하여 또다시 충성의 송시 한수를 지어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가 올린 시를 친히 받아 읽어보시고 《황귀헌동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가 나에게 한시를 지어서 보냈는데 참 잘 썼습니다.》라고 하시고나서 그 동무가 귀중한 동무라고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다시금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나에게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금반지를 선물로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기회있을 때마다 나를 몸가까이 불러주시는 더없는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나와 나의 가족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배려는 한량없다.

그 사랑, 그 은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욱 뜨거워지고 세심해지는 사랑이다.

아, 다함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어디에 비길 수 있으랴.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초행길을 헤치기 위하여 거치른 이역의 들판에 선혈을 뿌리고 먼저 간 혁명렬사들에게 못다주신 사랑을 나에게 열품, 스무품으

로 더해주고있음을 사무치게 느낀다.

오늘도 그들이 수령님과 장군님을 옹위하여 성벽을 이루고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우린 모두가 일심단결되어 그들을 대신할수는 있다.

하기에 나는 오늘도 19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한을 품고 쓰러지면서 남긴 붉은 뜻을 지켜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충성다할것을 자나깨나 결심다지고 또 다진다.

위대한 사랑과 의리에는 불타는 충성과 보답이 뒤따라야 하는것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위업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의하여 빛나게 계승완성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 고매한 덕성을 그대로 체현하고계신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꼭같은 친애하는 그이를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항일의 그날에 추켜드셨던 혁명의 붉은기를 지켜 《고난의 행군》길에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그 장엄한 대오속에서 힘차게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아들 딸 손자들을 바라볼 때 나는 무상의 기쁨과 자랑을 금치 못한다.

1920년대 초기공산주의혁명가들이 위대한 한별을 우리러 혈로를 헤치고 조국의 해방을 안아온 것처럼 그 뿌리에서 자라난 새 세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러 일심단결의 노래를 부르며 억세게 나아갈 때 우리 혁명은 승리하고 조국통일의 새날은 밝아올것이며 통일된 조국은 길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축복

해마다 전승기념일이면
손에 꽃묶음을 들고 찾던곳
오늘은 군복을 입고
여기 전승기념탑을 찾으니

승업하고 비장한 생각이
온몸을 휩싸안아
마음은 불비 쏘아지는 전장에 선듯

뉘알랴
내 가야 할 그 길에
렬사들이 헤쳐 넘은
포화의 산밭이 또다시 막아설지
피흐르는 락동강이 눈앞에 펼쳐질지

그래서 대돌우의 병사는
아직도 못다 쏜 총탄이 남아있다고
엄숙한 병사의 서약처럼
달아오른 기관단총을
나에게 넘겨주는것인가

조국이 명령한다면

선혈을 뿌리며 넘어온 준령도
다시 넘어야 한다고
근엄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것인가

마음 놓으시라 렬사여
행복의 꽃향기속에 묻혀
포연내 한번 말지 못했어도
온몸엔 그대들의 붉은 피
맥맥히 굵이쳐흐르는
나는 이 땅의 아들

어제까지만해도
꽃묶음 들었던 이 손에
오늘은 혁명의 무기를 잡고
심장속 맹세를 뚫이나니

마음놓으시라 조국이어
태양이 웃는
여기 수도의 한복판에서
렬사들의 뜨거운 바래움 받으며
이 아들은 초소로 떠나가노라

송재하

어머님의 모습

김응하

어머님이 떠주시는
한그릇의 조밥은
이 세상 어느 집 진수성찬보다
달고 맛이 있었더라

상처를 싸매주시는
어머님의 그 손은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더 효험이 크고 살뜰하였더라

한밤중에 찾아와도
기쁘게 맞아주시고
새벽에 들어서도
웃으며 상을 차려주신 어머니

그 많은 독립운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실 때
어머님 바라신것 무엇이던가

굳이 내놓는
가난한 환자의 치료비에
자신의 넉넉치 못한 살림을 보태여
의복감을 마련하여 도로 주신 그 인정

돈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인정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만경대집의 가풍 그대로
이국땅에서 헤매는 겨레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신 따사로운 그 품

어머님의 지성에
보답하자면
하늘의 별을 다 따다드려도
다 갚지 못하리

차디찬 돈과 억압의 세상을
후더운 인정으로 녹이시며
사랑의 세계를 펼쳐가시던
강반석어머님이시여

원췌를 끝없이 미워하신 그만큼
겨레를 불처럼 사랑하시고
남을 위해서만 살아오신 어머니의 모습은
인정과 사랑의 화신이였나니

강반석어머님이 펼쳐가시던
만경대집의 가풍이
오늘은 나라의 가풍이 되고
인민의 신념이 되었어라

김정일장군님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신 내 나라
남을 위해 피도 생명도 다 바치는
사랑과 의리의 대가정

아 인정과 사랑의 우리 대가정은
어머님의 품에서 태어났어라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이시여

가사

날으자 정의의 불새들아

림공식

정다운 대지를 떠나서
우리는 하늘에 산다네
이 땅에 솟아난 락원이
한목숨보다도 소중한
날으자 매들아, 정의의 불새들아
우리는 하늘의 강자 장군님의 비행사

우리는 수호의 날개로
전쟁의 불구름 가시네
침략자 이 땅에 있는 한

위훈의 날개는 못잡어
날으자 매들아 정의의 불새들아
우리는 하늘의 강자 장군님의 비행사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한
행복의 노래는 영원해
태양이 빛나는 이 하늘
그 어떤 원췌도 못다쳐
날으자 매들아 정의의 불새들아
우리는 하늘의 강자 장군님의 비행사

숲향기

김명진

은철은 이즈음 자기가 쓰고사는 집에 대한 애착이 별로 깊어졌다. 림산마을에서 퍼그나 떨어져 골안에 있는 나지막한 동기와집에 새삼스레 정이 드는것이였다.

이제 얼마후이면 자기를 품어준 이 집을 떠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 끈덕진 생각으로 해서인지 아늑한 방이며 빛이 잘 바쳐드는 마루며 군감자네가 배여있는 부엌 그리고 포도넝쿨이 우거진 마당이 여간 정답게 느껴지지 않았다.

무심히 밟고 오르내리면서 다스려진 토방마저도 애뜻한 점을 자아냈다. 그 토방돌 하나가 언제부터 건들거려 눈에 걸리곤 했었는데 오늘아침에는 더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은철은 도에서 열리는 청년동맹회의에 떠나기 전에 토방을 고쳐놓으려고 소매를 걷고 나섰다. 이때 방문이 열리더니 밀짚모자를 눌러쓴 아버지가 마당에 내려섰다. 회색작업복을 입은 어깨에는 밭박이 든 가방이 메워져있었다.

《당신 얼굴색이 좋지 않아요. 하루 좀 쉬구려.》 어머니가 뒤따라나오며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근심스럽게 말했다. 올해에 들어와 중지봉의 산판을 개조하느라 하루도 휴식을 모르고 일하는 아버지의 건강이 녀려되어서였다.

《무슨 소릴.》 김정옥은 안해에게 가볍게 통을 주고나서 마당을 나서려다가 은철이가 토방을 손질하는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만두거라.》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은철은 허리를 펴며 아버지에게 어쭙은 웃음을 보였다. 《제격 손질 해놓겠어요. ...》

《회의에 늦어지지 않겠냐?》《곧 떠나도록 하겠습니까.》

은철은 선선히 대답했다. 때마침 작업소에서 도에 올라가는 자동차가 있어 그차 신세를 지려고 생각하고있는 참이였다.

《그럼 다녀오너라.》

아버지는 더 만류하지 않고 마당을 나섰다. 오솔길을 따라 골짜기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뒤모습이 오늘따라 별로 체소하고 쇠진해보였다. 등도 굽어보이고 걸음걸이도 무거워보였다.

(이젠 펍 늙으셨구나.)

아버지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은철의 가슴에는 이름할수 없는 아픔이 저미고 들었다.

이 산판에서 벌목공으로 20여년, 산림보호원의

로 10여년, 한생을 산에서 보내온 셈이니 아버지가 왜 늙고 쇠진하지 않으랴.

이고장의 토배기인 할아버지한테서 벌목톱을 물려받은 그때부터 잠시도 산판을 떠난적 없이 구김살없는 년륜을 새겨왔다. 운림의 맑은 물과 공기를 마시며 아버지는 얼마나 성실한 로동의 자국을 새겨왔던가. 차거운 눈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산판을 지켜온 무수한 낮과 밤... 그 나날에 아버지가 베여낸 통나무를 쌓아놓으면 산을 이룰것이다. 하루에도 몇십리씩 산발을 타며 구슬땀은 얼마나 흘렸던가. 사흘이 멀다하게 벗어놓는 땀에 절은 내의들을 어머니가 밤밝혀 빨아내는것을 볼때면 은철은 아버지가 흘린 땀이 내물을 이룰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뿐이랴. 산림보호원의 일을 하면서부터 아버지가 산에 심어놓은 나무들은 또 얼마인지 모른다. 자식을 키우는 애뜻한 마음으로 가꾸어온 그 나무들이 오늘은 드넓은 산판에서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는것이다.

아버지의 모습이 시야에서 벗어나자 은철은 토방돌을 들어내어 움직이지 않게 제대로 고쳐놓았다. 손에서 흙을 털고있는데 부엌에서 은희가 비닐소랭이에 물을 떠내왔다.

《오빠 요사이 집 꾸리는데 별로 열성이군요?》 녀동생의 까만 두눈이 은철의 마음을 떠보는듯했다. 그가 튼있는대로 벽에 회칠을 하기도 하고 문손잡이를 새것으로 바꾸어 달기도 한것을 녀두에 두고 하는 소리였다. 은철은 물에 손을 씻으며 입가에 웃음을 보였다.

《그걸 모르겠냐?》

은희는 눈을 깜빡이며 생각을 굴러보는듯했다. 《모르겠는데요...》

《이제 며칠후이면... 우리가 여기로 옮겨온 날이 아니냐. 열두번째 해가 된다.》

《오, 정말 그렇게.》은희는 그제야 생각이 떠오른듯 두손뼉을 딱 마주치며 활짝 웃었다. 《빠르게도 하네. 벌써 그렇게...》

《여기로 옮겨오던 때가 잊혀지지 않는다.》

《오빠 그때 정든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떼질을 했지요?》동생이 튕겨주는 말에 은철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웃고나니 눈에 눈물이 솟으며 그때 일이 감회깊게 돌이켜지는것이였다.

그들의 집은 본래 이 골안에서 퍼그나 내려가 있는 림산마을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나라에서 품들여 지어준 네귀번듯한 문화주택이였다.

그런데 그 좋은 집을 내놓고 이 골안으로 갑자기 들어오게 될줄이야. 12년전 여름, 그때 아버

지는 전국생산혁신자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왔었다. 큰 대회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고 훈장까지 받고들어섰으니 집안에는 큰 경사가 생겼다.

그런데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아버지의 얼굴은 무겁고 심중하였다.

(무슨 근심이 생겨서일가?) 어린 은철은 아버지의 심중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에 참가해서 아버지의 말을 눈이 커져 들었다.

《나는 오늘까지 해야 할 일을 너무도 못했구나. 나무를 베어내는것으로 벌목공의 임무를 다한것으로 생각했으니...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의 산림조성문제를 놓고 심려의 말씀을 하신것을 듣고야 너무도 도리를 지키지 못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구나. 늦게나마 나라의 은덕에 보답을 하여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것, 매해 4.15를 맞으며 가족식수를 하여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자는것, 그러자면 산관 가까이로 집을 옮겨가야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집을 옮겨가다니? ... 은철은 정이 든 동무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기뻐다. 《싫어요. 싫어요...》

그는 울음이라도 터칠듯 도리머리를 쳤다. 폐질을 하는 그를 달래드라고 어머니가 새옷과 책가방을 사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해 가을로 지금의 위치에 집을 일떠세웠다. 김정옥의 이사문제를 놓고 뒤에서 고개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새집들이를 한 얼마후에 첫 식수를 했다. 아버지는 가족을 이끌고 집뒤에 있는 돌박산으로 올랐다. 바위가 무수히 박히고 잡관목이 우거진 버림받은 땅이었다. 바위가 드러난 사이사이에 구멍이를 파고 부식토를 날라다 넣고 잣나무모를 심었다. 이렇게 해마다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은철이와 녀동생... 다섯식구는 구슬땀을 흘리며 수천본의 나무를 심었다.

은철은 학교가 멀어지고 동무들과도 떨어져 한동안 새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람들이 룡으로 《하늘아래 첫집》이라고 부르는 아직은 주소도 가지지 못한 집이었다.

어느덧 중학생이 된 은철은 송도원야영소로 야영을 가게 되었다. 즐거운 야영생활이 시작되자 동무들은 저마다 집에 편지를 써보냈다. 은철이도 편지지를 꺼내놓았다. 처음보는 바다의 풍경, 해염치기, 뽏트놀이등 야영생활소식을 집에 바빠 알려주고싶었다.

만년필을 들고 봉투에 주소를 쓰려고 하던 그는 그제야 자기 집에 주소가 없음을 깨달았다. 오랜 생각끝에 그는 편지봉투에 큼직하게 써나갔

다.

《자강도 서중군 윤림리, 옥류봉골짜기로 10리 들어가서 사는 김정옥아버지 앞.》

빨래줄같이 긴 편지주소는 봉투전체를 차지했다.

그 편지봉투가 옆동무의 눈에 띄어 온 야영소 아이들을 눈물이 나게 웃기는 커다란 일화를 남기었다. 그렇게 이름도 없던 이 집이 얼마후에는 《옥류동1반》이라는 버젓한 주소를 가지게 되었다. 해가 바뀌이면서 새집에도 차츰 정이 들기 시작했다. 마당에 심은 포도넝쿨의 서늘한 그늘 밑에서 공부하기도 좋았고 앞마당을 씻어내리는 개울물에서 물고기잡이도 즐거웠다. 동리 아이들이 련줄 찾아오고 학교길도 그닥 멀어보이지 않게 되었다.

은철의 가슴에는 사람들이 선망의 눈길로 보는 《하늘아래 첫집》에서 사는 남다른 긍지가 생겼다. 외따른 집도 정을 붙이고 살기마련이 아닌가, 이제는 정작 이 집을 프라고 하면 아쉬운 마음이 될것 같았다.

하긴 그 얼마후에 은철에게는 그와 같은 경우를 체험할번한적이 있기도 했었다. 도림업총국에서 신혁산림처장이 찾아와 아버지에게 조림사업소의 일을 맡아주었으면 하는 의향을 내놓은것이 다. 아버지가 그 직무의 적임자인듯싶었다.

은철은 몸에서 연한 향수내가 풍기는 그 일군이 돋보이였다. 그도 어제날에는 윤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옷에 송진내가 배여 일하던 벌목공이였었다. 그랬던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립업총국에 발을 붙이더니 지도원을 거쳐 처장으로 승급이 된것이다. 은철은 가슴을 조이며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버지가 윤림을 프려고 하겠는가.

얼마후에 조용히 담배를 태우고있던 아버지가 침묵을 깨뜨렸다.

《자네의 생각은 고맙네만... 늙은 소나무는 떠옮기면 죽는 법이라네.》

신혁처장이 끈덕지게 아버지의 기술과 경험이 조림사업소에 꼭 필요하다고 했으나 아버지는 여기서 할 일이 더 많다고 고집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은철은 이해했다. 아버지는 이미 윤림과 떨어져서는 살수 없는 몸이 된것이다. 윤림의 나무 한대, 땅 한뼉기도 아버지와 피줄처럼 련결되어 숨결을 같이 해오고있는것이다. 그 어느 산밭에도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은데가 없고 그 어느 나무에도 아버지의 넓이 깃들지 않은데가 없었다. 윤림의 높낮은 산밭들에 충충을 이루어 새롭게 조성된 나무숲들은 모두 아버지가 한생을 바쳐 가꾸어온 숲이다.

이제는 그 풍성한 재부를 만족스럽게 뒤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년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중지봉은 산세가 높고 험해서 오래전부터 사람들한테서 버림받아온 산이었다. 그 산판을 개조하는데는 많은 품을 들여야만 하였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밖에 난 산을 아버지가 자진하여 맡아가지고 하루도 쉬임없이 험한 산밭을 타며 구슬땀을 묻고있었다.

실로 이 땅의 재부를 늘이기 위해 한평생 분투해온 아버지의 로고는 훌륭한 결실을 이루었다. 집뒤에서 시작된 가족식수의 면적만 해도 해마다 자리를 넓혀 오늘은 근 수십정보에 이르렀다.

푸르러지는 숲과 함께 아이들도 자라났다.

그동안 은철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립산작업소에 진출하여 한다하는 벌목공이 되었다. 어려운 일에는 먼저 어깨를 내대고 기술혁신에도 앞장서온 그는 어느덧 모범청년동맹원으로 성장했다.

은희도 처녀꼴이 다 잡혀 동무들속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되었다.

새집에 와서 열두해... 실로 감회깊게 돌이켜보게 되는 나날이었다.

은철은 그 나날을 집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었다. 기쁠 때도, 어려울때도 언제나 따듯이 품어준 이집에 이제는 정이 폭 들어버렸다. 해빛이 잘 들고 살구나무, 포도넝쿨이 우거지고 샘물을 끼고있는 정다운 집이 어디 가서도 그리워지는 것이다.

따뜻한 깃처럼 가슴속에 지리잡은 이 집에 이즈음에 더욱 애착이 들고 소중해지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은철은 울봄에 들어 대학에 가려는 꿈을 품고있었다. 밀림을 정복하는 보람찬 로동속에서 여려해동안 단련되었으니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싶었다. 앞날에 대한 꿈은 젊은 가슴에서 꽃망울처럼 급속히 부풀어올랐다.

그러나 은철은 자기의 생각을 입밖에 내놓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자기 꿈을 말씀드리기가 저어되었다.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고있는지 잘 알고있기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뒤를 이어 산판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고있는 것이다. 그 하나의 생각으로 온갖 지성을 다 기울여 키워온것이다.

그런데 내가 자신의 희망을 찾아 이 산판을 떠나가면 아버지는 얼마나 서운해하랴. 믿음을 잃어버린 가슴에는 커다란 공허가 생길것이다. 자기의 뒤를 따라 은희마저 시집을 가버리면... 아버지의 텅 빈 가슴을 무엇으로도 메꾸지 못할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배움에 대한 열망은 가슴에 가득 차오르나 그것을 뜻대로 이루기 어려웠다.

운명적인 문제앞에서 은철은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었다.

얼마후에 은철은 차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은희가 뒤따라섰다. 은철이는 도에 올라가야 하고 은희는 산판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짧은 수박색사쓰에 회색작업복바지를 입은 은희의 몸에서는 싱싱한 기운이 풍기었다. 이해에 들어와 숙성해지는데는 눈에 띄게 알렸다.

그는 한결음이라도 뒤질세라 곁에 바짝 붙어서 더니 애뜻한 눈길로 은철을 바라보았다.

《오빠, 대학으로 꼭 가세요.》

《응?》

뜻밖의 소리에 은철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말을 입밖에 내적이지 않는데 이애가 어떻게 내 생각을 알고있을가?

《오빠의 속을 다 알아요. 고민하는것도... 아버지때문이지요?》

《...》

《걱정말고 가세요. 내가 있지 않아요.》

《네가?》은철은 어이없는 눈길로 동생을 돌아보았다.

《시집은 가지 않고?》

《난 시집가지 않아요.》

《그래?》

은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동생을 한참 건너다보았다.

《그게 진정으로 하는 소리냐?》

《진정 아니구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내가 하면 되지 않나요.》

《허, 우리 은희가 괜찮은데...》

은철은 웃음을 터뜨렸으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아버지가 결머친 산림보호원의 일을 은희가 한단말이지... 그 생각만으로도 기특하다. 그애의 속생각이 여간 여물지 않았다. 이 집에서 자란 12년을 헛보내지 않았구나. 하지만 ...아직 너자 산림보호원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은희의 그 마음은 고맙지만 그를 산판에 남겨둘수는 없다.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어떻게 너동생을 들여세울수 있으랴. 그렇다면...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는데 나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가.

운명적인 문제앞에서 은철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부대졌다. 한발을 어떻게 내짚는가에 따라 인생길이 달라지는 것이다.

얼마 내려가지 않아서 은희는 갈림길에 들어섰다. 산판으로 곧추 오르려는 것이다.

은철은 호젓이 걸음을 옮기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도에서 열리는 청년동맹회의에 참가하려 하지만 마음은 안정을 잃고 흐트러졌다. 그는 작업소에서 떠나는 자동차를 놓칠듯싶어 골짜기 아래로 걸음을 재우쳤다. 사위에는 아침해살이 활짝 비쳐들고있었다.

은철은 회의가 시작되면서 마음이 번거로워졌다. 청년동맹회의에서는 국토관리사업에서 청년들이 앞장에 설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근에 국토관리 부문에 주신 말씀이 전달되고 청년동맹1비서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다투어 연단으로 나가 당의 방침을 받들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신들이 선구자가 될 결의를 다지었다. 특히 조국의 모든 산을 푸른 숲으로 뒤덮기 위하여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꿀데 대하여 말하였다. 토론이 심화될수록 은철은 가슴이 켱겨들었다. 마치 산판을 떠나 대학으로 가려는 자기 마음을 엿보고 그렇게 열변들을 토하는 듯싶어 얼굴이 붉어지기까지 했다.

은철은 저으기 죄스러워났다.

대학에 가려는 자기의 꿈이 잘못된것인듯 싶었다.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두 떨쳐나서는데 나는 그 산판을 뜰 생각을 하다니...

아버지의 뜻을 이어 산판을 지켜서야 하는가, 아니면 량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라도 대학으로 가야 하는가.

은철은 이 운명적인 문제앞에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 무거운 걸음으로 마당에 나갔다.

《은철이, 어디 아픈게 아니냐?》

누구인가 묻는 말에 은철은 고개를 들었다. 얼마전에 부총국장으로 임명된 신혁이었다.

《아닙니다.》 은철은 당황하여 얼굴을 붉혔다.

《조금 기다리게. 나하고 같이 가자구.》

신혁부총국장은 은철이를 붙잡아세우더니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갔다.

그사이에 신혁 부총국장의 집은 새로 일떠선 중거리의 고층살림집으로 옮겨갔었다. 그전에 은희가 한번 찾아왔던 낡은 집은 두칸짜리였는데 이번에 새로 받은 집은 세칸짜리에 전실, 위생실이 달린 넓고 화려한 집이었다.

방안에서는 연한 향수내가 풍겼다. 언제인가 은희의 집으로 찾아왔던 신혁한테서 풍기던 그 향수내였다.

은철은 새옷을 갈아입고 왔지만 자기 몸에서는 송진내가 그대로 풍기는듯싶어 그 어떤 구속감을 느꼈다.

얼마후에 저녁상이 차려들어왔다. 상우에는 운봉에서는 볼수 없는 음식들이 푸짐히 올랐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나. 어서 들라구.》

신혁 부총국장이 잔에 인풍술을 부어주는것을 마치 못해 두어잔 받아마시었다.

주인은 거나하게 취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아버지가 도에 올라오셨으면 참 좋았는

데... 은철이 생각엔 어떤가?》

《...》

《아버지의 기술과 경험이 아깝거든. 조림사업소 고문으로 앉았으면...》

《아버지는 그 권고를 듣지 않을것입니다.》

은철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신혁 부총국장은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아버지를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리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날 밤 은철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폭신한 침대에 드러누우니 온몸이 허공에 둥 떠오른듯싶어 어쩐지 생각이 깊어지는것이였다. 향수내가 풍기는 화려한 방안, 그흔히 갖추어진 세간살이...

한평생 산속에 묻혀 곶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일해온 아버지의 생활과는 큰 대조를 이루는듯 싶었다. 내리는 눈비를 모두 맞으며 머리가 희여진 아버지에 대한 련민의 정이 가슴을 적시고들었다.

새날이 밝자 은철은 서둘러 집으로 떠났다. 운림쪽으로 가는 자동차에 몸을 실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는 내려서 걸어갔다. 떠난지는 이틀밖에 안되지만 멀리 두고온 집이 몹시 그리워졌다. 립산마을과 떨어져있는 외따른 집, 해빛이 잘 들고 개울물이 흐르는 유정한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을수 있는 집...

오늘따라 그 집이 애투이 느껴지며 빨리 들어서고 싶은것은 무슨 까닭인가. 얼마후이면 그 집을 남기고 떠날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일가...

그제야 은철은 여전히 자기 앞날을 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더는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 결심을 내려야 한다. 대학으로 꼭 가야 하겠는가.

은철은 먼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본다. 오늘까지 이 아들을 숲에서 키우며 이 고장의 흙내를 마음껏 마시게 한것은 무엇때문인가...

그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너무도 잘 헤아리고있었다. 자기 초소를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그 심정은 절절했다. 어려서부터 이 산과 낯을 익히게 하고 숲향기속에서 아들을 키워온것은 그 하나의 생각으로 해서였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을 저버리고 내하나의 발전을 위해 이 고장을 떠난다는것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싶은 생각은 간절하나 아버지의 그 뜻을 어길수는 없다. 은희마저도 시집을 가지 않고 산판을 지켜설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다. 한평생 가꾸어온 아버지의 그 념원을 이 아들이 꽃피워나가야 한다.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더 크게 하여야 한다.

지금 당에서는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

의 행복을 위하여 국토관리사업에 청년들이 앞장 설것을 요구하고있지 않는가.

내가 서야 할 곳은 이 땅이다.

이 산관에 뿌리를 깊이 내려 한생을 바쳐 일해 나가야 한다.

오랜 고민끝에 비로소 결심을 하고나니 가슴이 시원히 열리는듯싶었다.

은철은 한달음에 운림에 들어섰다. 골짜기에 이르자 멀리 양지바른곳에 앉아있는 자기 집이 눈에 밟혔다. 떨어져있음은 이틀밖에 안되지만 한달음에 달려가 안기고싶은 집, 그뒤에 바루 나앉은 돌박산에 푸르게 우거져있는 잣나무숲이 안겨온다. 첫 가족식수를 한 뜻깊은 나무숲이어서 그런지 어디 갔다오는길이면 먼저 그 숲부터 애뜻한 마음으로 더듬어보는것이다. 그동안 나무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어디 피해입은곳은 없는지 살펴보는것을 습관으로 여기고있는 은철은 이번에도 길옆의 오솔길을 따라 나무숲속으로 들어갔다.

잣나무숲이 좌하고 설레이면서 싱그러운 숲향기를 풍기였다. 중지봉마루에 올라앉은 해살을 받아 금빛을 띤 솔잎들이 은철의 얼굴이며 어깨를 애무하듯 어루만져주었다. 그것은 마치 숲의 주인을 알아보고 인사라도 하며 반기는듯싶었다.

은철은 자기의 키보다 곱이나 자란 미끈한 잣나무들에 다정한 눈길을 보내며 대령검사라도 하듯 숲사이를 조용히 헤쳐나갔다.

그렇게 얼마쯤 걸어가던 그는 어느 한 나무앞에서 우뚝 멈춰섰다.

《아—!》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다. 창끝처럼 चु켜든 상수리에 잣송이가 달려있지 않는가! 나무가지들이 가볍게 설레이릴 때마다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잣송이들이 탐스럽게 드러나군했다. 한송이, 두송이... 모두 열두송이였다.

그닥 많이 열린것은 아니였으나 은철의 가슴은 기쁨으로 한껏 부풀어올랐다. 지성을 들어 가꾼 노력의 열매가 이렇듯 벌써 눈앞에 나타나다니... 여느 나무에 달린 열매와는 비할바없이 귀중하고 신기스러워보였다. 아버지가 보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머리를 젖히고 그 잣송이들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은철은 낮익은 가지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여러해전에 있었던 일이 어찌런듯 떠올랐다.

그날도 고등학교에 다니던 은철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돌박산에 올라왔었다. 시간이 있으면 잣나무숲을 돌아보는것은 아버지의 습관이자 아들의 습관이기도 하였다. 방금 센 바람이 지나간 뒤여서 무슨 피해라도 입지 않았는가. 나무들을 한대한대 살피며 가던 그들은 어느 한 나무앞에서 몸이 굳어졌다. 실한 나무가지 하나가 부러져 아래로 척 드리워있는것이 아닌가.

끊어진 아픔을 느끼기라도 하듯 찢어진 부위에 는 눈물같은 맑은 송진이 방울방울 맺혀있었다.

그 상한 나무가지를 가슴아픈 눈길로 더듬어보던 아버지는 내의 아래도리를 들어올려 그 끝을 북 찢어내었다.

《아니?》

은철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찢어진 나무를 두손으로 꼭 맞붙여대 더니 천조박을 봉대처럼 한겹두겹 감아주기 시작했다. 자기의 손가락을 끊어 피방울이라도 떨구 어주고싶은 그런 얼굴표정이었다.

은철이가 주변에서 알맞춤한 나무토막을 얻어 오자 아버지는 그 상한 나무가지가 바람에 흔들 리지 않게 버팀대를 든든히 세워주었다.

그러는 아버지를 보며 은철은 아버지야말로 나무 한대한대를 제 살붙이처럼 소중히 여기는 보 석같은 마음을 지니고있구나하고 속으로 크게 감 동되었었다.

그렇게 키워낸 그 잣나무에 오늘은 첫 열매가 버섯이 열리지 않았는가, 그 잣나무도 자기에게 기울인 아버지의 정성을 헤아리고 기쁨을 안겨주 려고 서둘러 열매를 맺은듯 싶었다.

이 귀중한 열매를 어서 바빠 아버지에게 보여 드렸으면... 아버지는 몹시 기뻐하며 자기 일의 보람을 더욱 크게 느끼실듯싶었다.

은철의 마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아버지가 산 에서 내려온 저녁시간이 몹시 기다려졌다. 첫 열매가 맺었다는 자랑스러운 소식 그리고 이 산관을 지켜갈 자기 결심을 들으면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랴.

오늘 저녁이야말로 이 땅에서 한생을 바쳐 일 해온 아버지의 그 로고를 다 풀어드리고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게 되었다. 누구도 맛볼수 없는 그 기쁨과 보람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여생을 좀 편안히 보냈으면 좋으련만... 오늘저녁에는 자기의 이 생각도 말씀드리리라곤 은철은 생각했다. 그는 저녁시간이 되기를 초조히 기다렸다.

×

《오늘 저녁상은 좀 푸짐히 차려야겠구나.》

아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어머니는 서둘러 부엌일을 해나갔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 고 감자농마가루를 꺼내 반죽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좋아하는 농마국수를 누르려는것이다.

얼마후에 부엌에서는 더운 김이 피어오르고 고 기끓이는 냄새도 구수히 풍기였다.

아버지는 여느날과 다름없이 어슬무렵에야 마 당으로 들어섰다. 어깨에서 가방을 내려놓은 그는 칼장단소리가 울리는 부엌에 대고 말을 건넸 다.

《이 집에선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부다?》

《그렇지 않구요. 오늘이 어떤 날이라구.》

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아버지를 맞아들었다.
《무슨 일이 생겼기에?》
《아버지, 뒤편 잣나무에 첫열매가 맺혔어요.》
은철이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기쁜 소식부터 알려주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는 웃음이 확 피어났다.
《그래?》
《회의를 끝내고 돌아오는길에 밟아보았더니... 글썽 첫눈에 띄우지 않겠어요. 열두송이나 열렸어요...》
은철은 기쁨을 억제하지 못해 손짓을 보태가며 이야기해주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어린 나무모를 심던게 옛그제같은데 벌써...》
아버지의 얼굴에는 감회깊은 빛이 떠올랐다. 오늘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며 일해온 그 모든 로고가 한꺼번에 헤아려지는듯싶었다. 은철은 날이 더 어둡기전에 그 첫열매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다.
《산에 올라가 보시지 않겠어요?...》
《햇힌 열매야 어딜 가겠느냐. 래일 보아도 된다. 그대신 오늘저녁에는 긴히 토론할 문제가 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긴히 토론할 문제?...)
아버지가 기쁜 소식을 듣고 서둘러 산에 올라가 첫 열매를 보실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도 긴히 토론할 문제가 있다니 무슨 일일까?
《여보, 당신도 좀 들어오구려.》
아버지가 부엌에 대고 소리쳤다.
은철의 가슴은 한껏 헤워졌다. 아버지는 갑자기 무슨 의논을 하시려는것일까. 사람들이 권고한대로, 혹 도에 올라가려는 생각을 한게 아닐까. 그랬으면 좋으련만...
어머니가 일손을 놓고 방에 들어와 앉았다. 어머니와 아들, 딸은 긴장한 빛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담배를 태우고나서 힘들게 입을 열었다.
《이젠 내가 이미전부터 생각해오던 문제인데... 오늘은 가족들의 의견도 들어보아야겠소.》
(이미전부터 생각해오다니?... 어떤 문제이길래.)
은철은 너동생과 의아한 눈길을 마주치며 가슴을 더 한껏 조이였다. 아버지는 담배꽂초를 재떨이에 비벼끄고나서 궁근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우리 집을 옮겨야 할것 같소. 중지봉밑으로 말이요. ...》 《집을 옮기다니요? 갑자기 그건 무슨...》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은철은 가슴이 후두두 떨려 굳어진 눈길을 아버지한테서

떼지 못했다. 아버지는 갑자기 무슨일로 집을 옮기자는것일까. 이젠 이집에 정이 폭 들어 떠나고 싶지 않고 어디에 가서도 그리워지는 보금자리인데... 이 집을 내놓고 또 옮겨가다니? 세번씩이나... 중지봉밑이라면 여기서 심리는 더 올라가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 아버지는...
중지봉산판을 개조하기 위해서 그러시는게 아닌가.
아버지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계속 말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국토관리사업을 잘할데 대해서 여러번 말씀하시지 않았나. 특히 산림을 조성하는것은 나라와 후대들을 위한 더없이 보람찬 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산림일군들이 하여야 할 일을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고보니 해놓은 일이 너무도 적구나. 이 산판에서 한뼉 살아왔다만 받아안은 은혜에 보답을 하지 못했구나.
이제라도 장군님의 그 커다란 기대에 한몫 바쳐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하고있는 중지봉개조를 더 빨리, 더 잘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 멀어서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중지봉밑에 집을 잡으면 새벽부터 늦게까지 많은 일을 할수 있고 가족식수할 장소도 가까와서 좋을것 같다. 그래서 내 언제부터 마음속으로 생각해오던것인데... 오늘은 결심을 내리자는거다.》
아버지는 말을 끊고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은철은 머리를 수그리고 숨소리마저 죽였다.
그러니 아버지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겠다는것이 아닌가. 중지봉을 개조하는데 한몫을 바쳐 일하기 위해서...
림업부문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것은 피할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꼭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다. 림산마을은 그대로 앉아있고 생활도 그대로 보존하고있다. 당에서는 벌목공들에게 통근차들을 보내주어 채벌장까지 출퇴근을 보장해주고있는것이다.
벌목공들은 그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있는데 아버지는 왜 유독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너무도 고지식한것 같다. 아버지와 같이 일을 시작한 다른 사람들과 대비해보면 그것이 더욱 뚜렷이 느껴진다. 어제날에는 같은 벌목공이였던 신혁이 대학을 마치고 지도원으로부터 처장, 오늘은 부총국장으로 승급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산림보호원을 하고있다. 그 일군은 두칸짜리 집으로부터 새로운 넓은 집으로 옮겨갔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이 정든 집마저 버리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려 하다니...
은철은 가슴이 메여오르고 눈물이 솟아나기까지 했다.

《아버지, 저는 싫습니다. 더 옮겨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거나 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싶은것을 겨우 눌러참았다.

《당신 생각은 어떻게?》

아버지는 먼저 어머니에게 물었다. 한참후에 어머니의 한숨쉬인 목소리가 울렸다.

《어쩌겠수, 당신생각이 정 그렇다면... 따라야지요.》

(따르다니? ... 그럼 어머니두 찬성이란말인가?)

은철은 놀란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젠 이 집에 정이 폭 들었다고 하며 사흘이 멀다하게 부뚜막에 흙매질을 하던 어머니가 어쩌면 이런 말을 쉽게 할가.

이번에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눈길이 은철에게로 옮겨졌다.

《은철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대어린 목소리...

은철은 더 참지 못하고 얼굴을 들었다.

《아버지, 저는, 저는...》

그는 목이 짹 메여올라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음...》 아버지는 웅글은 소리를 내더니 뜨덤뜨덤 말했다.

《네 생각을 알만하다. 뜨기가 싫단말이지?》

《그렇습니다. 이젠 아버지 년새도 많은데 왜 그런 끝안으로...》

은철은 가슴을 들먹이며 말했다. 눈에서 눈물을 보일듯싶어 습벽이는 눈길을 떨구고말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은철아, 우리야 이 산판을 지켜선 주인이 아니냐, 주인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 그래도 그 일만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에 그냥 계십시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하겠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결심이라니? ... 그러니 대학에 가지 않고 이 산판에 그냥 눌러있겠단말이지?》

아버지는 언제 아들의 마음을 엿보았는지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예...》 은철은 주먹으로 눈을 뺨 문대고나서 뉘말을 이었다.》

《저는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고있는지 알고있어요. 저는 그 뜻을 따르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녀석이 고작 생각했다는게 그것이나?... 너는 그대로 대학에 가야 한다.》

《예?!》

은철은 눈이 커져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옆에서 다소곳이 고개를 수그리고있던 은희도 얼굴을 들었다.

아버지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무겁게 말했다.

《물론 나는 네가 내 하던 일을 이어 이 산판을 지켜가기를 바란다. 그것은 어린 너를 키울 때부터 내 가슴에 늘처럼 곁여온 소원이다.》

너는 이 애비의 그 오랜 꿈을 활짝 꽃피워주기 위해서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한다. 래일의 숲을 위해서 더 많은것을 배워야 할게 아니냐.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가꾸는 일도 새로운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산림건설구상을 꽃피우기 위해서 더욱 그래야 한다. 그러니 너는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대학으로 떠나도록 하거라. 여기 숲은 내가 지키고있으니...》

《아버지-!》

은철은 아버지무릎에 어푸러지며 목멘 소리로 불렀다.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껴 울었다. 풀풀이 퍼렇게 든 아버지의 옷자락에서 싱그러운 풀내가 풍겨오르며 가슴이 찢릿해졌다.

아버지한테서 풍기는 숲향기... 그것은 온종일 숲에서 숨배인 자연이 안기여주는 단순한 향기이런가.

여느때는 무심히 느껴지던 그 숲향기가 오늘 별로 소중하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가슴을 적시고들었다. 신헌 부총국장에게서 풍기던 그 향내를 맡던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그것은 이 땅을 위해, 조국의 래일을 위해 자기 한몸을 밀거름처럼 바치는 그런 사람에게서만 풍기는 향기인것이다. 이 땅에 자기를 깡그리 바치지 않고서는 풍길수 없는, 가슴에 뜨거운 조국애를 지니고 사는 사람만이 풍기는 그런 향기이리라.

은철은 오늘까지 아버지를 잘 알고있다고 생각해왔었다. 조국의 재부를 늘이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묵묵히 바쳐온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존경해왔었다.

그러나 오늘 새롭게 본 아버지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더 높은곳에 서있는, 시대를 안고사는 훌륭한 아버지였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는 사람들의 눈에 띄우지 않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아버지의 몸에서 풍기는 그 향기는 이제 온 나라 강산에 차고넘칠것이며 그 향기와 더불어 푸르러질 무성한 숲으로 하여 아버지의 한생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빛날것이다.

가볍게 들먹이는 아들의 어깨에 아버지는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만하거라.》

《아버지...》

은철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며 용서를 바라는 눈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은철이를 미덥게 내려다보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은철아, 숲을 가꾸는 일이란 자기를 바치지 않고는 해낼수 없는 일이다. 누가 보건말건 구슬땀을 흘리고 진심을 묻어야 하는 일이다.

내라고 왜 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네 마음을 모르겠냐. 네 말대로 이젠 나도 늙었다.

물론 사람들이 권고하는대로 도에 올라가면 육신이야 편할수 있겠지. 하지만 난 매일 숲에 들어가 송진내도 말구 바람두 쐬야 오래 산다.

이제 더 늙기전에 나무 한대라도 더 키워 조국에 보탬하고싶은게 이 아버지의 소원이다.》

아버지의 말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은철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몸에서 풍기는 숲향기, 그것은 오로지 숲을 위해 자기의 진정을 바친 숲의 주인에게서만 느낄수 있는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애국자에

게 조국의 푸른 숲이 드리는 감사이며 표창인것이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은철은 걱정예 목메여 말을 끝맺지 못했다.

《오빠, 마음놓고 대학으로 가세요. 아버지곁에 제가 있잖아요.》

은희도 얼굴이 상기되어 목이 뻐 소리를 했다.

《고맙다. 내 마음을 알아주니... 이젠 내 나이가 든게 두렵지 않구나.》

아버지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피어났다.

어머니도 얼굴이 밝아져 남편과 아이들을 미더운 눈길로 돌아보았다.

산촌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조국의 산관을 지켜가는 이들의 미더운 모습을 지켜보려는듯 중지봉너머로 둥근달이 솟아올라 은은한 빛을 뿌렸다.

내 마음 비춰보네

곽문철

처녀들은 날마다
자기 얼굴 거울에 비춰보지만
나는 날마다
나의 일터
논판에 내 얼굴을 비춰본다

조국의 푸른 하늘
고향의 정든 산발들이 그림처럼 비끼
거울같은 논판에
내 얼굴 비춰볼 때면
생각도 깊어 저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당의 가르침 심장에 새기고
푸르싱싱 자태우는 벼포기마다에
풀 한대 날세라
돌피 한대 있을세라
나의 소중한 마음
아낌없이 바쳤던가를

그러면 속삭인다 거울같은 논판은
파아란 잎새 펼친 애기모들을
참된 주인의 불같은 마음 없이야

어찌 실하게 살찌울수 있으랴
황금파도 설레이는 풍요한 가을도
어찌 여기에 담을수 있으랴

말없이 심장을 울려주는 일터
여기에 내 얼굴 비춰볼수록
내 몸에서 흙냄새 풍기는가를
내 몸에서 땀냄새 풍기는가를
스스로의 자책속에 채찍질하거니

아 논판은 나의 정든 일터
논판은 나를 떠밀어주는 생활의 거울
하루일의 시작도
여기서 비춰보며 긍지롭게 첫걸음 떼여가고
하루일의 마감도
여기서 비춰보며 땀땀이 총화짓노라

만풍년 가꾸어가며
쌀로 당을 받드는 마음에 티가 없는가를
이 거울속에 비춰보고
풍년대지에 뿌리내린 청춘의 삶
내 깨끗한 량심
이 거울로 닦으며 키워가노라

음악처럼 우아하고 류창한 맛이 나는 시를!

허수산

오늘 우리 시인들은 가장 격동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시창작의 주인은 시인 자신들이다. 시인들이 오늘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오늘의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벽찬 생활을 심장으로 뜨겁게 감수할 때만이 시대적으로 의의가 깊고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쓸 수 있다.

오늘 우리 시문학은 그 사상적내용이 매우 투철하고 호소성과 전투성이 높다. 그런데 일부 시작품들을 읽으면서 아쉬운 점은 시가 시답게 흐르지 못하는 것이다. 시는 아무리 사상적내용이 좋아도 시답게 흐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주는 미학적정서적감흥은 약하다.

시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그것은 서정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다. 시에 음악적인 흐름이 없다면 그것은 벌써 시다운 풍격을 살리지 못한 것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은 그의 풍부한 서정성과 함께 음악성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음악성은 운문의 기본속성이다. 시는 들으면 곧 따라부르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좋은 노래처럼 소리내어 읊거나 외우고싶은 감을 주게 씩여져야 한다. 시는 음악처럼 우아하고 정가롭고 류창한 맛이 있어야 한다.》

음악처럼 우아하고 정가롭고 류창한 맛이 있는 시! 이런 시를 창작하자! 이것은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이다.

시의 음악성을 살리려면 운률을 잘 살려야 한다.

운률이란 말소리의 음악적흐름이며 그것은 박자와 흐름새로 그 구성요소를 이루고있다. 박자는 운률단위에 규칙적인 대응과 반복을 보장해준다. 시줄안을 흐르는 말소리의 음악적인 흐름의 기본운률단위로는 어느 나라 시가나 할것없이 음절묵음이 되고있다. 이 운률단위를 박자로 규칙적인 대응과 반복을 시키는 경우 흐름새가 조성되어 운률은 시에서 말소리의 음악적인 흐름으로 된다. 이러한 운률을 잘 조성하려면 크게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원래 시의 음악성은 내용과 형식의 두 측면에서 다같이 잘 살려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아름답고 풍만한 서정이 시문학의 음

악성을 담보하는 내용이라면 운률은 그 음악성을 살리는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운률을 잘 살리려면 음악성을 담보하는 풍만한 서정의 보장과 함께 그것을 시문장으로 잘 조직하는 문제를 다같이 해결하여야 한다.

시를 쓸때 글자수나 맞추고 시줄을 적당히 끊어놓는것으로써는 운률을 살릴수 없다. 물론 운률을 살리는데서 시어의 소리마디와 시줄의 길이를 조절하는것이 중요하다. 소리마디의 수양과 색깔을 고려하여 시어를 선택배열하고 호흡에 맞게 시줄의 길이를 조절하여야 운률이 생겨날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생활에 대한 시인의 정서적체험이 뜨겁고 시의 정서적내용이 고도로 양양되어있어야 한다는것이다. 운률은 서정을 양양시키는 날개로 될 때라야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운률을 잘 조성하려면 무엇보다 생활에 대한 뜨거운 정서적체험이 있어야 한다. 즉 사람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아름답고 풍만한 서정문 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는 시들을 보면 그 문장 조직이 운률적으로 잘 짜인데도 있지만 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절절하고 아름답고 풍만한 서정이 잘 흐르고있기때문이다. 인민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서사시들인 《백두산》,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평양시장은 영원하리라》, 서정시들인 《어머니》, 《나의 조국》 등을 보면 작품들이 하나같이 운률적문장재임새도 훌륭하지만 보다는 정서적내용이 뜨겁고 절절하고 풍만하다.

서사시 《평양시장은 영원하리라》(김만영)를 보아도 운률조성의 이 원리를 확고히 증명할수 있다. 이 서사시는 방대한 량의 시어와 시문장조직으로 이루어진 긴 시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음악적으로 잘 흐르고있다. 그것은 시인이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를 창작하던 때와 같이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의 감정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시간은 계속 흐른다는 뜨거운 정서적체험으로부터 출발하고있기때문이다.

서사시의 첫부분을 인용해보자.

평양이여!
내 사는 평양이여
그대 푸른 하늘가에
오늘도 그리움에 젖는

이 마음을 신노라
설레는 가로수잎새아래로
발걸음을 옮기며
내 뜨거운 생각을 없노라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만 봐도
못견디게 못견디게
우리 수령님이 그리워지는
평양

하많은 추억을 불러내고
하많은 뜨거움을 불러내는
이 창문
이 거리
...

비록 짧은 시련이지만 평양의 거리거리를 보며
어버이수령님을 그리는 감정이 절절하다. 따라서
시문장조직도 음악처럼 잘 흐르고있다. 시인은
처음 반복의 수법으로 평양을 부르고는 짧은
세개의 시행으로 한 호흡덩어리를 이루는 시문장을
조직하고 다음 또 반복하여 세개의 시행으로
앞의것과 똑같은 운률을 반복하여 창조하고있다.

시인은 점차 음악적인 물조를 쌓아주는 방법으로
시의 운률을 조성해줌으로써 서사시의 전반적인
시정의 물조를 보장하였다.

서사시의 이 첫련은 서사시전체의 운률의 성격을
규정해주고있다. 운률조성에서 첫련이 중요하다.
첫련의 시행조직법과 박자조성이 전체 시의
음악적흐름을 시사해준다. 그러므로 운률조성에서
첫련의 운률을 잘 조성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인은 서사시에서 첫련의 흐름세를 타고 2, 3
련의 운률도 류창한 맛이 나게 조성하고있다.

2련에서 《못견다게》라는 음절군을 반복하여
시의 박자를 조성하며 5행에서는 짧은 음절묵음
인 《평양》이라는 단어로 끝냄으로써 여운을 조성
하고 있다. 3련에서 《하많은》, 《불러내다》와 《이》
라는 지시대명사의 반복으로 운률의 흐름세를 더
빠르게 하며 재차 박자도 강하게 주고있다.

이 서사시의 어느 부분을 떼어 인용해도 음악적
서정이 류창하게 흐르고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시인의 가슴속에 끓어번지는 서정의 열도가
강하기때문이다.

임의의 다른 서정시를 보자.

청춘시절의 한 구간이
너에게 찍혀져있어
사랑하는 나의 중대여
날이 갈수록
너를 못잊는것인가

물오른 초소의 한그루 버드나무

중대교양실 앞마당에 놓인
하늘색 긴의자...
눈만 감아도 삼삼한 그 모든것
못잊을 나날들을 불러주나니
- 《나의 중대여》(송재하) -

이 시는 비교적 사상정서적내용이 음악처럼 잘
흐르고있다. 한것은 시인 자신이 직접 체험한 중
대생활, 병사생활에 대한 뜨거운 정서적파악이
있기때문이다.

사람은 원래 충분하고 열정이 북받칠 때라야
보통감정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심장의 박동과 호
흡을 느끼게 된다. 시의 서정도 고도로 양양되어
있어야 운률과 자연스럽게 어울릴수 있다. 메마
른 정서적체험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글자수를 맞
추고 시율을 조절하여도 운률이 아니라 기계적인
반복밖에 나올것이 없다. 이것은 시창작에서 일
종의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시 《나의 중대여》에서는 첫련부터 시인의 양
양된 주정토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다섯행으
로 된 시련에서 세번째행인 《사랑하는 나의 중대
여》를 가운데 넣어줌으로써 흐름세의 굴곡이 이
루어지고 마지막행인 수사학적 감탄식의 시행이
다음련과의 음악적인 련계를 잘 보장해주고있다.

시의 둘째련에서는 동질의 시적표상을 병렬적
으로 주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서 제기한
《가》가 있는 시행에 대한 대답이 운률적으로 자
연스럽게 주어지고있다.

이와같이 운률을 잘 조성하려면 생활에 대한
정서적체험이 뜨겁고 심오해야 한다.

다음으로 시의 음악성, 즉 운률을 잘 보장하러
면 시문장조직에도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

매개 나라 민족시가에는 고유한 작시법이 있
다.

그러면 우리 나라 시가의 운률조성의 기본수법
은 어떠한가.

이를 리해하는데서는 정형시의 경우에는 어렵
지 않다. 우리 나라 민족시가의 운각은 대체로 4.
4조, 3.4조를 기초로 7.5조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여기에 기초하여 이러저러한 변형을 주고있다.

례를 들어보자.

배내여/아줄가
배내여/노한다/사공아
위/두어령성/두어령성/다림다리/
(고려인민가요 《서경별곡》)

박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줄은 3.3조로서
2박자, 둘째줄은 3.3조로서 3박자, 첫째줄은 4.4
조로서 4박자로 되고있다. 여기서 《위》는 비록
한 글자이지만 박자에 의하여 길게 끌어서 4개음
절의 음향가를 대신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시가의 운률조성의 기본원리는 음향가에 의한 내

외구대응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백두산/아름드리/원시림을/찍어서//
벽이며/지붕이며/쌓아올린/귀틀집//
등잔불/깜박이는/나직한/방에서//
그이께서는/오래동안/움직이시지/않았다//
《날이 밝는다》 정서춘)

이 시편을 읊노라면 독자가 특별히 감정을 넣지 않아도 스스로 음악적인 박자와 흐름새가 나타난다. 이것은 비교적 내외구대응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백두산 아름답드리》를 외구로 본다면 《원시림을 찍어서》를 내구로 볼수 있는데 이 내외구가 비교적 대응을 잘 이루고있다. 그리고 이런 수법이 2행, 3행, 4행에서도 반복되어 음악적인 흐름이 잘 이루어지고있다. 뿐만아니라 크개는 1행이 외구로, 2행이 내구로 되어 서로 대응을 잘 이루고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일부 시들에서는 이런 운율조성의 기본원리를 잘 지키고 있지 못한다.

대체로 시문장의 길이와 그안에 들어가는 음절 묶음수는 들숨과 날숨의 호흡관계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래야 순탄하고 숨가쁘지 않다. 그렇지 않고 《고》, 《며》, 《는데》, 《거니》 등의 접속사를

계속 쓰면서 호흡을 잘 끊어주지 않고 시문장길이를 조절하지 않으면 음악성이 약해지고 시가 산문화되게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정서적내용도 그것을 음악적인 시문장조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시의 풍격을 잃게 된다.

시문학의 음악성을 해결하려면 내용과 형식의 두 측면에 다 관심을 두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라.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에서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세계는 얼마나 높이 발양되고있는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의 《고난의 행군》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조국의 방방곡곡, 최전연초소들을 찾으신다.

우리 시인들은 이 격동적인 사실에 대담하게 뛰어들어 시대와 현실생활에 대한 정서적체험을 뜨겁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한편의 시작품을 창작해도 시대정신이 강렬하고 풍만한 정서로 안겨오는, 음악처럼 우아하고 류창한 맛이 나는 전투적이며 서정적인 시들을 창작해야 할것이다.

그 부름이 좋다

오재신

그 부름이 좋다
탄광친구
먼 고장의 옛 친구를 만나도
그 인사가 좋다
탄광친구

제대배낭 풀어놓던 그 시절로부터
아득히 흘러
내 머리엔 어느덧 흰서리 내렸건만
그래도 좋다
탄광친구

언제 생겨난 버릇이던지
이랑을 타고왔은 실농군처럼
탄발을 밟고서야 담배맛도 나고
가슴도 시원해지는것은

번들번들 기름진 탄을 쥐어보면
갱구밖 우리 세상이 더 환해지는듯
저 탄장너머 다락밭 강냉이이삭조차

이 탄열로 우썩우썩 자라는듯

굴길을 받들고선 저 동발들이
어쩌면 우리의 장군님 찾으시는
큰 공장 은빛지붕들을 떠받든것 같아
그이께서 펼치시는 창조의 대기념비들도
나의 이 어깨가 받들고선것만 같아

그래 그때문이지
내 한생 막장을 떠나지 않는건
그래 그때문이지
이렇게 온몸에 힘과 열정이 넘쳐나는건

그 부름이 좋다
석탄전선 제일선에 나를 세워주는
그 부름이 -
언제나 젊어 살라 나를 고무해주는
어머니조국의 부름이런듯
정말 좋다!

엄마의 노래

럼형미

고백

봄날의 종다리마냥
명랑하고
새벽의 들국화마냥 싱싱한
나의 처녀시절

아쉬워... 마치기 아쉬워
머뭇머뭇 한해 두해
시집가라는 부모님 잔걱정속에
서른을 앞두고도 그냥 머뭇머뭇

어이 선뜻 놓아보내랴
숫눈같이 티없고 어여쁜 그 종다리를
어이 선뜻 손을 대이라
첫이슬 도르르 구르는 그 꽃송이에

허나 어인 일일가 민들레꽃씨마냥
봄바람에 하늘하늘 내리는 생각
나의 종달새는 혼자 너무 날씬해

나의 들국화는 홀로 너무 연약해

가없이 창창한 조국의 하늘
끝없이 푸근한 내 나라 대지
난 너무도 가벼이 수월히
즐거움만 껴안고 저혼자 덩굴어

기쁨만을 저으는 종다리 나래에
무거이 무거이 짐을 실을래
싱싱히만 웃는 들국화꽃잎에
숭고한 아름다움 더해놓을래

조국의 래일을 두팔에 안아
사랑의 젖으로 키우는 엄마
가꾸는 행복으로 가슴풍만한
이 나라의 한 어머니 되고싶어

아, 나는 처녀시절 마칠가보아

사랑의 열매

뉘 알가봐 부끄럼만 타던 언약이
어느덧 목숨처럼 되어버린 내 사랑

잔잔히 두손목에 흐르던 정이
이제는 칙렁쿨마냥 얹혀버린 내 사랑

머리위에 함뿔 꽃을 달은 결혼식날에도

마음속엔 더 불타는 꽃보라 날리였지

이 나라의 한 아버지 어머니되어
새로운 효성 더해갈 뉘뵈는 두 심장

사회주의조국의 한송이로 꽃핀 우리 사랑
이 행복 지켜갈 사내애를 낳을것입니다!

행복동-충성동

행복동—
너는 행복동이지
엄마될 행복한 이 몸속에서
꿈지락 애모르게 태동하는 아가야

너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
아빠도 할머니도 두팔 벌려 너를 기다린다
아롱다롱 때뭇웃 장난감
요람 가득 마련하고 기다린단다

리진료소 담당의사선생님은
얼마나 남모르게 수고 많을가
네가 태어날 때까지 열여덟번
이 엄마 검진하고 보약준단다

밖을 나서면 동네너인들
무거운 짐 들세라 다싱도 하고
벌에 나가면 똑똑한 분조장아바이도
빨간 딸기 슬며시 쥐여주겠지

나날이 사랑속에 몸이 무거운데
오늘부터 150일 산전산후휴가라
고마운 제도가 등을 떠밀어주니
아, 엄마될 마음이 더 무거웁고나

아가야 나의 아가야
말 못하는 이 심정 네가 다 알아
첫 고고성 너는 후련히 터치거라
-충성동, 나는 충성동이야! -라고

꽃과 영생

아들을 낳았다고
이 가슴에 안겨준 꽃송이
그 향기에 뺨을 묻으니 몽클합니다
이 꽃이 누구를 위해 피었습니까

이제는 습관으로 굳어진 생각
꽃을 보면 그저 수령님이 그리워
태양의 그 영상앞에
한달음 달려가고싶은 마음

참을수 없어 나섰습니다
지금껏 내 그리움의 꽃만을 안고
수없이 혼자 가던 그 길로
오늘은 나의 아기 함께 안고서...

이 땅의 한 생명을 싸안고
아뢰고싶은 소원 하 많았건만

태양의 그 미소앞에 서니
묵묵히 다만 붉은 꽃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꽃은
우리 수령님을 위해 피어난것임을
수령님은 꽃과 더불어 우리 함께 계심을
이 엄마는 아기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일먼저 가르치고 싶습니다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꽃은
피보다 진한 삶으로 가꾼
효성의 꽃 계승의 꽃이어야 함을

아 꽃은 꽃씨를 맺어
산과 들에 뿌리고
엄마는 아기에게
효성의 씨앗을 묻습니다

장군님과 애기어머니

해살 눈부신 아침이면
무지개포단에 싸안은 아기
금인듯 옥인듯 고이 말기네
장군님 지어주신 농장탁아소에

그러면 다시 처녀시절로 돌아간듯
마음속의 잔구름 가뽤이 걷혀
이슬터는 황금물결 헤가르며
온 벌을 나혼자 거두고싶네

날알향기 땀향기에 흠뻑이 취해
불어나는 젖가슴 느껴질 때면
그윽히 피어나는 행복의 미소
그러면 포전에는 유모차 들어서네

로동의 보람 엄마의 궁지
한껏 부풀은 가슴 아기에게 말기니
덩달아 흥그러하는 분조원들
비서어머닌 버릇처럼 또 그 이야기

...54년 그 여름
이별에 오셨던 **김정일** 장군님께선
나무그늘아래 눕혀놓은

우리 애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오셨네

하루살이, 개미랑 손수건으로 털어주시며
어서 탁아소를 크게 세워서
엄마들이 마음놓고 일하게 하자고
날보고 뜨겁게 말씀하시지 않겠나...

아, 부령땅 석막마을
내 고향에 깃든 사랑의 전설
소녀시절 처녀시절 늘 들어왔건만
엄마된 오늘은 왜 이리 새로워질가

정녕 따사론 그 눈빛
나의 아기 두볼을 어루만지고
젖내나는 옷섶을 여미여주며
빨간 유모차의 요람도 들여다보시는듯

문득 그 손길에
나의 흙내나는 두손 꼭 잡아주시며
애기걱정은 말라고
다정히, 다정히 고무하시는데
아, 고마워라
나의 아기를 제일로 사랑해주시는분

한생을 종다리처럼 벌에 살고픈
이 녀의 불타를 누구보다 헤아려주신분
장군님과 얘기어머니

언제나 이 벌에 함께 계시네
오곡을 가꾸며 미래를 키우며
조국의 부강 사랑으로 마련하시네

엄마의 노래

손에서 비누거품 마를새없이
아기의 옷을 빨고
장난꾸러기 몸 깨끗이 씻어주며
엄마는 무얼 생각하나

처녀시절엔 그리도 달던 잠
어느덧 다 잃어버리고
밤의 고요속에 아기를 다독일 때면
엄마는 무얼을 생각하나

귀여운 이마 조금만 따끈해도
걱정으로 불안스럽고
무엇 하나 생겨도 그 입에 넣어주고야
편안해지는 마음

작아지는 포단 한뼘한뼘 늘구며
나날이 목직해지는 아기
기쁨속에 추슬러업고갈 때면
엄마는 정녕 무얼을 생각하나

아, 생각하네
김정일 동지를
한자식 키우며 내 헤아리네
천만자식 거느린 그이의 로고를

젖만을 알던 아기
밥을 찾고 물달라 보챌제
커가는 아기의 요구 놀랍게 느끼며
행복을 가꾸며 미래를 가꾸며

조국의 부강 사랑으로 마련하시네
나는 생각하네 **김정일** 동지를

잘난 자식 못난 자식 수천만을 품으신
그이의 심정은 어떠하실가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나라
하나같이 주고파 쉽없이 불타시리

그래서 누구보다 밤을 모르시고
험한 길 많이도 걸으시는분
그래서 오늘의 수고 달게 여기며
래일에 살자 웃음으로 이끄시는분

아, 엄마되어 나는 알았네
우리 장군님 어머니조국을
아기를 안은 엄마 결코 쓰러질수 없듯
사회주의 붉은 기치 곳곳이 전진함을

자식을 낳아 사랑다해 키우며
그 땀짓는 행복속에
누구보다 장군님을 잘 아는 이 나라 어머니들
이제는 나도 그속의 평범한 녀인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낌없을 나는 엄마
하나 나의 조국—**김정일**장군님 위해서라면
아들과 함께 총폭탄이 되리라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 1등당선작품)

가사

병사에겐 별이 많네

리광훈

병사에겐 별이 많네
단추에도 별
군모에도 별
병사의 온몸엔 별이 빛나네
아 별처럼 조국을 빛내이라고
장군님 안겨주신 사랑의 별
병사에겐 별이 많네
어깨에도 별
가슴에도 별
병사의 마음 비껴 언제나 빛나네

아 별처럼 조국을 빛내이라고
장군님 안겨주신 믿음의 별
병사에겐 별이 많네
어머니 부락
조국의 명령
거듭거듭 잊지 말라 속삭여주네
아 별처럼 조국을 빛내이라고
장군님 안겨주신 위훈의 별

아, 병사의 별 별 별

방울산

권강일

박영봉은 소문난 낚시꾼이다. 용광로에서 30여년 공정기사로 일하다가 나이가 되어 집에 들어온후에 심심풀이로 강가에 나갔는데 차츰 재미가 들어서 이제는 질군이 되었다.

오늘도 그는 해 뜨기전에 나갔다가 대동강물이 새까맣게 보이지 않는 어두운 때에야 들어왔다. 본바탕이 무슨 색깔이던지 가늠할수 없게 벌에 날은 희벗한 갑바천배낭에서 고기구력을 꺼내어 트락의 수도가에 놓으며 영봉은 부엌에 대고 소리쳤다.

《여보, 좀 보우.》

《…》

《있소, 없소?》

《예. 장하웁다.》

《흥, 내다보지도 않고?》

《보나마나 잉어 아니면 붕어겠지.》

로친의 대답에 영봉은 허허 웃었다. 언제인가 로친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잉어를 왜 잉어라구 하는지 아나, 모를게야. 진짜 낚시꾼들은 누가 대주지 않아도 다 알지.

들어보라구. 낚시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때는 이른새벽이야. 해가 뜰까말까 사방은 고요한데 물속은 와글와글 끓지. 밤을 잔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낚시대를 드리우고 숨죽여 지켜보느라면 감부기가 감박감박- 그러다가 쑥- 들어가지. 잡아채면 낚시대 가는 초리가 휘친, 줄이 끊어질듯 팽팽해지는데 그 줄에서는 소리가 나거든. 마치도 물속과 내 가슴에 금선이 메워져있는데 그것을 튕기는것처럼 말야.

어떤 때는 《잉-》 《잉-》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건 잉어가 걸렸다는 소리야. 끌어내보면 틀림없이 잉어거든. 알겠나. 로친네. 그 팽팽한 줄에서 《붕-》《붕-》 하면 붕어야. 틀림없어. 그래서 옛날부터 《잉어》나 《붕어》라고 이름도 그렇게 달았다는거요…

로친은 그때 령감이 낚시질에 정신이 빠지더니 별걸 다 생각해냈다고 웃고말았는데 이제 보니 꽤 들을만 해서 새겨두었던가싶다. 영봉은 웃으면서도 낚시질을 시답지 않게 여기는것이 섭섭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았는데 로친이 기다렸던듯 찬찬히 바라보다가 묻는다.

《힘들지도 않으슈?》

《힘들지.》

《힘들다면서 왜 그렇게 극성이슈. 얼굴이 다

새까맣게 됐어요. 난 도무지 알수 없다니까. 그게 무슨 생업이요?

재미로 하는 일도 지나치면 몸에 해로워요.》

《또, 또…》

영봉은 로친의 진정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너무도 자주 들으니 잔소리같아서 시끄럽기까지 했다.

그러거나말거나 로친은 오늘은 좀 따끔하게 말을 해야겠다고 다짐한듯 령감의 팔을 가볍게 끌며 다가 앉는다.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도 염소를 기르자요. 좀 좋아요. 시내에 산다지만 이렇게 번두리 단층집이지, 코앞에 저렇게 방울산이 있지, 방목이나 슬슬 하면 되겠는데.》

《…》

《참, 령감은 늙으면서 이상해진다니까. 아들 딸 다 시집장가 내보내고 령감 로친 남았는데 날마다 진종일 강가에 나가 낚시대만 드리우고있으면 나혼자 집에 있으란 말이요? 그것도 그거지만 남보기도 뭇하지 않수.》

영봉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로친의 생각이 하나도 그른데가 없었다. 생활이 긴장하고 모두들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강행군을 하는 이때 낚시대를 메고 하루같이 강가로 나가는것이 안된 일이라는걸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로친의 말을 따를수가 없다. 로친의 말대로 염소를 기르자고 결심을 하기도 했지만 영봉은 줄곧 낚시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성어기인 이번달까지만 하고 다음달부터는 염소를 한마리 장만하리라 속다짐을 하기도 몇번이지만 밭걸음을 돌리지 못했다. 가을도 그렇게 지나 겨울이 지나 새봄이 왔지만 야들야들한 봄풀이 점점 무성해지는 오늘까지 용단을 내리지 못한채 하루이틀 날만 지내보낸다. 영봉은 이러한 자신이 못마땅히 여겨지고 화가 나기도 했다.

담배를 붙여물고 말없이 앉아있는 령감을 이윽히 바라보던 로친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좀전에 춘만아주버니가 왔다갔어요.》

《그 사람은 왜?》영봉은 은근히 호기심이 났다. 염소를 잘 길러서 마을에서 《염소집》이라고까지 불리우는 그를 두고 자신이 못나게 느껴지는 마음이기도 했다.

《방목갔다 오는길이라면서 저 줄타리밖에 염소들을 쭉 세워놓고 들어왔습시다.》

《염소자랑을 왔됐나?》

영봉은 자기도 모르게 빼놓어진 소리가 나갔

다.

《당신 두 참... 그아주머니는 령감이 없으니 못내 섭섭해하던 기색이더니 래일 만나자고 합디다.》

말없이 앉아있는 영봉에게는 춘만이와 함께 지낸 지난날이 떠올랐다...

리춘만은 제대배낭을 풀고 합숙에서 함께 살았고 복구건설때 현장에서 침식을 하며 어려움을 헤치던 그날부터 30년을 함께 지닌 동갑친구이다.

방울산아래 신흥동로동자주택이 처음 생기면서 새살림을 차린 그날부터 공장에도 늘쌍 함께 다녔다. 공장대학 야금과를 졸업한후 그들은 공정기사로 오래도록 함께 일하다가 공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점차 길이 갈리었다.

처음에는 대동강가에 낚시질을 함께 다녔지만 춘만은 며칠 못가서 짜증을 냈다.

《여보게, 난 모르겠네. 이게 무슨 재민가. 진종일 황새 샘구멍 들여다보듯 감부기를 들여다보느라 눈이 다 아프네. 제기랄.》

춘만은 지렁이가 든 통을 차서 강물에 처박았다.

다음날부터 그는 발길을 끊었다. 얼마후 로친이 하는 말이 춘만아주머니가 염소를 끌고 방울산으로 다닌다는것이였다.

영봉은 섭섭하게 여기었다. 낚시질 재미도 모르는 몰취미한 사람이라고, 늘그막에는 함께 지낼 재미가 없는 메마른 사람이라고 서운하게 생각했다.

이제는 만나본지도 몇달 잘된다. 영봉에게는 문득 지난해 여름에 그를 만났던 일이 떠올랐다.

염소를 뒤에 달고 방울산에서 내려오던 그는 낚시터에서 돌아오는 영봉을 풀밭에 끌어앉히고 자기의 속생각을 털어놓았었다.

《보라구. 처음 한마리로 시작한게 1년도 못되는 세에 저렇게 세마리로 불어났네. 염지는 물론 저새끼염소들도 이제는 젖을 짜는데 식생활이 달라지구 정말 대단해. 기르기는 또 얼마나 쉬운가. 알쭉히 풀만 먹는데 오전오후로 한번 방목만 하면다야. 무슨 잡병이 있겠나, 보채기를 하나, 그저 부지런만 하면 되거던. 이렇게 좋은 염소를 왜 그전에는 기르지 않았는지 이상하거던. 나이가 돼서 집에 들어오면 뒤 할 일이 없어 빨리 늙는다구? 공연한 소리야. 보라구. 더 젊어진것 같지 않아?》

춘만은 부둥부둥해진 자기 몸과 불을 살펴보이며 진정이 어린 목소리로 보냈다.

《나는 요즘 생각이 깊어지네. 이렇게 좋은 염소기르기를 모두들 함께 했으면 하고 말이네. 더

구나 자네와 힘을 합치면 래년봄부터 저 방울산 둔덕에 풀판도 크게 조성해서 염소방목을 늘이자는거네. 그러면 자네뿐아니라 우리같이 나라에서 혜택을 받으며 년로보장을 받는 술한 사람들이 따라나설거네. 이게 좀 좋은가. 우리가 잘해서 인민군대 원호도 크게 해보자구.》

영봉은 가슴이 무득해졌다. 비록 용해장을 떠나기는 했지만 쇠물을 끊이던 그 나날처럼 기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을 안고 함께 모태기고 힘을 합쳐가던 그 마음에 감동되었던것이다.

그러나 신통 지지하지는 못했다. 사실 그 일에는 아직도 파악이 없어 마음이 끌리지 않았던것이다.

그때 일을 말없이 더듬는 영봉에게는 그후 인차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을 더 많이 기를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아안던 일들이 의미심장한 뜻으로 안겨왔다.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것을 그 사람은 그때 벌써 심장으로 느끼고있을것이 아닐가.)

영봉은 래일 춘만을 만나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혹시 그 사람이 그때 말한대로 인민군대원호도 잘했을수 있다는 생각이 든것이다.

영봉은 설것이를 끝내고 들어오는 로친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래일 우리 집에 오겠하던가 아니면 나를 방목하는데로 나오라던가?》

《당신 낚시질하는데로 춘만아주머니가 찾아가겠답니다.》

《그럼 갑자기 낚시질생각이 났는가.》

《글쎄요. 아무튼 당신이 늘쌍 나가는 거기로 가겠답디다. 돌바위근처라던지... 꼭 그 단골장소로 가겠대요.》

로친은 이렇게 대답하며 얼굴에 알지 못할 웃음을 띄웠다.

《참, 모를 일이군.》

영봉은 영문을 몰라 혼자 중얼거렸다.

×

다음날 아침 로친은 별스레 서둘렀다.

독촉해서야 가져다주던 점심을 제가 먼저 싸들고 배낭을 찾아서 넣어주더니 고추장단지, 식초병도 내놓는다.

《이거 오늘 웬일이요?》

《춘만아주머니도 간다지 않아요.》

《원 제길, 만날 〈춘만아주머니〉 〈춘만아주머니〉...》

영봉은 눈을 흘기며 이렇게 말했지만 그와 함께 하루 낚시질을 할 생각으로 마음은 즐거웠다.

자리를 골라잡고 낚시대를 드리우니 해살이 퍼

저온다.

잔주름 하나 없는 대동강물은 반짝이기 시작했다. 다른날 같으면 긴장한 눈으로 감부기를 겨누며 생각을 집중했겠으나 오늘은 어쩐지 번거로웠다.

《그 사람이 정말 낚시질을 하려는가. 나를 방울산으로 끌어가지 못해 안달이나 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셈인가. 그러다가 나처럼 아주 미치면 어쩔셈인가.》

영봉은 사실 결과가 없는 자신이 미워났다. 고기잡이를 좀 한 날은 그런대로 발걸음이 가벼워도 잔고기에 진종일 시달림을 받다가 돌아가는 날은 매일부터 그만두겠다고 다짐을 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면서도 아침이면 또 배낭을 찾아메었다. 누구인가 자기를 이 길에서 끌어내려 염소를 기르게 해주었으면 하는 심정인데 이제는 촌만이 그 사람까지 오히려 여기로 온다니... 영봉은 모순된 감정을 안고 생각없이 앉아있다가는 뒤를 돌아보곤했다.

외파로 떨어져있는 방울산은 하얀 구름같은 염소무리가 여기저기 널린것이 멀리서도 보인다. 염소가르기를 대대적으로 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변해가는 모습이 확연하다. 낚시터에도 점점동업자들이 줄어들고 외톨이가 되는것을 영봉은 날마다 느끼지 않을수 없다. 침울한 마음으로 방울산을 일별하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감부기가 감박감박 숨박꼭질을 했다. 서둘러 낚시대를 들었지만 쫄렁- 빈낚시만 해빛에 반짝 떠오른다. 미끼를 떼운것이다. 줄을 당겨 다시 미끼를 끼우고 멀찍이 던져날기를 몇번 평양-남포행 려객선이 고동을 울리며 강북관으로 미끄러치듯 지나가는것을 바라보는데 등뒤에서 갑자기 염소우는 소리가 났다. 《매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영봉은 놀랐다. 하얀 염소무리가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염소무리를 앞세운 사람은 촌만이였다. 왕골로 엮은 농립모밀에서 둥그런 얼굴은 웃고있었다.

영봉이 손을 드니 그도 손을 흔들고 염소무리를 강변의 풀밭으로 헤쳐놓은후 성큼성큼 다가왔다.

《재미가 어떤가. 풍어기를 올리라나?》

촌만은 이렇게 말하며 낚시질구경꾼들이 흔히 그러하듯 물우에 등등 떠있는 밤색의 고기그물부터 주르르 건져보다가 실망한 기색이 떠돈다.

《아하, 이거 안되겠군. 빈구력이네그려.》

영봉은 낚시대를 짚지발에 걸여놓고 훌쩍 일어서며 촌만의 팔을 잡고 잔디밭으로 데려갔다.

《오늘은 웬일인가. 무슨 생각이 나서 여길 다왔나? 그래 낚시질이라도 다시 시작할셈인가.》

영봉이 이렇게 묻자 촌만은 지금껏 지부령대던 어조와는 달리 정색을 하며 말했다.

《말하지 않았나. 나는 낚시질엔 소질이 없다구. 보다싶이 방목을 왔네.》

《그럼 나를 만나자는건 그것때문이였나?》

《검사해서 방목도 하자는거네. 염소는 여러가지 풀을 먹여야 하거든. 산풀만 먹이는건 편식이지. 오늘은 여기서 들풀을 먹이며 자네 낚시질하는걸 구경도 하자는거야.》

염소기르기에 어지간히 박식가가 된 촌만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영봉은 그의 말에 수긍이 가면서도 한편 서운했다. 낚시질을 하면서 하루 즐겁게 보내자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염소를 기르자고 강권을 해서 결단성이 없는 이 샌님을 방울산으로 끌어가자는것도 아니란 말이지. 만나자는 촌만의 말에 무엇인가 기대를 가졌던 영봉은 실망을 느꼈다.

남의 기분따위는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않는 투박한 성미인 촌만이 갑자기 손을 쳐들며 떠들었다. 《아, 저것봐. 감부기가 보이지 않네.》

그리고는 달려가서 낚시대를 잡아챘다. 줄이 끊어질듯 활줄처럼 행기운다.

《절렀다-아.》

물에 뛰어들듯 덤비며 촌만은 무작정 잡아당긴다.

《술술 얼리라구. 멍어가 걸려들었네. 줄을 놓아주라구.》

영봉은 엉치를 들었다가 다시 주저앉으며 말했다.

촌만은 인차 지나친 흥분을 가라앉히며 당겼다 놓았다 하며 맥을 빼면서 끌어냈다. 등때기가 시커먼 팔뚝같은 메기였다. 둘은 마주보며 큰소리로 웃었다.

점심시간이 되자너럭바위우에 마주앉았다. 불멸에 제법 따듯해졌다. 촌만이는 인삼술까지 꺼냈다.

깨끗한 사기잔에 남실대는 연한 감색술이 인삼향기를 기분 좋게 풍기였다. 영봉이가 숨씨있게 쳐놓은 생선회가 입맛을 돋구었다.

송풍기소리가 요란한 용해장에서 말보다 눈짓 손짓이 먼저 통하던 그 습관대로 촌만이 영봉의 무릎을 건드리며 말했다.

《이 술은 사실 자네 로친네가 나한테 준것이야.》

《그건 무슨 소린가.》

《모르겠나? 자네를 교양해달라는거네. 이 강가에서 끌어내려 자기한테 돌아오게 말일세.》

《글쎄, 내 이상하다 했지. 그러니까 둘이서 싸고들었네그려.》

영봉이 웃으며 말하자 촌만이는 필쩍 놀라는척

하며 어깨를 철썩 쳤다.

《이 사람, 누구를 음모군으로 보는건가.》《하하하.》

둘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옛지기의 변함없는 우정과 흥취물이 따로없는 친근감을 느끼며 가슴이 후터워진 영봉은 문득 생각나는것이 있어 조용히 말했다. 《이보게, 하나 묻자구. 자네 나한테 말한적이 있지. 장군님께 편지를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던것말이네. 그래 어떻게 됐나?》

춘만은 잠시 말이 없었다. 해빛이 넘치는 하늘로 얼굴을 들고 생각에 잠기다가 입을 열었다.

《그랬지. 그렇지만 망설였네. 바쁘신 장군님께 오히려 지장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 아무튼 염소를 더 착실히 길러서 그이의 뜻을 진정으로 받들면 되는거지 다르게 있나.》

《...》

《그런데 일은 참... 우리 장군님께서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 짐짐승을 더 많이 온 나라가 달라붙어 기르라 하신 간곡하신 말씀을 전달받으며 나는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졌네. 어쩌면 그리도 우리 마음을 잘 아실가, 인민이 생각하고 바라는것을 그리도 잘 알고시고 정책을 펴나가실가. 정말 세상에 우리 장군님 같으신분은 없네.》춘만은 대동강가에 여기저기 널리어 파아란 풀을 뜯는 자기의 염소들을 바라보며 이윽도록 생각에 잠겼다.

영봉이도 깊이 감동되어 머리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우린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시며 더 잘살게 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장군님은 참으로 우리들의 친어버이이지.)

한편 춘만의 그때 생각을 적극 지지해주지 못한 자신이 후회되기도 했다.

대동강물위에 락조가 비끼자 영봉은 낚시도구를 거두었다. 춘만이도 《매매-》하고 염소들을 향해 정을 담은 목소리로 불렀다. 우두머리라고 여겨지는 제일 큰놈이 파란 풀밭위로 울려오는 그 목청을 듣더니 기다렸던듯 달려오고 그뒤로 줄레줄레 무리를 지어 따라선다.

《거 참 염소도 사람을 제법 따르네그러.》

《이를 말인가. 난 처음 염소가 감각이 무딘 짐승인줄 알았는데, 아닐세. 명물이야. 정을 주는 만큼 따르지.》

춘만은 열댓마리 실히 되는 염소가 제주위에 동그렇게 모여서자 영봉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 고르라구. 마음에 드는놈을.》

《무얼 말인가.》

《무얼 말이라니?. 래일부터 염소를 길러야지. 아직도 결심이 안셨나?》

《글쎄, 결심은 썼지만...》

영봉이 아직 영문을 몰라 어정쩡해서 얼버무리자 춘만이 시키면 눈섭을 모으며 바라보다가 말했다.

《차, 이 섣님이... 값을 내랴가 해서 그러나.》

그리고는 염소무리속에서 한놈 고삐를 잡고 끌었다. 뽕뽕한 젖통이 뒤다리사이에 드리웠는데 귀여운 새끼까지 두마리가 달려나왔다.

《자, 이게 어땠가, 2월에 첫 배를 낸것인데 새끼는 이제 젖이 떨어졌네. 저 새끼들도 가을에는 염지가 되네. 길러보라구.》

영봉은 생각도 못한 친구의 이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다른 염소와 달리 미리 고삐까지 매가지고 나온걸 보니 이미 작정을 하고 나온것이 분명한데 나는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는 그의 깊은 속을 알고구나 했던가고 영봉은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둘은 염소무리를 앞세우고 마을로 들어섰다. 갈림길에서 춘만은 염소목에 둘둘 감았던 고삐를 풀어서 영봉의 손에 쥐여주었다.

《이제 염소가 늘어나면 풀판도 늘어나야할터인데 우리 손이 가면 그만큼 보탬이 될게 아닌가. 그러니 방울산 골짜기마다 풀씨를 뿌리세.》

《제철소사람들도 펼쳐나선것 같던데.》

《물론 그들도 나섰지. 허지만 우리가 일을 맡아나서면 그만큼 그네들의 일손을 덜어줄게 아닌가. 아무튼 염소를 본때있게 길러 우리 군대원호도 크게 해보자구.》

《아무렴, 그렇게만 된다면 오죽이나 좋을라구.》

영봉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네는 아무때 봐야 속이 넓어. 이번에도 낚시대나 들고다니던 내가 또 졌군그래. 허허.》하고 무릅없이 그를 부둥켜안고싶은 심정이였다.

영봉이 고삐를 잡자 염소는 제무리를 한번 돌아보고는 순순히 따라섰다. 귀여운 새끼 두마리가 어미의 다리밑으로 감겨돌았다.

영봉은 쭈그러고앉아 염소의 목을 쓸어주며 물었다.

《이놈도 이름이 있겠지?》

《있구말구. <매매>지.》

《그거야 자네 염소 이름이 아닌가.》

《아니, 이젠 자네의 <매매>란 말이네. 자네가정을 쏘아부으면 말일세.》

영봉은 자기도 모르게 《매매-》하고 불러보았다.

염소는 귀를 쫑긋 세우며 영봉을 바라본다.

춘만이와 영봉은 그것이 신통하여 마주보며 껄껄 웃었다.

《래일아침 방울산으로 가겠네.》

영봉이 이렇게 말하며 집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데 울타리밖에 로진이 나와서서 바라본다. 멀리 방울산너머 서편 하늘에 저녁노을이 붉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보람찬 생활의 아름다움을 그 대로 펼쳐놓은 듯 싶었다. 영봉은 온몸에 넘쳐나

는 새로운 활력을 가슴 벌게 느끼었다. 그의 걸음새도 예없이 빨라졌다. 이제 방울산에서 새롭게 펼쳐질 생활이 그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리라 믿는 것을 굳게 믿기에...

범민족대회는 폐회를 선언하지 않는다

장원준

눈을 떠도 감아도
애오라지 통일! 통일만을 바라는
후더운 마음들이 여기 모였다
범민족대회장에

할머니를 못보고 자란
리산가정의 손동아들이 어른 된 조국-
크지 않은 땅을 남북으로 가르고
글배우는 아이들의 지도우에까지
분계선 두른곳을 가리켜줘야 하는
선생님들의 아픈 마음...
한사코 통일을 싫어하는 비렬한 무리
그 향락의 개기름이 흐르는 창문을 부시나니

오호!
그 아픈 고뇌를 입술 터지도록 깨물며
통일아 너
앉아 기다려만 오는것이 아니어서
대회장은 이러히도 격동하는것이 아니냐
오랜 세월 머리 세도록
너를 위해 바쳐온 그 순결한 량심들이
8월의 태양아래 끓고있나니

이 분렬은
남의 집 토벽에 난 금이 아니어서
김치맛이 그리울 이국의 동포들도 왔다
허나, 통일을 길러온 애국의 피땀은 대회장엔
왜냐! 눈 아픈 빈자리-
남녘겨레 위해 따로이 남겨둔...

대회는 빈자리를 남겨두었다
귀 강구면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는 땅
그 반나절길 못온 남녘의 겨레여
민족이 가는길 외세가 막고
애국의 뜻이 매국에 타매되는 현실을 부시라
불의를 버릴 정의의 칼 번뜩이는
뜨거운 손들이여

그렇더라
통일은 이 나라 소박한 농민들이
해를 두고 가꾸는 벼이삭으로 패이고
땅속 깊이에서 퍼올리는 석탄의 빛에도 어리어

정녕 통일은
어로공들 잡아올리는 살찐 물고기에도 어리고
수수한 처녀선반공
분초를 아껴 깎아내는 나사못에도 비껴흘러...

이제 더 이앞에
누구도 방관할수 없고 자족할수 없다
통일은 남녘 거리에서
청춘들이 던지는 화염병으로 불붙고
독재에 항거하는 날카로운 돌로 굳어져
한사코 통일을 싫어하는 비렬한 무리
그 향락의 개기름이 흐르는 창문을 부시나니

차라리 가를바엔
거짓과 진실을 하늘땅처럼 가르라!
내 조국 반신을 몽땅 절단하고
민족허리에 철가시를 둘러놓은 외세-
미제는 통일의 원수, 내 심장에 박힌 강도의 비
수다
미제를 몰아내고 반역도배 목자르고
자주통일 이루어

진정
우리엔겐 통일만이 살길이다
증명문없이도 쉬이 알아보는 우리 동포
사상과 정견 신앙과 제도의 차이 넘어
위대한 수령님 내놓으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아래
하나같이 굳게 뭉치여
오랜날 그렇듯 갈망해온 통일대업 성취하고
민족통성의 새 하늘 펼치자

오오, 통일대회 범민족대회여
고향이 둘 될수 없듯 조국도 둘이 될수 없거니
분렬의 콩크리트장벽 하루빨리 허물어버리고
북남 삼천리를 회합의 마당삼아
온 강토에 벽이 없는 대회를 열어
우리 겨레울고 웃을 그날까지
폐회를 선언하지 않는다
북남이 하나되는 그날까지
범민족대회는 폐회를 선언하지 않는다.

속사리 사람들

권태여

속사리

직동령의 대문
속사리
내 시첩의 첫머리에 새겨진
강원도 전선마을

전쟁은 전쟁이어서
지붕이 땅에 붙은 폐허속에도
속사리 사람들 화로불에 뿜여주던
뚝배기 토장맛을 어이 잊으랴

사단이 지나가고 련대가 목어간곳
삼년석달 이고장 너인들
병사들의 목달개 달아준 실과 천
화선천리 그 길이에 닿고도 남으리

전사한 아들의 소식을 감추며
저녁상 차려준 토굴집 어머니
깊은 밤 포탄상자 이고 떠날제
그 어머니의 모진 마음 병사들은 알았던가

밤마다 눈우에 더운물 떠들고
시린 발을 감추던 열두살 소녀들

그들을 꺼안고 봄을 비빈 전사들
그 어진 마음에 무슨 기약을 남겼던가

수놓아준 담배쌈지에서
몰래 넣어준 군감자에서
목메여 그려보던 속사리 사람들
전사들의 기억에서 떠난적없나니

아 전선길 큰길가에서
불타는 세월의 모진 시련을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던만
이 나라와 마음을 다 안고 산 속사리

오늘도 내 시첩의 글줄에 삼삼히 떠올라라
산천은 변해도 변함없는 모습들
불비내리던 그 시절에
피와 살을 나눈 혈연의 마음들이여

아 속사리 속사리
원쭉치던 그날의 정신으로 나를 떠밀어주는
병사들의 친정집
내 시첩의 뜨거운 추억이여

아기의 울음소리

전선으로
전선으로
밤길가던 병사들
문득 걸음 멈추었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갓난애기의 첫 울음소리에
저마다 귀를 강구네 속삭이네
사내애 울음소리라네

마을의 고요를 깨칠세라
노래없이 흐르던 대오

고향집 프락에라도 들어선듯
흐뭇이 웃음짓네

아 시련의 불바다우에도
삶의 꽃송이는 만발하는가
정다운 조국의 노래를 안고
병사들 행군길 다그쳐갔네

아기의 요람가에
불구름 가져주리라
가슴가슴에 메아리쳐오는
승리의 포성을 안고갔네

달뜨는 밤이면

달뜨는 밤이면
그 얼굴이 떠오르네
직동령 굽이굽이 탄약 이고 넘나들던
달래머리 처녀들 밝게 웃던 모습들

포연에 성긴 머리 손빛없으며
땀젖은 목수건 탕한적있었던가
제살 꼬집어 졸음 쫓으며
지새운 밤들을 꿈아본적 있었던가

삼년세월 고스란히
탄약상자 벗은적없는 처녀들
불비속에도 그친적없던 그 웃음
마음속에 떠오르는 밝은 달이며

전승의 축포오르던 날
난생처음 거울앞에 달래머리 없어보며
분침에 닿은 제나이 어느새 지나갔음을
남몰래 웃어넘긴 처녀들

피로 지킨 조국땅우에
아낌없이 바친 꽃시절
저물지 않는 인생의 거울이 되어
값높은 삶을 비쳐주나니

아 모진 세월 불비속에서
탄창을 채워주던 직동령 처녀들
오늘도 이 마음 전호가에 세워주네
영원한 그 웃음 저 달빛에 어려오네

불돌

눈보라 우는 새벽
길떠나는 전사들에게
불돌 하나씩 싸주었네
토굴집 주인어머니

눈보라 멈춰가라고
전사들의 신발을 감추며
구들을 덮혀준 어머니
굳이 떠나가는 전사들을 나무랐네

-이 어머니의 말 좀 들어주면 못쓴담
치마자락 눈굽에 대이며 말린 신 신겨줄제
전사들의 목소리도 갈리었네
-어머니

아. 엄동설한 눈길에
어머니의 그 마음 안고간 전사들
어머니의 사랑엔 겨울이 없음을
자옥마다 새기며 길을 줄였네

병사시절 나의 시첩

종이 한장 실 한오리
덜고만싶던 배낭속에
삼년세월 불비속을 지고다녔네
병사시절 나의 시첩

포연덮인 전호가에서
달리는 포차우에서
연필끝을 감쌀때 시를 썼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를

머리 흰 오늘에도 갈피번지면
추억의 대문을 열어주네
낮익은 사람들 정든 모습들
눈굽을 적시며 그려보네

직동령 밤길에 소발구 흔들릴세라
이부자리 덧깔아 부상병을 태워주던
속사리 로인의 그 정성에
내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삼켰던가

무너진 전호가에서
탄창을 채워주며 노래부르던
달래머리 처녀의 그 목소리 울려와
목갈라게 불러보는 전호속의 나의 노래여

자옥마다 불타는 땅을 밟으며
내 지나온 마을들에서
폭격에 부모없는 소녀의 울음소리
복수의 주먹을 부르짖게 하거니

잇었던 노래조차 되새겨주며
잇을번한 모습조차 깨우쳐주는
병사시절 나의 시첩이어

세월이 가도 덜어지지 않는 혈육의 정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지는 군민의 정
글줄마다에 어려와
내 못다 간 길을 이어주나니

못잊을 그날에 오늘을 세워보며
피로 헤쳐온 길 땀으로 다지며
강철의 령장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들어
군민성세의 위용을 펼쳐가리라

사선을 헤치며 부르던 노래
투쟁의 앞길에 승리의 날개삼아
병사의 의무를 다하는 그날에
내 시첩의 글줄에 종지부를 찍으리라

한 녀인과 병사들

서진명

1

이 땅에 사는 녀인들치고 조국의 초소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과 인연이 없는 녀인은 없을 것이다. 인민군대원호사업을 잘해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내가 만난 주인공 역시 그런 녀인들중의 한 사람이다. 자그마한 키에 몸매가 실직한 유귀진은 지배인경력만 해도 30년이 넘는 오랜 녀성일군이다.

하지만 그는 오늘도 젊은이들처럼 정력에 넘쳐 일하고있다.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수출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적성과를 올리고있는 함흥성천강피복공장의 들끓는 숨결이 때없이 울리는 전화기소리와 씩씩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는 지배인실에서 어떤 날은 오후 한껏, 또 어떤 날은 저물녘 시간을 리용하여 나는 유귀진동무와 비교적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공장 일군들도 여러명 만나보았다.

그리하여 나는 갓 스물 애젊던 시절부터 병사들과 꺾을수 없는 인연을 맺고 살아온 그의 어제와 오늘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었다. 또한 공장앞에 맡겨진 계획을 매해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우리공장-우리 초소》 관계를 맺고있는 초소의 병사들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으로부터 공장이 세번이나 감사를 받았으며 또 그자신도 인민군대원호사업을 잘해 장군님으로부터 그의 소행자료를 널리 선전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받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

취재수첩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써놓은 글을 다시 훑어보느라면 자연히 그가 세월의 물결에 흘러보내지 않고 지금껏 잊지 않고있는 추억의 파편들중 병사들과 관련된것이 그중 많다는 생각이 든다.

...전쟁의 포성은 한생 그의 결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인정 많고 어리무던한 남편을 잠간사이에 군복을 입은 병사로 되게 해주었다. 기적소리 목메이는 작별의 역두에서 유귀진은 자기도 전선으로 같이 가겠다고 땀을 써서 병사인 남편의 립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결혼식을 한지 1년도 채 못되는 스무살의 새각시, 그는 자기가 임신한 몸이라는것도 잊을 정도로 남편을 사랑했으며 오로지 그의 가슴에 넘치는것은 침략자들을 죽이는 결전장에서 남편과 운명을 같이할 그 한 생각뿐이었다.

남편은 그러는 그를 달래주었으며 차바퀴를 덜컹거리며 떠나는 군용렬차우에서 아이를 잘 키워달라, 승리하고 인차 돌아오겠다는 말을 부탁으로 남겼었다. 그날부터 유귀진에게는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모두 남편처럼 생각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적기의 폭격에 의해 집이 불타자 유귀진의 집식구들은 안변읍에서 5리 떨어져있는 옷골에 토굴집을 짓고 살았다. 푸른 숲이 무성한 옷골의 골짜기는 전선으로 가는 군용차들과 병사들이 적기의 폭격을 피하는 피신장소였으며 며칠씩 쉬여가는 휴식장소이기도 했다. 그가 사는 토굴집앞 행길로는 전선으로 가는 병사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었으며 그의 집은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병사들이 들렀다가근하는 숙박소였다. 집에 들린 병사들이 단잠을 자는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바쁘고 즐거운 시간이였다.

그는 출창 뛰여다니며 병사들의 목달개며 양말을 빨고 젖은 신발을 부뚜막에 말리웠으며 망질을 하고 밥을 짓느라고 더운 땀을 흘리곤했다.

어느날 그의 집에 들린 병사들속에는 감기로 몸이 불덩이같이 달아오른 힌 애어린 대원이 끼여있었다. 행군도중에 병을 만나 똑바로 치료도 받지 못한채 전우들의 부축을 받으며 가까스로 걸어온그 병사는 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만에야 혼수상태에 빠지고말았다. 유귀진은 의사를 데려다 치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산골을 먹인후 뜨끈하게 땀을 내게 하기도 하고 초약도 달여먹이고 찜질도 해주며 그야말로 온갖 지성을 다 기울였다. 열흘만에 병사는 병을 털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선으로 떠나는 날 그 병사는 유귀진을 보며 누님이 아니었다면 죽을뻔했다고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것이였다. 그 당시 그의 집에 들렀다가는 병사들치고 크나작으나 유귀진의 신세를 지지않은 병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기에 병사들은 물론 군관들까지도 나이와 직급에 관계없이 유귀진을 보고 누님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곤했으며 첫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그의 아들을 저마끔 안아주며 전선에서 애아버지를 만나면 고향소식을 전해주겠노라고 남편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가곤했다. 어쩌다 한가한 시간이 오면 그는 산골이를 돌아 멀리 남으로 뻗어간 전선길을 바라보며 승리의 날을, 군공을 세우고 돌아온 남편을 만나게 될 행복의 날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려보곤하였다.

이 땅에 전승의 아침이 밝아오기도전에 바로

그것을 위해 총탄 비발치는 전장에서 피흘리며 쓰러진 유명무명의 전사들속에는 그의 남편도 있었다. 청천벽력과도 같이 남편의 전사통지서가 온 그날 유귀진은 포성이 울려오는 남녘하늘가, 남편이 희생되었다는 그 락동강의 모래불로 마음 달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흘렸다.

허나 그는 다음날부터 전선으로 군량미를 날라가는 마을사람들의 대오속에 따라섰으며 집에 들렀다가는 병사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더 극진히 위해주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자란 아들 상호가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을 무렵이었다. 그때로 말하면 유귀진이 함흥피복공장에서 지배인사업을 하고있을때였다.

어느날 구역의 해당 일군으로부터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내용인즉 아들이 조선인민군대에 입대할것을 탄원했다는것이였다.

유귀진은 일순 놀랐으나 대견한 생각이 들었다. 철부지로만 생각되던 아들이 이제 다 자란것이다 세월은 살같이 빠르다고 하더니... 마음 한구석에는 저도 모르게 야속하고 허전한 생각이 스며들었다.

누구보다 어머니를 끔찍이 위해주던 아들이었다.

불현듯 그의 눈앞에는 얼마전에 있던 일이 떠올랐다. 하루는 밤늦어 집에 들어가도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 밥을 지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유귀진은 아들이 외할머니네 집에 갔나보다 하고 생각하며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아들은 여전히 집에 오지를 않았다. (할머니의 집이 제 집보다 그렇게 좋은가. 애두, 어머니생각은 안하구.) 그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였었다. 나흘이 지난 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녀의사는 아들이 며칠전에 뜻밖의 사고로 다쳤었는데 이제는 거의 완쾌되어가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것이였다.

《아니, 뭐라고요?! 난 그런줄도 모르고... 그런데 왜 그 소식을 인제야 알려줍니까?》

유귀진은 놀란 가슴을 도무지 진정할수 없었다. 그러자 녀의사는 《지배인동지는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셨어요.》하고 감동에 젖은 어조로 다음과 같은 사연을 들려주는것이였다. 며칠전 녀의사는 소년의 상처를 응급처치한후 부모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었었다. 며칠간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것만큼 필요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였다. 현대 소년은 《내가 다친걸 알면 어머니가 또 우실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공장일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제 상처가 나을 때까지 제발 어머니에게만은 알려주지 말아주십시오.》하고 통사정을 들이대더라는것이였다. 녀의사 역시 자식을 가진 어머니였다. 그는 흠어머니를 생각하는 소

년의 가룩한 마음에 감동되어 그만 병원입원수속을 뒤로 미루기까지 하며 소년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것이였다.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주던 아들이 어머니와 한마디의 의논도 없이 군사복무를 할 생각을 하다니? 그래서 야속했고 섭섭하였다.

허나 유귀진은 감성적인 생각에만 치우칠 나약한 어머니는 아니였다.

한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병사의 위치에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하는 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룩한것인가. 병사의 아들은 병사의 아들답게 그전날 남편이 군복을 입고 갑자기 그의 곁을 떠나갔듯이 바로 그렇게 초소로 떠나가려 하는것이였다.

그는 전화를 걸어온 그 일군에게 《그애는 병사의 아들입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찬성입니다.》라고 말해주었다.

역구내는 초소로 떠나는 신입병사들과 바라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저를 욱하셨지요. 어머니와 한마디의 의논도 없이 군대에 나갈 결심을 했다고...》빨간령장이 빛나는 보위색군복을 입어서인지 하루사이에 몰라보게 성장한듯싶은 신입병사 상호가 이렇게 말 꼭지를 뺐다.

《그랬댜.》

유귀진은 솔직히 긍정했다. 문득 그의 눈앞에는 아득히 세월이 뒤전으로 흘러가버린듯싶었던 1950년 여름 안변역구내에서 바래주던 군복을 입은 남편의 모습이 어려왔다. 《집에 홀로 계시 어머니생각을 제가 왜 안했겠어요.》

상호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서야 그는 자기앞에 서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사사로운 감정때문에 제가 응석등이로 집에 남아있고 어머니 또한 나를 품안아주기만 한다면 지금은 좋을듯싶지만 후날에는 어머니가 이 못난 아들때문에 후회하게 될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구만요. 그래서 군에 먼저 찾아갔댜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내 마음을 리해해주리라 믿고 서말이에요.》

유귀진은 갑자기 이글거리는 불앞에 서기라도 한듯 가슴이 혼 혼해지는것을 느꼈다.

《제 감정을 스스로 택한데 대해 어머니는 기쁘게 생각한다.》

그는 눈굽에 핑그르 고이는 맑은 이슬을 아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우정 눈을 습벅거리었다. 기적소리가 울리고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유귀진은 환영곡소리, 서로 주고받는 말소리가 벽적 울리는 속에서도 승강대에 선 아들이 손을 흔들며 웨치는 말을 새겨들었다. 《편지를 자주 하겠어요. 몸조심하세요.》

그날밤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그는 눈물로 긴 밤을 지새우다싶이 하였다. 아들은 쉽게 떠나갔

지만 아들이 떠난것으로 하여 그의 가슴에 생긴 그 크나큰 공백을 좀처럼 메워버릴수가 없었던것이다. 남편이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떠난것이 었 그제 일같이 생각되는 그였다.

그런데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군복을 입고 떠난것이였다.

본계선너머에서 화약내를 풍기며 이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원쑤놈들이 막 증오스러웠다. 유귀진은 그 이튿날 아침 공장에 출근하여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자기 사업을 하였다. 저녁 늦어 사무실안이 조용해지자 그는 또 아들생각을 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본 사람은 나이지숙한 녀성당비서였다. 유귀진은 말없이 책상을 마주하고있는 당비서에게 청갈린 음성으로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비서동무, 난 어제밤 상호 아버지를 만났답니다. 마음속으로말이에요. 그런데 글썽 상호 아버지 날 만나자마자 막 꾸짖는게 아니겠나요.

<당신은 아직도 그때 나를 군대에 내보낸걸 후회하고있는게 아니요?> 하고말이에요. 그래 내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고 반문했더니 그이는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요? 상호가 내가 잡았던 총을 잡고 초소를 지키게 되었으니 이제는 한시름 놓이는것 같소. 군복을 입은 상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요. 난 정말 기쁘요.>하고 말하더군요. 마음속으로라도 그이가 나타나 나를 깨우쳐주는것이 얼마나 힘이 되던지...》

《지배인동무가 자신을 다잡고 나서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힘을 내어 더 많은 일을 하자요. 그것이 바로 조국을 위해 일찌기 떠나간 이들과 자식을 위해 몇몇한 일이고 원쑤들을 죽이는 일이 아니겠나요.》

이렇게 말하는 당비서의 눈굽에도 뜨거운것이 번쩍이는것이였다.

그런 일이 있은후부터 유귀진의 가슴속에는 병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강렬히 자리잡았다. 병사들의 모습은 총을 잡은 남편과 나란히 서있는 아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혁명의 전초선을 지켜선 병사들을 자신의 살붙이처럼 생각하는 마음은 이런 나날을 거쳐 그의 가슴속에 더욱 뿌리깊이 심어졌던것이다.

2

한 공장의 생산을 책임진 지배인에게 한달치고 어느 하루도 한가한 날이 있을수 없지만 그달 생산을 결속해야 하는 월말처럼 바쁠 때는 없다.

10월계획을 끝내기 위해 온 공장이 들끓어번지던 월말의 어느 한 저녁 유귀진이 당비서방에 나타났다. 당비서와 마주앉은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안포중대를 현지지도하신 기념일이 며칠 안남았는데 우리 초소를 찾아갈 준비를 다그쳐야

하지 않겠는가고 찾아온 용건을 말하는것이였다. 당비서는 조용한 웃음을 눈가에 지으며 이렇게 우선우선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러지 않아도 지배인동무와 그 문제를 토론하려고 참입니다. 난 지배인동무가 일이 바빠 그 일을 감감히 잊고있는줄 알았했는데 공연한 걱정을 했었구만요.》

《잇다니요.》

유귀진은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 땅에 행복한 나날이 계속된다고 병사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병사들을 잊는다는것은 개인적으로는 남편과 아들을 잊는다는것이고 공민적으로는 조국의 귀중함을 잊는다는것이지요. 더우기 항시적으로 전쟁의 비구름을 머리에 이고사는 오늘의 정세하에서 병사들을 더욱 잊을수 없지요.》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말인것만큼.》

당비서는 잠시 동안을 두고나서 말을 계속했다.

《지배인동무는 생산만 냅다 미십시오. 원호물자와 예술소조공연문제는 제가 맡아하겠습니다.》

유귀진은 의외라는듯 눈을 크게 떴다.

《무엇때문에 그 일을 당비서동무가 혼자 맡아합니까. 우리 종업원들중에 병사들을 위해주는 일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생각을 하면 더 힘이 나할것입니다. 저녁에 필요한 사람들과 마주앉아 그 준비사업을 같이 토론합시다.》

《지배인동무가 그렇게 나서주니 고맙습니다.》

당비서가 진심으로 사례를 하자 유귀진은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면박을 주었다.

《지배인은 뭐 생산만 아는 사람인줄 압니까. 원, 당비서동무두.》

두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즐겁게 웃었다.

그날저녁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직장장들과 과장들의 참가하에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결국 월말 전투와 군부대를 방문할 준비사업을 동시에 밀고 나가게 된셈이였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저물녘이였다. 일종화가 끝난뒤 유귀진은 과장 홍동무를 찾아 그간 원호물자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원호물자는 충분히 준비된것 같습니다.》

홍동무는 흡족한 어조로 말하며 길쭉한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실로 80여가지를 헤아리는 원호물자의 항목들중에는 내의류와 식기류, 털조끼와 보초병솜옷, 식당위생복과 위장망에 이르기까지 없는것이 없었다. 백마디 말보다 단 한번과 행동이 낫다고 지배인과 당비서, 기사장을 비롯한 일꾼들이 병사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원호물자를 먼저 마련한데 크게 감동된 종업원들의 비등된 열성으로 하여 계획했던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원호물자가 확보되었던것이다. 했으나 유귀진

지배인은 만족할것이 못된다는듯 한마디 말도 없이 원호물자를 적은 종이장을 벌컥거리기만 하는 것이었다.

방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엇인가 꼭 빠진 것이 있는것 같은데...》

오랜 침묵끝에 유귀진지배인이 한 말이였다.

《?!...》

홍동무는 생각을 굴리고 또 굴려보았다. 주요 명절들과 기념일들을 계기로 초소를 찾아가기 앞서 지배인이 원호물자의 가지수와 수량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군했다는것을 그도 잘 알고있었다. 했으므로 그도 이번에는 원호물자를 갖추는데 만전을 가하느라고 남다른 원심을 썼던것이다. 오래간만에 아들들이 사는 집에 찾아온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병실과 식당에도 들러보고 남새온실도 돌아보면서 부족한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풀어주는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지배인이였다. 그는 지배인의 그 세심하고 뜨거운 지성이 그대로 담겨지게 원호물자항목을 전에 비해 다섯가지나 더 늘군데 대해 내심 흡족하게 생각하고있던 참이였다. 그런데 지배인은 무엇인가 빠진것이 없는가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지 않는가?

《내 생각 같아서는》

유귀진은 잠시 동안을 두고나서 말을 이었다.

《이번에 가져가는 세면주머니에 바늘을 꽂은 실토리를 하나씩 더 넣어주는것이 좋을것 같애요.

병사들이 목달개나 단추를 달자고 해도 꼭 필요한것이 실토리이지만 관심밖에 두는것도 바로 그러지요. 지난번 초소에 갔을 때 병실에 들러보니 실토리가 없는 병사동무들이 더러 있더군요.》

《제가 그만 그런것까지는 미처...》

홍동무는 가슴이 몽클해지는것을 느꼈다. 병사들을 위해주는 마음은 지배인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속으로 은근히 자부하고있는 그였다. 하지만 지배인처럼 작은것에도 큰 사랑을 담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것이다.

그무렵 지배인실에서는 밤마다 손풍금소리와 노래소리가 울려나군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종업원들속에서는 지배인이 실마 예술소조원이야 되었겠는가 옆방에서 울려나는 소리를 잘못 들었겠지 등 여러가지 말이 오가기 시작했다. 얼마 안있어 이러한 추측은 문화회관 관장 김동무에 의해 그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다. 일인즉 이렇게 된것이였다.

어느날 낮결에 김동무는 공장마당에서 지배인과 마주쳤다. 김동무는 인사를 하며 그냥 지나치려는데 지배인이 불러세웠다.

《예술소조공연준비가 잘되나요?》

지배인의 새삼스러운 물음에 그는 열결에 《예》하고 어정쩡한 대답을 하고말았다.

《그런데 왜 난 찾지 않아요?》

이것은 또한 놀라운 질문이 아닐수 없었다. 김

동무는 지배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분명 룡담을 하는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짐짓 정색한 어조로 말했다.

《지배인동지야 바쁘데 어떻게...》

《바쁘다고 할 일을 안하면 되겠나요. 공연도 다 군대동무들을 위한 일인데. 더우기 이번에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그곳 초소를 찾아주신 현 지지도날을 기념해 병사동무들을 찾아가는데 지배인이라고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되겠나요. 관장동무가 반대없다면 이번엔 나도 <수령님 몸가 까이 모시고싶어> 이 노래를 가지고 한종목 출연하고싶구만요.》

《정말입니까, 지배인동지.》

김동무의 눈은 바람을 맞은 숯불처럼 불타올랐다. 《좋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녀성독창이 없어 은근히 걱정했었는데...》

김동무는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그런즉 지배인에 의하여 원호물자가 한점 더 보충되었듯이 공연종목도 한종목 더 늘어나게 된셈이였다.

유귀진지배인이 이번 초소방문시 노래제목까지 내며 독창을 부르겠다고 자청해나선데는 그럴만한 깊은 사연이 있었다.

성천강피복공장으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의 손길에 의해 이 땅에 무수히 태어난 그런 복받은 공장들중의 하나이다. 유귀진 역시 당의 신임에 의하여 이 공장 초대지배인으로 오늘 이때도록 일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흥시를 현지지도하고 계시던 때에 있는 일이다.

멀리 떨어져있던 딸이 아버지품에 안기고픈 심정이라 해야 할는지 자나깨나 그리웁던 위대한 수령님을 멀리서라도 한번 뵈웠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안고 사무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있던 그는 어느날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꿈같은 행복에 울고웃는 그를 한품에 안아주시며 큰 규모의 피복공장을 새로 꾸리느라 수고한다고, 일 잘하는 일군이라고 치하해주시며 공장이 인차 조업할수 있게 수백대의 재봉기와 특수설비, 천여명의 로력과 운수기재 등 부족되던 모든 애로를 단꺼번에 다 풀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그후에도 성천강피복공장이 해마다 년간계획을 넘쳐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자신의 존함으로 된 표창장을 보내주시였고 여섯차례에 걸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의 공동훈회우승기를 받는 영광을 지니도록 배려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손길을 떠나 생각조차 할수 없는 영광의 공장에서 지배인으로 일하고있는 유귀진의 가슴속에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산처럼 쌓이고 덧쌓이는 간절한 소원은 어버이수령님을 공장에 한번 모시는 것이였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이 7월의 큰 슬픔을 당하게 될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아니

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절대로 가지지 않으셨다. 비개인 하늘이 변함없이 맑고 푸르듯이 우리 인민의 마음속 하늘가에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한 태양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도 가슴속에 안고사는 그 소원을 더 불타게하는 계기가 생겼으니 그것은 성천강피복공장과 우리 초소로 이어져있는 그 해안포중대가 이제 며칠 안되어 현지도도기념일을 맞게 된것이였다.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수령님을 다시 뵈옵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어찌 그 해안포중대병사들뿐이겠는가. 그는 천길지심속에서 솟구쳐오르는 샘물처럼 가슴속에 묻어둘래야 묻어둘수 없는 그 강렬한 그리움과 절절한 소원을 노래에 담아서라도 터놓고싶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도날을 기념하고있는 포중대는 자기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찾아온 성천강피복공장동무들로 하여 더욱 흥성거리였다. 여러가지 원호물자를 받아드는 병사들의 감격은 끝이 없었다. 특히 세면주머니에 들어있는 실토리는 병사들의 대환영을 받았다.

《그러지 않아도 실토리가 하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었는데...》

애어린 한 신입병사는 너무 좋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포중대병사들과 성천강피복공장 동무들과의 련환공연은 중대마당에서 진행되였다. 예술소조공연이 한창 열을 올릴 때였다.

《다음은 녀성독창 <수령님 몸가까이 모시고싶어> 성천강피복공장 지배인 유귀진동지가 출연하겠습니다.》

소개가 끝나기가 바쁘게 열화같은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마당을 둘러싼 푸른 숲도 설레이고 멀리 바라다보이는 동해의 푸른 물결도 조용히 일렁이고있었다.

언제면 수령님 다시 뵈올가
오셨다 가신 날엔 더욱 간절해
긴긴밤 위훈으로 지새워가며
자애론 그영상 그리는 마음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열화같은 흥모의 정이 담긴 절절한 노래소리는 참가자 모두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수령님께서 포중대를 찾아주시였던 영광의 그날을 그려보는 병사들과 성천강피복공장 사람들의 눈굽에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것이 어리였다.

아, 자애로운 아버지 우리 수령님을 다시 뵈올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것인가. 그날 유귀진이네들이 흘린 눈물은 위대한 수령님을 영영 다시 뵈올수 없다는 슬픔에서 흘린 눈물이 아니였다. 그 눈물은 예오늘 변함없이 병사들과 성천강피복공장종업원들 아니, 온 나라 인민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에 복받치

는 눈물이였으며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어나갈 불같은 맹세의 눈물이였다.

3

성천강피복공장에서 우리 초소를 방문하고 돌아온지 며칠 안되는 어느날이였다. 유귀진이 병아리와 토끼새끼를 사들고 집에 들어서는것을 띄여보자 머느리 김순녀는 눈을 크게 떴다. 공장일에만 전심전력할뿐 가정살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시어머니가 농민시장에 들러 장을 봐왔다는것도 놀랍거니와 병아리를 적으만치 10마리, 토끼새끼를 20마리씩이나 사들고 온것 또한 경이적인 일이었던것이다.

《한위 남들이 기른것만 사다 쓰겠나. 우리도 한번 품을 들여 길러보자구.》

유귀진이 가족들에겐 한 말은 이것이 다였다.

그리하여 유귀진의 집 한귀통이에는 굵기야 닭 우리와 토끼우리가 생겨났다. 격식없는 기족모임이 열리고 매 식구들에게 분공이 차례졌다. 집에서 놓고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는것만큼 유귀진은 물론 아들과 머느리, 손자, 손녀 그 누구도 례외로 될수 없었다. 일지에는 일별당번이 적혀지고 모이주는 시간도 정해졌다. 하루 일과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마끔 동홍산에 들려 먹이풀을 뜯어왔으며 당번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먹이를 주는 시간을 어기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자원적으로 맡아하군했다.

이른새벽 조반전과 저녁늦어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가족들을 돌아보며 먹이를 주군하는것이 유귀진에게 어길수 없는 일과로 되였다. 주에 한번씩 가축기르기정형을 총화하군했는데 그 모임역시 유귀진자신이 집행하군하였다. 이런 관심속에 낱과 달이 바뀌여 처음 가져왔을 때는 어른주먹만하던것들이 어미닭, 어미토끼로 자라게 되였다.

어느날 그의 집으로 살발은 친척이 찾아왔다.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유귀진이었다. 했으나 머느리가 닭을 한마리 잡자고했을 때 안된다고 단한마디로 거절한 사람도 그였다.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잘 대접하군하던 시어머니답지 않은 이 행동은 머느리를 저으기 놀라게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손주의 생일을 하루 앞둔 저녁이였다. 이번에는 손녀가 할머니무릎에 매달리며 닭을 한마리 잡아 남동생을 기쁘게 해주자고 청을 들이냈다. 했더니 유귀진은 《집에서 기르는 닭을 꼭 잡아야 되겠느냐. 나도 다 생각이 있다.》하고 그 청을 종내 물리쳐버리는것이였다. 자기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군하던 할머니의 이 류다른 행동은 손녀의 마음을 앵돌아지게 했으며 온가족들을 어리뻑하게 하였다. 무엇때문에

그가 집에서 기르는 닭을 그리도 귀해하는지 알 수 없었던것이다. 그 수수께끼는 건군절을 며칠 앞둔 저녁에야 풀려났다.

어느날 저녁 유귀진은 방안가득 둘러앉은 식구들을 둘러보며 꼭진한 어조로 말하였다.

《지난해 4.25명절을 계기로 병사동무들을 찾아갔을 때에 있는 일이다. 나를 둘러싸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능금불의 애된 상등병병사를 보고 생일이 언제가고 물었더니 바로 그날이라고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좋지 않더구나. 내가 그만 우리 초소동무들에게 어머니로 받들려 살면서도 생일을 쇠는 동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갔었으니 말이다. 내가 <상등병동무생일이 오늘인줄 알았으면 뭘 좀 따로 준비해가지고 올걸 그랬구만.> 하고 아쉬워했더니 글썽 그 상등병동무는 생일인 동무가 자기말고도 여섯명이나 더 있다고 하면서 중대에서 자기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었으니 날더러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그 날에 있는 일이 늘 가슴에 걸리더구나. 물론 집에서 힘들게 키우지 않고 필요한 때 몇마리 사가지고 가도 되겠지만 병사동무들에게 가지고 가는 생일 음식을 우리 가족이 지성을 다해 마련하고싶은 생각이 들어 이제껏 그것들을 키워온거다. 이제 며칠 안있어 우리 초소를 찾아가겠는데 집에서 키운 닭과 토끼를 다 가져가는데 어떻겠느냐.》

《어머니두, 그거야 뭐 물으실게 있나요. 웅당 그렇게 해야지요.》

머느리가 적극 지지해나섰다. 아들은 물론 손주까지도... 그런데 말손녀 진옥이만은 할머니의 말이 잘 납득이 안되는지 불만을 터놓았다.

《할머니두, 군대아저씨들이 아무리 귀중해도 우리 집 식구와 친척보다 더 중하냐.》

《에그, 저게 언제 철이 들겠는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구동성으로 나무래도 진옥은 입을 꼭 다물고 앵돌아진 마음을 풀려 하지 않았다.

유귀진은 비록 이제 겨우 열다섯살 철부지애지만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것이 여간 섭섭하지 않았다. 언제든 말손녀의 그 짧은 생각을 바로잡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던 마음이 얼마간 열려지는듯싶었다.

그 이튿날 그 말손녀가 할머니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집에 놀러왔던 친척이 낮차로 떠나므로 점심시간에 집에 꼭 들어와달라는 제 어머니의 편지를 가지고...

유귀진은 손녀와 나란히 집으로 향했다. 비구름이 낮게 드리운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더니 뇌성벽력이 울렸다. 때 이른 봄우뢰였다. 굵은 비방울이 툭툭 떨어져내렸다. 길을 오가던 사람들이 어깨를 움츠리고 뛰어들었다.

유귀진은 파들과들 떠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갔다. 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

《할머니, 뛰자요. 벼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없다. 천천히 걸자꾸나. 그까짓것, 비를 좀 맞으면 뭐라니. 저우에 피뢰침이 있으니 안심해라.》

유귀진은 길옆에 줄주런이 서있는 고층건물우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피뢰침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그러던 그는 손녀에게 그피뢰침을 가리키며 말했다.

《애야, 군대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저 지붕우에 있는 피뢰침과도 같단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병사들은 벼락을 막는 저 피뢰침처럼 원썬들이 쏘아대는 총탄을 한몸으로 다 막으며 우리 행복을 지켜준단다. 그래서 병사란 말은 조국이란 말과 언제나 가지런히 놓이군한단다. 그런 병사들한테 우리가 아낄것이 뭐겠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리해가 되느냐.》

유귀진은 이렇게 말하며 손녀를 기대가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진옥은 류달리 까만 눈을 깜빡이며 무엇인가 잠시 생각을 더듬더니 그만에야 얼굴을 활짝 붉히는것이였다.

《할머니, 내 생각이 짧았었어요. 병사로 싸우다 희생된 할아버지와 병사였던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했는데... 할머니를 노엽힌 날 용서해주세요.》

《용서까지야 뭘, 네가 그렇게 리해해주니 이 할머니는 기쁘구나.》

그러는 유귀진의 얼굴은 십년이나 젊어진듯싶었다.

경사로온 건군절날 아침 유귀진은 공장사람들과 함께 우리 초소로 찾아갔다.

고향에서 친부모, 친누이들이 찾아온듯 온 중대병사들이 기쁨으로 설렘었다. 공장에서 준비해 가지고 온 지성어린 원호물자를 받아안은 병사들의 감격은 컸다.

더우기 생일상을 더욱 푸짐하게 하며 일곱명의 병사들앞에 하나씩 놓인 통닭들은 그 당사자들은 물론 온 중대병사들의 눈굽을 뜨겁게 하였다.

그한마리 한마리의 통닭에서 고향집어머니만이 줄수있는 사랑을 느꼈던것이다. 목이 메여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하는 병사들과 군관들앞에서 유귀진지배인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터놓았다.

《이러지들 마십시오. 병사동무들이 나를 어머니라 부를 때면 정말 어깨가 무거워지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랑하시는 병사들앞에서 어머니구실을 하자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뿐입니다.》

유귀진지배인은 그후에도 우리 초소에 대한 공장적인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여러 기회를 리용하여 집에서 키운 두마리의 돼지와 네마리의 염

소, 수백수천킬레에 달하는 숨버선과 장갑, 속내의들을 병사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렇듯 그가 한 모든 일은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었으며 명예와 공명을 바라서 한 일도 아니었다. 다만 병사들을 친혈육처럼 위해주고 싶은 진정에서부터 한 일이었다. 한데 인민군대원호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그의 소행자료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고될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95년 3월 6일 유귀진동무에 대해 친히 료해해보시고 친필로 그를 널리 소개선전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려를 전달받는 날 유귀진은 연락에 나서서 목메인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정에서 어머니로 불리우는 녀성들은 마땅히 병사들에게서도 어머니로 불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라야 어디서 군사복무를 하든 우리 병사들은 고향집어머니의 사랑을 몸가까이 느끼며 용기백배해 조국보위초소를 더욱 철벽으로 지키게 될것입니다. 연락에 나선 이 순간

에도 저의 눈앞에는 찬비 내리는 초소를 지켜서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해 원쑤들과 총구를 맞대고 서있겠습니까. 우리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칠 병사들을 위해 크게 한 일도 없이 오늘 이렇게 분에 넘치는 영광을 지니게 되니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습니다. 저는 장군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신임과 배려를 병사들을 더 극진히 도와주라는 당부로 받아안고 앞으로 병사들을 친혈육처럼 잘 도와주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유귀진동무는 그날에 다진 결의대로 오늘날도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공장앞에 맡겨진 월별계획을 넘쳐수행하면서 인민군대원호사업에서도 련일 혁신적성과를 올리고있다.

하기에 내가 쓰고있는 이 글 역시 오늘로 끝낼 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한다. 아마도 그것은 앞으로 끝없이 이어질 나날이 한 녀인과 병사들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질 그런 나날로 되리라는 확신때문일것이다.

함께 가고싶다

-범민족대회장을 나서며-

리호근

이 길로 우리모두 함께 가고싶다
저기 백두산에 올라 천고수림 굽어보며
량강 들쭉술에 거나하게 취해도 보며
옥구술 고인 저 금강산 옥류동에서
시원스레 손발도 씻고서

이 길로 우리모두 함께 가고싶다
또 박연폭포의 장쾌함도 안아보며
남해 한끝까지
거기 제주도 서귀포를 지나
한나산 백록담에 올라 유채꽃도 꺾어들고

이 길로 우리모두 함께 가고싶다
평양랭면맛에 서울깍두기맛도 보며
동서팔방 내 나라 삼천리 이 땅
반세기도 지난 나날 우리 못가본
내 땅 그 모든곳 끌고루 다다르며 다니고싶다

아, 가고싶다 우리모두 함께 가고싶다
가다가 향기질은 강계 산꿀도 맛보고
목마르면 호남샘물 표주박에 떠마셔보며
가다가 밤이 되면 정방산이나
춘향도령 지금도 있는듯한 《남원》땅에서 쉬고

강계산꿀 호남샘물에 우리 입술 적시일 때
이날을 못보고 간 우리 겨레들만은 잊지 말자
그들과 더불어 진도아리랑 들으며 울어도 보고
그들과 더불어 봉산탈춤 보며 웃어도 보며
걸어걸어 그들의 뒤편까지 우리 함께 가려니

천지사방 삼천리 내 땅!
그 어떤 수속도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다닐
아, 그 차표는 우리의 통일!
그 통일을 위해 오늘은 우리모두 함께 가자
범민족대회가 펼쳐준 통일성전의 그 돌격로로!

저고리

-한 재일본조선인 녀학생의 수기-

강성일

금년 가을에 《마이니찌신봉》사의 주최로 제3 X차 전국대학생 영어웅변대회(스튜던트 스피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영어강좌장 선생님을 찾아가 거기에 참가할 의향을 비쳤더니 동무의 실력이면 한번 해볼만하니 준비를 잘하여 조선대학교의 명예를 떨쳐보라고 격려해주는 것이었다.

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영어교사인 강좌장 선생님의 지지까지 받고보니 더욱 신심이 굳어졌다. 이미 여러번 영어웅변대회의 심사원으로 천거된 전적이 있는 선생님은 원고작성으로부터 그것을 심사측에 제출하는 실무적문제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조언을 주었다.

나는 역대 영어웅변대회자료들을 빈틈없이 조사연구하기 시작했다. 우승자들의 경력과 원고를 다 조사하고나서 나는 웅변의 주제로서는 청년과 인생, 조국과 청춘, 오늘과 21세기, 여성과 사회, 사랑과 리상 등의 가치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절실한 문제를 선택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주제선택이 확정되지 않아 원고작성이 진척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자나깨나 골머리를 앓았다. 어떤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생활적이고 철학적이면서도 남들이 다치지 못한 독특한 나의 얼굴이 있는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나의 얼굴이란... 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재일조선청년, 대학생 그리고 여성... 그렇다면... 그렇다면 무엇으로...

밤깊도록 책상에 마주앉아 속을 태우는데 갑자기 전화종이 울렸다. 나와 자매간이나 다름없이 지내는 력사지리학부 력사과 학생인 일화한테서 온 전화였다. 그도 내가 영어웅변대회에 나간다는데 대하여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터였다.

《언니, 그 웅변의 주제말예요. 내 좀 생각해보았는데 언니, 저고리에 갖든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어때요?》

(저고리? 조선녀성과 저고리...)

《글쎄, 그런데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시대와 세계, 청춘과 리상을 놓고 열변을 토하는 마당에서 저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게 어딘가 좀 세속적인 느낌을 주지나 않을까?》

그러자 이어 확신에 넘친 일화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아니예요. 언니, 민족의상에 불과한 저고리이지만 평범한 세태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자각과 여성의 존엄을 두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 생각해 보세요. 저고리를 떠나서 조선녀성에 대한 표상을 가질 수 있어요? 더우기 이 어지러운 일본땅에서 말이에요. 정말 저고리야말로 얼룩덜룩한 자본주의 사회의 혼잡속에서도 변함 없는 민족의 넋과 슬기 그리고 조선녀성의 절개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 들어요? 언니 우리의 인연도 저고리에서 시작됐지요?》

그의 목소리는 저으기 흥분되어 있었다.

《그래, 저고리에서 시작되었지. 저고리... 일화, 고마워. 가만, 좀 생각해 보자꾸나. 아니 확실히 무엇인가 잡힐 듯해.》

《언니, 그럼 더 방해하지 않겠어요.》

그는 전화를 놓았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였다.

(애두 참, 여직 자지도 않고...)

저고리... 저고리... 그랬다. 우리의 인연은 저고리에서 시작되었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새로운 인생관도 새로운 삶도 이 저고리에서 시작되었었다. 저고리, 그래. 이 저고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상념에 잠긴 나의 눈앞에 일화를 처음 만났던 3년전 그날이 어제런 듯 삼삼히 떠올랐다.

내가 조선대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안되는 어느 가을날이었다. 나는 교외에 있는 절간에 구경나갔다가 기분이 등 떠서 돌아오고 있었다. 청신한 가을날의 하늘가로 울려 퍼지는 못새들의 우짖음도 나를 축복하는 노래소리처럼 들렸고 산기슭에 피고지는 이름모를 꽃들도 나를 향해 반기는 듯싶어 마냥 즐겁기만 하였다. 낮에 절간에서 만났던 외국인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생각할수록 흐뭇해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수백년 력사의 풍운이 깃든 고색창연한 절간의 불상들과 불탑들을 돌아보며 고적에 대한 감상을 부인과 영어로 이야기하던 관광객차림의 외국인이 나에게 서투른 일본말로 이 절간의 건립년대와 그 당시 일본의 정국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나는 주저없이 당시의 국내형편과 이 절간의 건립동기, 이 절간의 력대주지들에 대하여 아는 것 설명해주었다.

그런데 나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내 입과 남편의 얼굴만을 번갈아보는 그의 부인의 멍한 시선과 막연한 거동에서 보다 친절을 베풀고 싶은 호의가 동하여 영어로 다시 설명해주었다. 그러자 눈이 휘둥그레진 그 외국인은 탄성을 지르며 나를 파찬했고 그 부인은 너무도 좋아서

《생큐》를 런발했다. 나중에는 나를 자기들의 가운데 세워놓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었는데 사진을 뽑아보니 절간주위의 단풍잎 하나가 내 저고리 앞섶에 혼장처럼 달려있어 그 외국인부부는 선의에 대하여 자연이 베푼 표창이라고 떠들어댔다.

여기가 외진 절간이 아니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일 광경이었을가. 동갑또래 녀동무들의 인사삼아 던지는 공치사에도 마음이 흥그러워지는 열여덟나이, 더우기 이 외국인은 유명한 X대학에 초빙되어온 교수라지 않는가. 나는 부풀어오르는 자부심을 누르며 짐짓 겸양을 보였다.

기쁨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이 일로 하여 어지간히 흥분되었고 자만감으로 가슴이 그득해졌다.

빠스정류소에 와보니 나들이 갔다오는듯한 부인 세명이 서성거리고있었다. 그들은 친숙한 사이인듯 무슨 이야기인가 계속 주고받고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저고리를 입은 내 옷차림에 눈길이 끌렸는지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나를 유심히 보는것이였다. 그런데 그 시선이 자극적이어서 저으기 불쾌하였다.

특히 그들중 키큰 서양부인은 내가 무안해하는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곧바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색정적인 글자가 찍힌 미국잡바를 걸치고 아래에는 미니스카트를 꼭 끼이게 입었는데 입으로 코로 연방 담배연기를 뿜어대고있었다. 소슬한 바람이 술렁거리는 가을날에 허벅다리까지 올라간 미니스카트를 입었으니 담배연기로라도 선기를 덜어보려는지.

나는 무색해질 정도로 내 얼굴을 뻗히 들여다보는 그 서양부인의 렬치없는 시선에 기분이 상하여 고개를 외로 틀었다.

《조선처녀애인 모양이지. 저고리를 보니, 난 이전에두 조선애들이 저고리를 입고있는것을 많이 보았어.》

그가 영어로 하는 말이였다.

(흥, 조선아이? 부인, 저고리를 입은 사람들중에는 어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의 저고리차림을 이방시하는 그들의 뺨담한 태도를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눈언저리를 얼굴색과 지내 대조되게 진하게 화장해놓아 눈확이 유령의 마굴처럼 보이는 그 꺾두룩한 금발머리녀인의 새파란 눈알에서 렬등한 상대의 일거일동을 관찰하는듯한 정그러운 호기심과 오만성이 풍기여 나는 심한 모욕을 느꼈다. 그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신경을 자극하며 계속 들렸다.

《...저고리를 입고 총리관저에도...》, 《민족성이...》,

나는 저도 몰래 얼굴이 붉어졌다. 무엇이라고 한마디 하고싶었으나 입안이 바짝 말라들었다. 무절제한 자유분명한 현대감각을 웨쳐대는듯한

그들의 차림새와 비교해볼 때 나의 저고리차림이 확연히 대조되어 어쩐지 쑥스러운 감이 들었다.

《앵이, 오늘따라 저고리를 입고올게 뭐람. 당장 벗어던지고말아야지. 이젠 대학올타리안에서나 입지 야외에서는 절대로 안입을테야. 정말 창피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뜨거워지는 일이지만 사실 그때 나의 무딘 민족적자각과 미숙한 의식상태는 이러했다. 조선초중급학교를 졸업한후 교통조건이 불리하여 일본고등학교를 나온 나는 할머니를 비롯한 친척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도쿄에 이사오자마자 조선대학교에 진학했던것이다. 그런데 일본학교에서의 교육은 나의 민족적각성을 적지 않게 흐려놓았었다.

《아니! 저고리를 입은게 왜 창피하나요?》 하는 나직한 목소리가 등뒤에서 울렸다.

돌아보니 나보다 8살은 더 어려보이는 녀고생이 조용히 나를 마주보고있었다.

더없이 순진하고 귀염성스러운 얼굴이였는데 저고리를 단정히 입은 차림새를 보니 시내의 어느 조선학교 고급부학생같았다. 나는 그 저고리차림에 반가움보다 짜증이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니, 넌 또 누구야?》

그는 나의 매몰찬 어조에 얼굴이 빨개지더니 겨우 《저 사람들이 언니보구 뭐라고 했기에...》하고 얼버무리는것이였다.

나의 쌀쌀한 태도에 무안해진 그는 눈길을 어떻게 건사할지 몰라 당황해하며 회고 자그마한 손으로 저고리고름만 감았다 풀었다 하였다.

《저...언니... 저고리는 부끄러운 옷이 아니예요.》

나는 그를 흘겨보고나서 몇걸음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마침 촌쌀같이 달려오던 《벤즈》한대가 내앞에 척 멎어서고 문이 열리더니 불쑥 외삼촌이 머리를 내미는것이 아닌가. 오사카에서 기업을 하는 외삼촌이였다.

《문화야, 어서 타거라,》

《아이, 외삼촌!》

날바다에 떨어져 풍랑에 시달리던 조난자가 생명이 경각에 달한무렵 구명대를 받은것만큼이나 반가워 눈물이 날 지경이였다. 나를 태운 승용차는 번쩍이는 진곤색의 늘씬한 차체를 움직이며 턱을 쳐들고 어깨를 으쓱하는 서양녀인의 앞으로 천천히 지나갔다. 그 부인네들의 종해진 시선에서 더없는 통쾌감을 느끼던 나는 후사경으로 저고리를 입은 녀학생이 정류소에 외파로 서있는것을 발견했다. 그도 함께 태웠을걸 하는 생각이 든것은 그다음이였고 차는 이미 그들을 아득히 떨구어버리고 살같이 내달렸다. 《저고리》는 이미 자그마한점으로 변했다가 사라지고말았다.

《왜, 아는 처녀냐?》

나의 옆얼굴을 들여다보며 외삼촌이 물었다.

《예. 아니, 저... 도표 조교에 다니는 애같아요. 같이 태웠을걸.》

《진작 말할게지. 이제라도 돌아설가?》

《아니, 됐어요. 삼촌.》

어릴적부터 나를 무척 귀여워하던 외삼촌이었다.

담이 크고 사업수완이 비상한 그는 여러번 크게 성공하여 무시할수 없는 기업인으로 되었고 동포상공인들속에서 명망이 높았다.

《이번에 관광객이 많은 절간근처에 택시 및 간이봉사매점을 내올가 하구 조사차루 나왔됐다.

아니, 그런데 얼굴색이 왜 그렇느냐. 무슨 일이 있는게로구나.》

나는 방금전에 있는 일을 이야기했다.

《뭐? 저고리를 입었다구 그것들이 놀려줘?》

《아니, 놀려준다기보다 무슨 구경거리나 되는 듯이 역겹게 구는데...》

외삼촌은 결이 나서 눈을 흘뜨더니 제나름대로 고쳐생각했는지 어조를 바꾸어 이렇게 말했다.

《참, 네가 대학까지 갔는데 외삼촌이라는게 웃한가지도 못해줬구나. 며칠만 좀 기다려라.》

며칠후.

대학에서 돌아오니 정말 외삼촌이 보냈다는 선물인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모서리마다 니켈도금이 번쩍거리는 트렁크들을 열어제낀 나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그안에는 빠리의 일류 양복점의 상표가 붙은 최신류행복들이 들어있었다.

번쩍이는 중국산 붉은 명주로 지은 야회복과 형상기억합금을 사용한 최신제품의 속옷, 무용수들의 것처럼 아래폭이 넓게 퍼진 치마는 중세말기 에스빠나 이사벨라녀왕의 궁중복을 본따서 당시의 제작법대로 가공한 고래뼈까지 안에 바쳤다. 소매와 가슴노리를 장식한 구슬들은 오색령통한 빛을 뿌렸고 옷에서 연하게 풍기는 섬유의 향기는 취할지경이었다. 류행과 사치의 도시로 불리우는 빠리에서 《재봉기의 시인》이니 《실과 바늘의 예술가》이니 하는 유명한 웃도안가가 지은 옷이니 더 이룰데가 없었다. 나는 흥이 나서 거울앞에서 레복을 입어보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저고리를 띄어보고 주춤했다. 교외 빠스정류소에서 그 일이 있던뒤 집에 오자마자 벗어던졌던 저고리였다. 대학에 입학했다고 그리도 기뻐하며 할머니가 손수 지어보낸 저고리, 옥색바탕에 은방울꽃무늬가 돌치고 깃가장자리에 홍보석브로치가 달린 이 저고리를 나에게 입혀보며 할머니는 그리도 좋아하셨건만...

나는 저고리를 멀찍이 밀어놓고 레복들만 즐겨 입게 되었다.

할머니의 생일날에도 어느 옷을 입고 갈것인가 이것저것 고르다가 끝내 금단추가 번쩍거리는

빠리제의 략식레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문밖에 나서자마자 집중되는 못시신을 느끼며 한참 걷는데 등뒤에서 숨가쁜 남자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사이포상, 빨리 오라구, 빨리! 쟈장.》

《왜 그래?》

《저 처녀를 좀 보라구. 아, 굉장한 미인이야, 따라가보자구. 진짜 비너스라니까.》

분명 아까 내앞을 지나다가 선자리에 굳어져버린 멧쟁이청년이라고 생각되었다. 막 돌아보고있었다.

(앵이 경박한 계집애! 허영에 떠가지구.)

나는 노래라도 부르고싶은 심정으로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세웠다. 택시에 올라타서 후사경을 들여다보니 조그마한 겨울안에서 그 멧쟁이청년이 안달복달하는 꼴이 만화처럼 펼쳐졌다.

상점거리에서 할머니에게 드릴 생일선물을 사들고오던 나는 뜻밖에도 낮익은 그 녀학생을 발견했다. 저고리차림에 눈이 끌려 여겨보니 분명 교외의 정류소에서 만났던 그 녀학생이었다. 그때의 일에 대한 사죄감에서 그와 따뜻한 이야기라도 나누고싶어 그를 향해 걸음을 다그치는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모를 우악스러운 놈팽이들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독살스럽게 뇌까렸다.

《야, 너 조선계집이지. 여기가 어딘줄 알아. 도표 한복판에서 저고리를 버젓이 입고다냐?》

코수염을 기른 안경쟁이가 손바닥으로 그의 흰뺨을 무례하게 툭툭 건드리며 위협했다.

《일본에는 너따위가 살 자리가 없어, 여기서 살겠으면 저고리를 벗으란말이야.》

한놈은 그의 턱을 건드리며 야비한 상소리를 던졌다. 나는 구렁이를 만난 새새끼처럼 가슴을 조이며 화들화들 떨뿐 그 자리에 못박혀 어쩔바를 몰랐다.

《놓아요!》

시퍼런 칼을 빼들고 저고리고름을 자르려드는 협상군은 놈을 밀어제끼며 그가 야멸차게 내쫓았다.

《저고리를 또 입겠어? 대답해. 벗어던지겠다면 놓아줘. 들었어?》

《저고리는 우리 민족의 뜻이에요. 민족의 뉘이 깃들어있단말이에요. 절대루 벗을수 없어요.》

《흥. 죽어두?》

《죽어두!》

그의 다가찬 목소리에 안경쟁이가 주춤하는데 입을 벌릴 때마다 번쩍이는 금이발이 상서롭지 못한 빛을 반사하는 여드름투성이의 땅딸보가 《그렇다? 요 쌍 비린내두 안날년이. 좋다. 내가 벗겨주지.》하며 그의 저고리앞섶을 왁살스럽게 거머잡았다. 나는 악 하고 비명을 올렸을뿐 공포에 질려 어쩔줄 몰랐다.

나는 칼을 빼들고 날뛰는 살기띤 눈빛에 전를 하며 고향을 질렀다. 그런데... 나의 새된 고향소리에 행인들이 달려왔을 땐 이미 불한당들이 칼부림을 하고 도망친 뒤였다.

《처녀가 칼에 찔렸소!》

사람들의 등에 업힌 그의 모습은 끔찍했다. 저고리고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텅굴고 칼에 찢긴 잔등이 피에 화락하니 젖었다. 나는 얼혼이 나갈 지경이었다. 걸음이 휘청거리고 눈앞이 보이지 않았다. 머리가 뻥하고 귀가 멍멍하고 가슴은 천만근으로 무거웠다.

나는 동포가 당하는 모욕과 고통을 외면했다. 아니, 뻔히 보면서도 비겁하게 강건너 불보듯 먼 발치에서 맴돌았다. 자기 합리화나 변명의 구실을 찾으려 찾으수록 그에 비례하여 더욱 날이 선 자각지심이 비수같이 가슴을 찌르며 자신을 괴롭혔다.

《문희야! 웬 일이냐?》

할머니네 집에 도착하자 모여있던 친척들이 새파랗게 질린 내 얼굴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랐다. 물목이 터진듯 쏟아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느라고 나는 목이 껍적 메여 겨우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방안에 모인 친척들의 한결같이 비분강개한 모습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일가친척들이건만 모두가 병원으로 가자고 법석거렸다. 특히 할머니는 만류하는 집사람들을 둘러보며 절연한 어조로 말했다.

《출혈두 많이 했을게다. 그 장한 처녀의 얼굴이라도 보고와야지 그렇지 않고서들 오늘밤 편히 잠들것 같지두 못하다.》

《자, 그럼 다같이 갑시다.》

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쳐다보니 아,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저고리차림이었다.

《이름은 김일화이구 조선고급학교 졸업반이라더라. 문희야, 너도 한번 가서 만나보려무나. 너 보담두 나이두 어런데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구다. 할머니, 어머니들이 지켜낸 이 저고리를 피로써 지켜내는 그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할머니는 벌써 몇번이나 일화한테 면회갔었다. 나는 악몽에 시달리듯 피로운 나날들을 보내다가 일화가 건강도 좋아지고 부상처도 거의 아물어 곧 퇴원할것 같다는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어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다.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할가 하는 근심도 없지 않았으나 모든것을 깨끗이 청산할 각오로 용기를 내어 문고리를 열었다. 피를 많이 흘린탓에 창백해진 일화가 내손을 부여잡고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방구석에 처박혀 혼자서 번민하던 자신이 얼마나 민망스러웠는지 모른다.

나는 그에게 거둬 용서를 빌었다.

《난 일화가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하는것을

뻔히 보면서두...》

그러자 일화는 나의 손을 잡아 막 흔들면서 한사코 내 말을 부정했다.

《아니예요 언니, 언니가 소리쳐 그놈들을 쫓아 버리지 않았나요. 난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구 언니가 가깝게 다가오지 않았기 망정이지 언니까지 화를 입었을게 아니나요. 저고리만 보면 지랄하는 놈들인데.》

뺨을 치고 저주를 퍼부어도 할말이 없을 나에게 그가 이렇게 말할 때 눈물이 다 콧 솟았다. 더우기 난 그날 저고리를 시달지 않게 벗어던지고 시내에 나오지 않았던가.

(일화, 웅골차기만 하지 않구나. 인정미있구, 뜨겁구...)

그는 반창고를 붙인 환부를 조심스레 만져보는 나를 안심시키느라 혼연히 웃으며 말했다.

《언니, 걱정말라는데두요. 그래 사무라이나부랭이들의 칼에 내가 쓰러지겠어요. 참 오늘 아침에는 경찰서에서 사죄하러 왔더군요. 어제는 시장<나우리>가 위문하러 오구... 내가 세지요?》

나는 천진하게 웃는 그를 정겹게 바라보다가 무심중 그의 침대모서리에 쌓여있는 책들중 맨우에 있는 책 하나를 집어들었다.

일본의 권위있는 력사학자인 도쿄대학 교수가 편찬한 대력사화첩 《일본을 세운 사람들》 제1권 《성덕태자》였다. 초호화장정을 한 그 화첩의 표지그림은 바로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그려준 당시의 일본왕 성덕태자의 초상이었다. 할머니가 일화에게 면회갔다가와서 하는 말이 력사에 취미가 대단하며 력사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더라고 하더니.

《력사에 취미가 있는게지?》

자식들과 함께 서있는 성덕태자의 초상을 내가 유심히 들여다보자 일화가 그 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고대일본의 문화시대 개척에서 큰 역할을 한 스이쵸천왕의 사위였던 이 성덕태자의 스승들은 다 고구려와 백제의 학자들이였답니다. 혜자는 고구려왕의 임무를 받고 아스파국가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성덕태자의 정치고문으로 있었어요. 그럼에 나오는 이 사람이 혜자예요. 이 사진을 또 보세요. 일본의 고대문화의 금자탑으로 되고있는 이 법륭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목조건물로서 그 이름이 높은데 이것도 역시 우리 고구려조상들이 세워준것이고 이 금당의 벽화도 고구려화가 담장이 그린거예요. 지금은 동양의 3대미술이라고 크게 떠드는 이 벽화말이에요.》

일본의 국보중인 국보인 이 벽화가 화재를 입었는데 그것을 복원하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처음으로 되는 형광등을 제작하였다는 이야기도 여담삼아 하면서 그는 그때 복원작업에 썼던 형광등의 사진도 보여주었다.

《이것보세요. 이 책을 서술하면서 편찬자는 법통사 금당의 위치, 정원의 위치 등을 고구려, 신라, 백제 및 중국의 것과 비교하면서 법통사는 고구려의 것을 꼭 닮은 전적으로 고구려형의 절간이라는 것을 학술적으로 론증하고있답니다.》

일화의 역사지식은 대단하였다. 고교를 졸업하면 조선대학교에 가서 조선력사를 전공하려 한다는 그는 동방 여러 나라의 역사는 물론 고고학과 고서지학에도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있었다. 그는 화첩을 번저가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일부 나라 사이비학자들이 편견적이고 비학구적인 태도로 제국주의 일본이 외곡한 초기조일관계를 그대로 받아물고 류포시켰지만 여기, 이 다까마쓰무덤 벽화에 나오는 녀자들의 옷차림과 우리 나라 고구려무덤들에서 나오는 옷차림을 좀 보세요. 신통히 같지요? 글썄 이 다까마쓰무덤의 발굴로 해서 다시한번 사학계에 쇼크가 일어났어요. 력사학자들은 물론 신문기자, 탐정소설가들까지 달라붙어 초기조일관계의 진상을 파헤치려고 달라붙고있답니다.》

배타적인 감정을 초월하여 냉철한 객관성을 과학적인 사관으로 일본의 초기력사를 무시한다면 고구려를 비롯한 세나라 문화의 진수로 인한 일본문화의 발달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수 없답니다.》

나는 그의 논리에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의식구조와 사고영역은 나의 그것과 아주 달랐다. 아직은 대학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그가 이렇듯 정연하고 확실성있는 주장을 하는것은 결코 취미나 독서의 덕분이 아니라 학술적인 축적을 초월한 모종의 의지, 강한 신념이 있기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그의 부모들이 다 총련분회사업을 하했는데 몇년전에 아버지가 차사고로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있다는것, 오빠 한분 계시는데 조국진학반으로 귀국하여 지금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있다는것 등을 알게 되었다.

(일화, 가정적으로도 불행한 애인데 이런 고통까지... 그러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그 자세, 어떻게 하나 내가 힘자라는것 도와주자. 내가 가지고있는 모든것을 절반씩 갈라서 일화한테 주자!)

그러나 일화는 결코 동정을 감수하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었다. 퇴원수속을 할 때 입었던 저고리가 다 찢겨진채로 입원한 그여서 나는 가지고 간 트렁크를 열고 그에게 고급레복 한벌을 꺼내주었다. 그는 좋아하며 내앞에서 옷을 입어보았다. 나의 눈앞에는 소녀티를 못벗은 애리애리한 녀학생이 아니라 준수하고 리지적인 인격자 처녀가 웃음짓고 서있었다.

《언니, 고마워요. 아주 고급으로 지었구만요. 카찌미야직이예요.》

《그래, 인디아 카슈미르지방에서 나는 산양털

로 만든 고급모직이래서 천이름이 그렇대.》

《맞아요. 카슈미르의 모직물은 유명한데 우리 조상들은 이미 천수백년전부터 그에 대하여 알고있었어요.》

그가 생글거리며 하는 말이였다.

《정말? 모를 소리. 무역통로가 아무리 발달되었기루 중세기에 인디아까지?》

《정말이라니까요. <왕오천축국전>에 대하여 들은적 있어요?》

《오, 려행가 혜초의... 읽어보지는 못했단다.》

《맞아요. 그 책에 한자음역으로 가섭미라 혹은 가습미라라고 기록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곧 경제, 문물제도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는데 거기에 보면 왕과 두령, 백성들 모두가 모직으로 만든 담요같은것을 입고다니다고 쓰고있어요.》

《그래? 그런 자료까지 있었구나.》

《유명한 돈황석굴에 보관되어있던 그 귀중한 책이 지금 프랑스에 가있는데 프랑스사람들은 보물중의 보물로 취급하고있어요.》

일화는 이런 애였다. 걸음을 하나 걸어도 사색을 하나 해도 민족의 존엄과 결부시킬줄 아는 그에게 나는 완전히 감복했다. 일화는 천천히 레복을 벗으며 나에게 거듭 사의를 표하더니 침대맡에서 트렁크 몇개를 꺼내는것이였다. 트렁크마다에 저고리가 한벌씩 들어있었다.

(아니?)

《내가 옷이 찢겨가지고 병원에 실려왔다는것을 알고 동포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저저마다 저고리를 지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는 그중 하나를 플라들더니 제일 마음에 드는 저고리라고 하면서 그것을 입고 퇴원하겠다고 하였다.

《요새 조선녀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발하고 공기가 좋지 않으니 당분간만이라도 저고리를 입지 않는게 좋을게요.》

퇴원문건을 내주며 의사가 권고하자 일화는 단번에 거절했다.

《목숨이 아까와 존엄을 버리겠나요. 난 그때놈들의 행패에 굴복하여 저고리를 안입겠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칼에 맞지 않을수 있었어요. 그러나 난 절대로 저고리를 버릴수 없어요...》

수천수만의 선렬들이 더운피 뿌린... 대가로 찾은 민족의 존엄이구... 또 그렇게 찾은...》

격해진 그는 더 말을 못하고 분연히 저고리를 꺼내며 입는것이였다.

(우리 할머니와 어쩌면 저리도 신통할가.)

나의 진학문제를 놓고 친척들이 모여 토론을 할 때 《일본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허울은 조선사람이되 정신은 잃는것이니 민족의 녀를 잃고서야 무슨 공부냐.》하며 엄하게 질책하던 할머니.

나는 깊어지는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저렇듯 목숨걸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일화

에게 면회오면서조차 나는 몇번씩이나 저고리를 입었다 벗었다하지 않았던가!)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자신이였다.

저고리를 입고나선 일화의 모습은 저고리에 대한 나의 시각을 새롭게 하여주었다.

진달래무늬가 곱게 새겨진 연두색저고리에 소매끝동과 깃을 초록색으로 꾸민것이 색깔과 선이 조화되어 보다 아름답고 청신해보였다. 그의 살색밝은 목아래 흰 동정선은 볼수록 산뜻하고 정결해보였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그 희고 곧은 선이 그의 강의한 품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듯했다. 그의 동실한 어깨로 흘러내린 소매와 소매배래의 곡선미는 반듯한 저고리앞섶과 어울려 우아한 곡선을 이루었고 가슴에서 나비댕기처럼 뿔어 아래로 드리운 두갈래의 웃고름은 미풍에 기발처럼 날리면서 상쾌하고 생신한 물동감을 주었다.

《일화, 어쩔 저고리가 그리두 너에게 잘 어울리니?》

그는 홍조를 띤 얼굴에 불우물을 파며 대답했다.

《조선처녀이니까요.》

《정말 선녀갈애.》

《한 동포할머니가 밤새워 지어주신거예요. 칼질한 놈들이 보란듯이 더 멋있게 해입자고 하시면서 말이예요.》

병원현관을 나서자 여러명의 사람들이 우리쪽으로 마주왔다.

맨앞에 꽃다발을 든 우리 할머니가 있었다.

《퇴원하는 일화에게 꽃다발이라두 주자구 왔다.》

일화는 쑥스러운듯 어리광부리며 말했다.

《할머니, 부끄러워요.》

《부끄럽긴. 넌 영웅이나 같다. 자 어서.》

《할머니, 할머니가 지어주신 저고릴 입었어요. 문희언니두 보기 좋대요.》

(그러니 우리 할머니가?)

일화는 만사람의 사랑을 받을만한 애였다. 아버지질을 잃고 오빠와도 헤어져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면서도 생기와 랑만에 넘쳐있는 일화. 애국의 일념으로 민족의 슬기로울 역사를 탐구하고 피비린 광란에도 곳곳이 맞서 조선처녀의 존엄을 지켜낸 저 어린 처녀의 심장은 과연 어떻게 생긴것일가.

풀길 없던 그 대답을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보고서야 찾을수 있었다.

수수하면서도 아담하게 꾸러진 그의 방에 들어선 첫 순간 나는 제 눈을 의심했다. 금시 방안이 환해지는듯싶었다. 가슴이 쿵하고 울렸다. 정면벽에 정중히 모셔진 기념사진,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을 방문하여 설맞이 공연에 참가한 재일본조선인학생들을 넓은 품에 안으시고 찍은 기념사진이 확 안겨왔다. 오매불망

그리던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며 울고있는 학생들 가운데 저고리를 곱게 입고 그이의 넓은 품에 안긴 학생이 바로 일화-그였다.

해빛과도 같이 밝게 웃으시며 손수건을 꺼내드시고 일화의 얼굴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인자하신 모습, 그분이 바로 우리 민족의 아버지, 세기의 영웅 **김일성**대원수님이시였다.

《일화!》

목구멍으로 불몽치같은것이 치솟고 눈앞이 확 흐려졌다.

(그래서였구나. 연약한 네가 그리도 강한것은!)

이 일화가 세상에 부러운것이 뭐가 있고 두려운것이 무엇이겠는가. 칼부림하는 망나니따위야 그에게 있어서 삼복철의 쉬파리때만큼이나 여겨지겠는가. 아, 일화, 일화, 방금전까지만 해도 그를 동정하고 가공해 여기던 나는 그가 얼마나 돋보였는지 몰랐다.

일화-태양의 꽃 태양의 빛발아래 피어나는 꽃, 그 이름마저도 부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것이 내가 일화를 알게 되었고 저고리를 다시 사랑하게 된 이야기였다.

나는 펜을 들고 일화를 원고를 써나갔다. 감정이 있고 숨결이 뛰는 글줄들이 살아서 뻗어나갔다. 원고를 완성하여 보냈더니 곧 접수통지가 왔다.

그날부터 나는 공부가 끝난 뒤에 이 웅변원고를 가지고 하루에 30번씩 반복하면서 암송했다. 정서적인 사색력을 거닐면서 웅변을 토했고 청중과의 교감을 위하여 학급동무들앞에도 나섰으며 주의집중력을 련마하기 위해 폭포수의 소음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다.

내 발음이 정확하다고는 하지만 보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부터 외국인에게 이야기를 걸어보기도 했고 성량문제 해결을 위해 복식호흡훈련도 놓치지 않았다.

동양적인 언어행위와는 달리 영어에서는 훌륭한 언설과 배합된 제스처유가 비상히 감동적인 인상을 준다고 강조하기에 거울앞에서 손세와 몸짓까지 품들여 훈련했다. 머리단장하는 시간마저 아까와 파마했던 머리를 자르고 단발하였고 한 손으로 건발기를 쥐고 다른 손으로 머리칼을 다듬으면서도 연습을 중단하지 않았다. 나의 시중을 들려고 할머니와 일화까지 우리 집에 와서 수고를 많이 하였다.

가끔 외삼촌도 집에 와서 내가 연습하는 모습을 한참씩 보고 가군했다.

드디어 전국대학생영어웅변대회 지역예선경기에서 나는 맞다들린 적수들을 모조리 눌러버리고 간포지역대표로 선출되어 단연 결승에 올라가게 되었다.

결승은 《마이니찌신봉》 도표본사 9층 회의실

에서 열렸다. 나와 겨루게 된 상대는 강끼지역 대표 헨리 히데끼였다. 그는 내가 일본고등학교 재학당시의 동급생이었는데 캐나다인 2세로서 영어에 매우 능했다. 그의 아버지가 캐나다태생이었기 때문에 가정적 언어환경은 완전히 영어권이었고 일본인인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많이 닮은 그는 체구도 행동거지도 완전히 서양사람이었다. 이름도 동서 절충의 것이었지만 보다는 《헨리》로 불리웠다.

신문사홀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긴장감과 함께 배가되는 승벽심을 느꼈다. 원쑤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나의 기억속에 잊혀지지 않는 협오스러운 녀인- 3년전 교외 정류소에서 만났던 그 녀자가 헨리와 함께 나타났던 것이다.

《오, 헨리의 동창생이었다구? 헨리의 고모야 알만한 처녀로군.》

새빨강게 칠한 입술을 좌우로 길게 늘구며 밟살스레 웃는 그 녀인의 지분거리는듯한 목소리에는 조롱기가 짙었다.

《그런데 아가씨, 여기까지 저고리를 입고 나왔군 지독한 보수파인데요.》

그는 일본말도 꽤 번지였으나 나를 시험이나 쳐보듯 영어로 이렇게 씨벌었다.

《하긴 동방속담에 오이를 거꾸로 먹어도 제 재미라는 말이 있지.》

나는 그 녀인을 새삼스레 쳐다보았다. 빨강고노랑게 물들인 머리칼을 오리오리 풀먹인 말총같이 뽀뽀이 살렸는데 그것은 활짝 펼친 공작새의 날개가 몹시 부러워서인지, 얼굴의 화장도 웃도리에 걸친 샹즈도 다 중세기 사무라이그림에서 나오는 왜인들의 옷색갈처럼 조잡하게 알락달락했다. 아래도리에는 하반신의 피부색과 근육의 세부까지도 그대로 다 들이비치는 나이론타이즈 하나만을 살에 착붙게 끼여입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마주보며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

《부인, 혹시 이런 동방속담을 아시는지요. <알락달락한 뱀은 껌대기만 그렇지만 알락달락한 사람은 속까지 그렇다.>》

나의 영어활용에 깜짝 놀라는 그 녀인을 뒤에 남기고 나는 유유히 대회장소로 향했다.

나의 차례가 되어 연단에 오르니 저고리입은 동포어머니들과 동무들의 모습에 마음은 백배, 천배로 강해졌고 나를 향해 보내는 그들의 격려의 눈길은 나의 가슴을 훈훈하게 부풀어오르게 했다.

나는 실력을 시험해보는 심사측의 까다로운 질문에 답변하고나서 연탁앞으로 다가갔다. 수백명 청중의 시선을 한몸에 그러모으며 정중히 인사를 하고난 나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디어 프랜즈!》(친애하는 벗들!)

백수십일동안 수천번 연습했던 말들이 허끝에 모여들어 터져나오려는 순간 나는 좌중을 둘러보

며 저고리를 입은 정다운 모습들을 찾아보았다.

동포들! 그리고 이자리에 모인 여러분, 들으시라. 만리타향 이국의 거칠은 생활풍토속에서 민족의 넋을 지켜가리라 맹세다지는 한 녀학생의 목소리를 들으시라.

나는 자신있게 웅변을 시작했으나 한편으로는 은근히 위구도 들었다. 현대사회의 선모 즉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 지어는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제화》의 양상을 띠고있는 20세기말에 민족의상을 제복으로 민족과 민족의 넋에 대하여 열변을 토하는것이 협애한 국수주의적 발상으로 오인되지나 않겠는지 더우기 심사석 9명의 심사원들중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들에서 초빙되어온 외국인 교수가 세명이나 되는데 그들에게 나의 민족적인 열정이 어떻게 느껴지겠는지.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었다. 내가 웅변을 마치고 《고맙습니다.》라고 좌중에 대고 인사를 했을때 요란한 박수갈채가 일어났다.

규정상 심사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랄리아인 초빙교수 윌리엄 피취선생(그는 내가 3년전 교외절간에서 만났던 그 외국인교수였다.)은 인상적인 붉은코를 높이 쳐들고 박수를 쳤고 다른 심사원들도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얼마후 심사측 의장선생이 전국대회 우승자로 내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처음 제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전자형광막에 내 이름이 나오는것을 보고서야 주석단으로 나아가 만장의 환호속에 우승컵을 받았다.

비둘기와 책(평화와 문명)을 형상한 정교한 자주정세공품이였다.

우승컵을 안고 주석단을 내리는 나에게 사진기의 섬광을 쏘아대며 기자들이 달려왔고 뺨죽뺨죽 마이크들이 사면팔방에서 나를 《포위》하였다. 끝없는 질문의 소나기가 쏟아졌다.

언제부터 영어공부를 하였는가, 포부는 무엇인가,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조선글로 《저고리》라고 써달라, 그 소란스러운 단련을 받으면서도 나는 홀뽀뽀문으로 빠지는 헨리와 그의 고모 저고리입은 나를 멀리하러던 그 오만한 녀자의 풀이 죽은 표락서니를 똑똑히 보았다. 그때의 쾌감과 자부심이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어디에선가 그 누군가의 강렬한 시선을 룽감으로 느낀 나는 그시선을 찾아 청중들을 훑어보았다.

나의 시야에 저고리를 입은 두 녀인, 할머니와 일화의 모습이 확 안겨왔다.

더없이 자애로운 눈길로 나의 온몸을 어루만지고있는 할머니, 다함없는 혈육의 정이 어린 일화의 사랑스러운 모습, 그들의 눈가에서 넘쳐흐르는 맑은 눈물이 구슬처럼 번쩍거리며 부서졌다.

아, 그들의 뜨거운 눈물, 나는 그 눈물을 한평

생 잇을수 없다.

그 다음날 《마이니찌신봉》 인물란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저고리가 일으킨 회오리 제3X차 전국영어웅변대회

오늘 오전 <마이니찌신봉> 도표본사 9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어 전국 6개지구의 예선에서 이긴 19명이 열변. 결국 간또지구대표인 류문희(22살) 도표 조선대학교 4학년생이 우승하여 <마이니찌컵>과 <엔에취케이컵>을 쟁탈했다.

<저고리> 라는 제목으로 출연하여 나머지 출연자들을 누르고 단연 우승!

민족의상에 대한 궁지와 민족적자각을 련결시켜 민족의 딸로서 분발하리라는 매우 독특한 내용과 감동적인 화술, 사회적양태는 물론 청년들의 의식심리구조조차 정보화, 모형화, 수자화 되고있는 오늘 아주 감성적이고 인간본연의 향기마저 풍기는 매력적인 언어구사, 작년의 우승자

는 중국인 3세였는데 중국어를 전혀 몰랐다. 그러나 문희양은 기자들의 질문에 류창한 3개어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저고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조선여성들의 상징인 저고리, 지난날 피에 젖고 찢긴채로 빼앗겼던 이 저고리, 오늘 나는 저고리고름을 기발처럼 날리며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합니다. 나는 존엄높은 조선의 녀성이라고,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딸이라고-

여러분, 오래지 않아 우리는 조선대학교졸업반 조국방문단성원으로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게 됩니다.

산중고 물맑은 내 나라, 반만년의 력사와 찬란한 문화로 자랑높은 내 조국, 우리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영명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으로 말입니다. 이때에도 물론 나는 이저고리를 입고서 갈것입니다.>

여름에도 락엽이

리석

한껏 물오르던 가지우에
어느덧 싱싱하게 펼쳤구나
바라보기조차 마음 즐거운
푸르른 잎새여

그 무슨 꿈을 안았느냐
가벼운 바람에도 한들한들
서로서로 키돋구며 하늘향해 머리들고
스적이는 잎새여

여름날의 띄약별을
서로서로 손잡고 막아나선듯
시원한 그늘을 펼치고
오가는이 정답게 너 부르느냐

억세인 아지마다 농칠가보아
서로서로 줄지어 꼭잡고 선듯
줍을 주는 줄기에 칭얼대듯
한들한들 흔들며 늘어선 잎새

바라보는 이 마음도
푸른 잎새처럼 싱싱해지는데
어인 일이나
줄기의 한끝에서 떨어지는 잎새 하나

모든 잎새 하나같이 푸르싱싱한데
너만은 누렇게 그 색을 잃었구나
한줄기에 자라면서도 탄꿈을 꾸거나
한줄을 빨면서도 네 모양 다른것은

땅우에 떨어져 이리저리 덩굴어
저 가고싶은곳이 있는듯
네 자란 꿈을 버리고
그 어느 다른곳을 녀보느냐

바람에 이리저리 훑날리다
못발길에 짓밟혀 이지러지누나
너 그리되자고 줄기를 떠나
다른곳을 꿈꾸거나

여름에도 락엽이 있구나
생을 주고 키워준 꿈을 버리면
누구든 그 운명 무엇이 다르랴
저 여름락엽과

수천만 잎새들이
하나같이 떨어져 못사는 줄기
생의 젖줄기 그 고마움을 버린
하나의 여름락엽 가련한 잎새여

조상의 땅에서

(중국) 김성옥

세상에 태어나 34년만에 첫 출국, 그것도 제일 오고싶던 조상의 땅을 밝은 감개를 금할수 없어 나는 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보는 것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황홀경이어서 늦게나마 고국의 위대함을 깨달은 송구함을 안고 조선인민에게 드리는 동포애적인사로 나는 미흡한 이 붓을 감히 들었습니다.

무슨 힘이 나를...

무슨 힘이 나를 조선으로 이끌었는가?!

스스로 내 심장속에 던진 이 물음의 대답이 조선에 와서야 선명해집니다.

나의 부모님들도 나도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조선에 대한 나의 남다른 감정은 어릴 때부터 싹트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조부께서 일제놈들의 등쌀에 못이겨 저 멀리 강건너 조선에서 보 집을 뚫어치고 간도땅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린 마음에도 이제 크며는 조선에 꼭 한번 가보리라 고 속다짐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정해진 운명이였다고 할가요. 세상에 태어나 첫마디부터 《아빠》 《엄마》 하고 조선말을 배웠고 조선족학교를 다니면서 첫자부터 조선글을 익혀온 나였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조선어문을 전공하였고 그후 조선연구를 필생의 업으로 택함으로써 조선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는 인연을 맺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처음엔 조선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도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측면적인것에만 치우쳤을뿐 그 본질적특성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을 방문한 조선의 학자들로부터 《조선을 연구하려면 우선 주체사상을 알아야 한다.》고 한 말을 듣고 나서야 문득 크게 깨닫는바가 있었습니다.

다는 터득하지 못하였지만 주체사상에서 사람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고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본다는것이 저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선의 학자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감정은 류다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에게만 고유한 그 어떤 이름할수 없는 참다운 인간미를 느낄수 있었기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해도 폭폭 정이 들게 하는 조선사람들의 그 다정함과 친근함은 단순히 같은 혈통에서만 오는 그런것이 아니었습니다. 알수 없는 그 어떤 힘의 이끌림과 부름을 받기라도 한듯이 나는 조선으로, 조선으로 달리는 마음의 충동을 억제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힘이, 그 무슨 힘이 나를 이처럼 못견디게 조선으로 이끌었는가?

그것을 다 알기엔 너무나도 조선을 모르는 저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드디어 나는 처음으로 나서자란 중국땅을 떠나 조선방문의 길에 올랐습니다.

렬차가 단동역을 지나 압록강철교에 들어설 때부터 나의 가슴은 것처럼 오고싶던 고국에 들어선다는 그것으로 하여 흥분으로 뛰놀았습니다.

평양역에서 나를 맞이해준분들은 나를 중화의 딸인 동시에 조선의 딸로 여기니 친정집에 온것으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친인처럼 따듯이 맞이해주었습니다.

평양역에 내리는 첫순간부터 나의 가슴속엔 형언 못할 뜨거운 난류가 흘러드는것이였습니다.

거리에 나서는 그길로 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이 높이 모셔져있는 만수대언덕을 찾았습니다. 중국에서 어릴 때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놈들에게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중국의 동북지구에서 항일투쟁을 벌리시던 전설적인 이야기를 귀에 익게 들어왔으며 해방후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휘황한 성과를 이룩하시였다는것을 여러 가지 보도물과 도서를 통하여 듣고 읽어온 나는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지니고있었습니다.

만수대언덕에는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칠새 없이 물결쳐흐르고있었습니다.

만수대언덕에 수없이 증명되는 꽃다발과 꽃바구니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민족의 아버지로 모시는 조선인민과 세계5대륙의 각계층 인사들의 끝없는 경모심을 보여주고있었습니다.

오늘도 한손 높이 거연히 드시고 인류가 나아갈 자주의 앞길을 가리키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나는 삼가 큰절을 드리었습니다.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전인류와 함께 이름없는 나도 다정히 한품에 안아주시는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만수대언덕에 오래도록 서있었습니다.

거대한 그 무엇이 점점 나의 가슴속에 꽉 자리잡음을 나는 의식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왜 그토록 조선에 오고싶었던가에 대한 심장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품이 저를 불러주었다는, 말로써는 다 형언못할 그 뜨거운 해답을 나는 터득하게 되는것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그품이 언제나 나를 손저어 부르고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거하시였으나 아버지의 그 품은 오늘도 이 세상 만민을 주체의 빛발로

감싸주는 사랑의 품이었고 영생의 품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만수대 언덕으로 끝없이 물결쳐오는것은 바로 그것때문이었음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오고싶던 나의 감정은 단순히 조상의 땅을 밟아보고싶은 충동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사람들에게서만이 풍기던 그 인간미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치시여 가꾸신 사회주의의 봄향기였으며 주체사상의 빛발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세워준 주체사상의 위대한 빛발이 그리고 그 빛발아래 무궁하는 사회주의의 강력한 힘이 바로 나를 조선으로, 조선으로 이끌었던것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도저히 보지 못했을, 것처럼 거룩하고 고귀한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높이 치솟은 주체사상탑에서, 주체사상의 생활력인 서해갑문에서... 내가 본 그 모든곳에서 나는 뜨겁게 고통치는 조선민족의 얼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봉쇄와 수해로부터 오는 경제난을 용감히 극복하며 일심단결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조선인민의 영웅적모습에서 나는 력력히 맥박치는 조선민족의 녀을 보았습니다.

그 조선민족의 녀은 자주정신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이 나래치고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제 나라, 제 땅을 무한히 사랑하는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이 깃들어있었습니다.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자주정신의 구현이 바로 조선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전변시킨것입니다.

조선에 온 첫날 차창밖으로 폐허우에 일떠세운 평양의 거리거리를 내다보면서 나는 민족자주정신의 힘이란 무엇인가를 실감하게 되었으며 과연 기적의 나라, 영웅적인 인민이로구나 하고 속으로 연신 감탄을 올렸습니다.

참관을 통하여 나는 사랑의 분위기로 차넘치는, 평화로우며 강한 맥박으로 살아숨쉬는 평양을 보았습니다.

나는 제국주의의 그 어떤 책동과 모략에도 끄떡없고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극심한 난관도 두려움없이 전진하는 평양을, 아니 조선인민의 참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는 인민대학습당을 참관하였습니다. 현대적인 설비와 관리수준, 방대한 규모를 보고 나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강사와 교수, 전문적인 번역일군이 몇백명이나 되었고 문답실에는 여러개 분파를 나누어 박사, 지도교수가 독자들이 제기하는 물음에 대답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전민이 다 여기 와서 책을 보고 강의를 받으며 자질향상을 할수 있어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라 불리운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조선인민의 문화수준의 높이를 가늠할수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돈 한푼 받지 않는 11년제의 무교육을 실시하여 후대들을 양성한다는것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힘들것입니다.

대동문인민학교에 가보고 나는 또 한번 크게 놀랐습니다. 이 학교의 교원들은 다 대학졸업생이었습니다. 교원들의 높은 지식수준은 교학질의 담보로 됩니다.

조선의 교육수준은 세계가 다 공인하는바입니다. 교육이 발달했다는것은 곧 조선의 미래가 희망차다는것을 말해줍니다.

지식은 힘이고 산 재부입니다. 물건이 많고적음은 일시적인것입니다.

나는 그 언제인가는 무궁무진한 그 힘으로 《부유한 나라》를 따라잡고 아니 룡가하고 세계에 우뚝 솟을 조선의 앞날을 머리속에 그려보고있습니다.

묘향산을 찾은 나는 절승경계의 산천에 완전히 반하고말았습니다.

련련한 산봉우리들은 푸른 하늘과 잇닿아있었고 저 절벽에서 이 절벽으로 솟구쳐 뛰어내리는 폭포와 폭포들은 성미급한 사나이와도 같았습니다.

이끼푸른 바위우에 뿌리를 두고 하늘을 찌를듯 빼곡이 기운차게 일떠선 나무들을 바라보며 나는 사내다운 묘향산의 성격에 진정 연애라도 하고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옛날 호랑이가 사람을 안내했다는 인호대에 올라 바라보고 굽어보니 상원암과 룡원목포는 조화롭게 채색된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눈부신 묘향산의 경계가 나의 시야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왜서인지 이 가슴속엔 뜨거운 눈물이 고여오는것이였습니다. 그것은 다만 나를 포근히 감싸주는 아름다운 고국의 자연에 매혹된 감정만이 아니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때늦게 찾아온 이 딸을 기다려 따듯이 안아주는 고국의 그 품이 고마워서만도 아니였습니다.

향산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복돋아주는 국제친선전람관의 우아한 모습이 나에겐 위대한 수령을 모신 위대한 민족의 기상을 말해주고있었습니다.

지나날 살길을 찾아 떠나가던 이 땅에 오늘은 그 조상들의 후예들만이 아닌 5대륙의 벗들이 끝없이 찾아오고 찾아오는 모습은 나의 가슴속에도 한없는 긍지를 안겨주는것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조선민족의 존엄이 오늘처럼 세계에 빛난적이 그 언제, 그 어느때 있었습니까.

인호대에서 산천을 굽어보는 나의 가슴속에는 천하절경의 이 묘향산에 국제친선전람관을 세워주시고 민족의 존을 길이길이 빛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어려왔습니다.

하여 나는 나도 모르게 끓어오르는 심장의 문을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터치고야말았습니다

...

나도 예서 태어나 살수도 있었으리
강도 일제가 아니었다면
이 향산에서 밭갈고 씨뿌리며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나의 아들 정림이를 키우며

오늘은 아름다운 고국의 향산에
국제친선전람관이 우뚝 솟았구나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5대륙의 벼들이 예로 찾아온다
따사로운 그 품에 나도 안겨본다

내 오늘 정녕 보았노라
꿈속에서 보았던 조상의 넋을
바위처럼 굳어져 서있을제
문득 떠오르는 생각-
아, 이제 내 넋도 찾았어

그렇습니다. 나는 조선의 모든 산과 들, 모든 창조물들과 기념비들에서 조선민족의 얼을 찾았습니다.

8월 15일, 나는 그토록 소원이던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매에도 그리웁던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모습을 뵈옵는 순간 나는 눈물이 앞을 가리워 흐느껴울었습니다.

《수령님! 제가 왔습니다.》

간절히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는 수령님이시었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인민의 가슴마다에 수령님께서 다시 찾아주신 그 민족의 얼을 저도 뜨겁게 받아 안고 달려왔는데 수령님께서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흐느껴 울며 떠나지 못하는 나의 가슴속에 수령님께서서는 분명히 어디에서 살든 민족의 고유한 어여쁜 넋을 간직하고 살라고 뜨겁게 당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음성을 심장으로 온 넋으로 들었습니다.

비록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거하시었지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니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선민족의 얼은 영원히 이 땅에서 줄기차게 맥박치고있는 것입니다.

의무에 대한 자각

8월 28일, 이날은 나에게 있어서 행복과 불행이 동시에 맞보게 한 날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여 이날은 나의 뇌리에 잊을수 없는 날로 아로새겨졌으며 나의 심장속에 의무에 대한 자각을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이날 오전 나는 처음으로 관문점을 돌아보았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충구를 맞대고 선 관

문점은 반세기동안 지속되어오는 조선분단의 비극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었습니다.

하늘아래 지구라는 행성에 이게 웬일입니까.

삼천리 하나의 강토를 허리잘라 이 나라 단일민족의 혈육을 사정없이 둘로 끊어놓고있는 저주로운 군사분계선을 보는 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나는 《관문각》에 올라 최악의 장본인인 양키들은 이 땅에서 당장 물러가라고 심장으로 웨쳤습니다.

남측지역에도 이른바 관광객들이 올라 사진기들을 휘두르고있었습니다. 세계의 술한 사람들의 사진의 배경에 조선의 관문점이 오른다는것은 이 20 기말엽의 민족의 커다란 수치이며 통탄할 민족의 불행이 아닐수 없습니다.

나는 조선민족의 이 수치, 이 불행의 화근을 양키들에게 묻고싶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을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인 양키들은 어디론가 피리를 사리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흉한 양키들의 본색은 군사정전위원회 담판장에서도 엿볼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발과 유엔기발이 꽃혀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조선전쟁에서 미국이 이겼다면 그들은 유엔가가 아니라 제들의 기발을 꽃았을 것이며 거기에 침략과 약탈로 얼룩진 더러운 별을 또 하나 새겨넣었을것입니다.

허나 세상에서 처음으로 당한 최대의 패배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양키들은 허울좋은 유엔기를 내놓고 항복했던것입니다.

미제를 비롯한 수많은 추종국가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고 승리한 조선이 오늘도 여전히 두 동강난 허리를 부여잡고 아픔에 몸부림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두개 조선》책동이 가져온 비극의 산물인것입니다.

관문점을 보는 나의 심장은 피로웠습니다. 이 몸이 그대로 하나의 폭탄이 되어 이 군사분계선과 콩크리트장벽을 하늘로 날려보낼수만 있다면 한이 없을것입니다.

나는 관문점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앞에 오래도록 서있었습니다.

인민들에게 통일된 나라를 안겨주시려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로고가 뜨겁게 안겨와 나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관문점을 떠날 때 나의 두볼로는 불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의 눈앞에 펼쳐진 분단조선의 비극이 주는 충격은 이 작은 가슴에 너무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두동강난 허리를 부여잡고 조선이 홀리고있는 피눈물, 조선이 겪고있는 민족최대의 불행을 나는 이날처럼 통절히 내 몸의 한부분으로 느껴본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하여 오는 죄스러운 감정을 감출수 없어 나는 또 울었습니다.

통일의 날은 기어이 오고야말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예지와 위대한 령도가 있는 한 조선은 하나로 통일되고야말것입니다.

이날저녁 나는 명절일색으로 단장한 김일성광장의 화려한 무대를 마주하고 서있었습니다. 이날은 바로 조선청년들의 명절이었던것입니다.

청년절 5돐을 맞으며 진행되는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야회는 그야말로 황홀한 화폭이었습니다.

청년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 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자》를 받아안은 감격으로 하여 조선청년들은 새로운 신심과 희망에 넘쳐있었습니다.

사방 불빛으로 현란한 광장에서 수만의 청춘남녀들이 원을 지어 손에 손잡고 춤추며 돌아가는 이처럼 즐거운 무대를 나는 처음 보았습니다.

경쾌한 음악속에 이어지는 다채로운 조선춤은 초대석에 앉은 각국의 외교사절들을 가만 앉아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흥겨운 춤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갔던 나도 참지 못하고 그속에 끼여들고말았습니다.

조선청년들은 다정하고 친근한 웃음을 보내며 각국의 사절들에게 훌륭한 조선춤을 배워주었습니다.

참으로 그들모두는 인기있는 젊은 배우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야회가 고조될수록 나의 감동은 컸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 땅에서 것처럼 락판에 넘쳐 삶을 즐기는 조선청년들의 심장속에 고이 간직된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끝없는 행복과 궁지, 승리에 대한 신심과 미래에 대한 확신일것입니다. 그럴진대 그들이 어찌 맑은 웃음을 짓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그 웃음은 진정 이 땅에서 누가 평화를 사랑하며 누가 통일을 원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었습니다.

나는 조선청년들과 한데 어울려 한껏 웃으며 즐거운 춤을 오래도록 추고 또 추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풀어헤치고 춤을 추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렇듯 나는 조선인민이 안고사는 가장 큰 슬픔의 눈물과 그들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의 웃음을 온몸의 뼈와 살로 맛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그 웃음은 나를 날마다 잠못들게 하며 무엇인가 이 가슴속에 내가 할 의무를 속삭여주는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조선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자그마한 힘이라도 다 바치는것이 가장 큰 의무를 자각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던 소년궁전 아이들의 맑은 눈빛에서, 평양산원의 귀여운 아기들의 요람에서 나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또한 거리마다에 솟은 통일구호들이, 나의 가슴에 그것을 부탁하고있었습니다.

현시기 조선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겨레들이 하나로 뭉쳐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오늘 나의 가슴속에는 조선의 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칠 용의가 가득했습니다.

아니, 나뿐만이어서는 안됩니다. 나 하나의 힘이 크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의 동년배들, 나의 후세들도 선배들의 뒤를 이어 조선의 통일에 기여해야할것입니다.

나에게는 아홉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중국말만 알고 조선말은 할줄 모릅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들에게 조선말을 배워주겠습니다.

그에게 중국인민의 우의에 대해 이야기해주렵니다. 이렇게 나와 나의 아들 그리고 나의 동년배들과 후세들이 힘을 합쳐 선배들처럼 노력한다면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은 세계인민들의 지지속에 하루빨리 이루어질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선분들은 모두 나를 친인으로, 조선의 딸로 생각하고 아껴줍니다.

나 역시 중국공민으로서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인민을 사랑합니다.

중국과 조선은 형제의 나라입니다.

나는 이것을 조선에 와서 더욱 절감하였습니다.

평양의 모란봉기슭에는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전선에 달려나와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여 싸운 중국인민지원군의 영웅적투쟁을 길이 전하는 《우의탑》이 높이 세워져있습니다. 이 탑은 영원한 중조친선을 상징하고있습니다.

중국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길림육문중학교에 그이의 동상이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여러곳에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습니다.

중조친선의 뉴대는 이미 항일의 그 나날에 공동의 목적으로 하여 깊이 맺어졌습니다.

력사의 갈피마다에 뻗수 없이 얹혀있는 중조친선의 뉴대는 오늘에 와서 더욱 확고해지고있습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중국인민의 위대한 령수이신 모택동주석과 맺은 중조친선의 력사를 영원불멸한것으로 더욱 빛내여나가고있습니다.

중조인민의 우의는 영원히 길이 빛날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중조 두 나라 인민의 영원한 친선을 위하여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겠다는것을 이 기회에 표명합니다.

영원하라 평양이여

박철

다시 보자 푸르른 하늘이여
다시 다시 안아보자
너 대동강이여 모란봉이여
한생 네 품에 살면서도
다 물랐던것 너였던가

늘 마시며 살아온 신선한 이 공기도
늘 가슴적시며 살아온 맑은 이 강물도
아버이수령님 새롭게 밝혀주신
단군조선의 역사로
그 의미가 더 깊어진 평양이여

5천년 풍운이 스치고 지나갔어도
강은 그 강이여서
대동강기슭에 서면 보일듯싶다
맑디맑은 강물에 하얀 옷 행구어입으며
문명을 창조해가던 근면한 모습들

초목은야 수백수천번
스러졌다 무성했겠지만
대성산 숲숨을 걸으면 들릴듯싶다
봉우리처럼 호방한 기개를 안고
국력을 떨치던 그 장한 활시위소리

해빛이 따스해
산수가 하 수려해
우리 선조들이
하나의 피줄로 하나의 겨레를 이루며 살아온
너 민족의 발상지!

세상에 또 있으랴

5천년 단일민족이 가꾼
너같이 유서깊은 땅
길가의 한그루 나무 한포기 풀도
그 5천년의 즙을 빨며 자라나는
너같이 자랑높은 땅

너의 그 찬란한 력사우에서
오늘은 오늘은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한생을 바쳐가며
민족번영의 위대한 날과 날을 펼쳐가시니

유구 반만년의 민족사
그 시작점을 보아도
인민의 사회주의가 만발한 오늘을 보고
래일을 보아도
평양이여 너는
우리 민족의 중심지!

아, 안아볼수록 바라볼수록
우리 평양이 제일이라는 생각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생각
우리 평양 우리 민족이
한 혈통으로 영원하리라는 그 한 생각

번영하라 평양이여
무궁하라 평양이여
수천년력사가 높이 모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따라 빛내갈
민족의 기상 민족의 영예
반만년 력사에 끝없이 잇고이으며

그들은 있었다

문기창

그들은 있었다
당이 설계한 그곳이면
그들은 있었다
조국이 바라는 그곳이면

금강산청년선철길공사장
그곳에도 있었다
우리의 청년전위들
《속도전청년돌격대》전투원들

앞가슴에는 빛나는 경표
언제나 전투적인 보위색 푸른 제복
남들과는 같지 않아라
값높은 청춘시절
쉽게 살려는 그런 사람들과는

피가 뜨겁다는것을 알려거든
땀이 진하다는것을 알려거든
산악을 뚫고 골을 메우며
교각을 세우며 침목을 늘어간

그들과 함께 목고채를 메어보고
그들과 함께 바위도 까내보아야 하리

나이를 물으면 동생과도 같은
고향을 물으면 딸과도 같은
그들을 동생으로
딸로만 생각지 말라
고향집어머니마저 림름한 그 모습이
제 자식임에 놀라는데야

여름이면 그들의 땀방울
페루에 떨어져 뚫고
겨울이면 그들의 땀방울
로반에 쌓인 눈을 녹이는
여기에 있었다
여기서 그들은 창조의 거인이 되었다

당이 구상하는 그 맨앞자리
조국이 바라는 그 맨앞자리
붉은기의 거세찬 날개로
폭풍도 눈비도 헤쳐
한걸음 한걸음 철길을 넓이며

진격의 돌격로만 달려온 청년들

자기를 바쳐
청춘을 바쳐
아, 그들이 바라는것 있었다면
이 철길의 첫 렬차에
아버지장군님을 모실 그 한마음
그 한마음이 이어져 뻗어간 철길

그들은 있어야 할곳에 있었다
당이 부르는곳에 있었다
인민이 바라는곳에 있었다
금강산청년선 수백리 그 철길우에
기어이 충성의 기적소리 높이 울린
《속도전청년돌격대》 전투원들

그때문에
경애하는 장군님
그들에게 조국도 말기는것 아니더냐
그 이름도 고귀한 장군님의 예비부대
아, 《속도전청년돌격대》 전투원들이여

간석지 새땅을 받쳐드립니다

김성근

간석지 천막가에
흐르는 달빛을 타고
이 마음 달려갑니다
머나먼 고향
어머니 제신 그곳으로

부모없는 열두자식
우리 형제를 안아 키워주신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 생일날
이 저녁 어머니도
우리들을 생각하시겠지요

달려가 한잔술 붓고싶지만
어머니 그것을 바라지 않아
내 다만 어머니 보시라고
이 하루도 더 멀리 밀어낸 날바다
방파제를 더 높이 쌓았습니다

보십니까
슬하에 남겠다고 떼질하던 이 막내
오늘은 기도 마음도 몰라보게 자란 모습을
엄한 눈길로 떠밀어보내던

어머니의 그 심정을 알아
간석지에 뿌리는 더운 땀 방울방울을

자신의 생일날은 가뭇 잊으시고
열도자식 일년 열두번
우리들의 생일날은 잊지 않던 어머니
색다른 반찬 한가지라도 더 마련하느라
물기 마를 새없던 그 행주치마를 못잊어
또한 우리가 잊지 못하는 어머니의 생일날

이런 날이면 가슴 뜨거워집니다
우리를 키워
마를줄 모르던 그 사랑
놓을줄 모르던 그 근심
치마끈 조이며 걷고걸던 밤길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아름다운 추억

그 하나하나를
되새겨보는 이 마음속에
언제나 울려오는 어머니 그 말씀
-너희들이 안겨자란 그 품은
김정일장군님 품이란다

그 말씀 들으며
우리 열두남매가 자라고
그 말씀 외우며
보답할 마음을 키워온 우리 형제들

우리에게 바친
어머니의 청춘까지 빛내이자고

세월이 갈수록 뜨거운 이 마음
한해에 한번 오는
어머니의 생일날에
축배잔이 아니라
충성의 한해 일을 받쳐드립니다
안아낸 간석지 새땅을 받쳐드립니다

오로지 통일!

(독일) 리준식

8월 15일

삼천리 방방곡곡
터져오른 만세의 함성
압박과 지배, 착취와 굴종의 쇠사슬을 풀어헤친
조국해방의 환희 오늘도 메아리치는 이 강산

서로 부둥켜 껴안고서 더덩실 춤춘것이
반세기도 넘었는데
아아, 민족아 백의민족아
이렇게 한강토 돌로 갈라져
분렬의 아픔 또한 반세기를 넘기다니 웬말이나

오늘 이렇게 범민족대회장에 모여
한덩어리로 껴안은 가슴가슴에
뜨겁게 끓는 피를 보고
누가 한민족의 피가 아니라고 하느냐
백의민족 옷자락에
분렬의 피눈물이 스배여 원통하도다

조국땅에서 태어나지도 못한
재일동포 2세 3세들이
무엇때문에 조국통일만을 절규하는지
역사는 알리라

무엇을 위한 분계선이나
누구를 위한 분렬이나
5천년 역사가 빛나는 민족이여
분렬을 깨부시자
분렬을 불사르자
반만년 역사의 한피줄앞에
분렬은 멸망이고 분렬은 죄악이다
동강난 역사의 강토우에서
반역의 술잔을 기울이는자들아

보라!

똑똑히 보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력사의 순간을 보라
범민족대회장에 모인
겨레의 이 뜨거운 포옹앞에 총칼 있는가
민족의 이 넘치는 감격앞에 거짓 있는가

조국의 통일을 되찾을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 한몸도 바치리라
분렬의 피맺힌 원한
더는 못참아
더는 못참아

아 겨레여
총을 쏘면 누가 죽으며
핵무기를 터뜨리면 누구의 땅이 타는가
누가 통일을 안아오랴
우리들 자신이다
무엇으로 강탈당한 남녘땅을 되찾을수 있겠느냐
조국통일뿐이다
자주 평화 통일뿐이다
7천만이 통일로 나서는 길뿐이다
죽어도 통일 살아도 통일
오로지 오로지 통일뿐이다

온 겨레여
하나의 조국앞에
새 력사앞에
분렬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이 겨레 살리는 통일로 가자!
이 민족 살리는 통일에 살자!

신념과 의리에 대한 생각

최용호

신념!

흔히 말하기를 신념은 믿는 마음이라고들 한다.

그렇다. 신념은 자기가 선택한 인생행로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며 한번 택한 그 길을 영원히 변함없이, 굴함없이, 드팀없이 곧바로 끝까지 걸어나갈수 있게 하는 마음의 기둥이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혁명의 길은 결코 평탄한 넓은 길이 아니며 꽃향기 넘쳐나는 꽃보라길은 더욱 아니다. 그 길에는 때로 험산준령과 사푼치는 강물이 가로막아설수도 있고 험한 진창길, 눈보라 휘몰아치는 엄혹한 길도 있으며 때로는 뼈를 깎아내는듯한 가슴아픈 희생도 피눈물을 머금고 참아야만 하는 길이며 달려드는 원쑤들의 압력과 봉쇄도 뚫고나가야만 하는 간고분투의 길, 한두해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구한 길인것이다.

이처럼 승리를 향하여 한치한치 피로써 전진해 나가야만 하는것이 바로 혁명의 길이다.

하다면 이처럼 고통도 많고 시련도 많은 험난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굳센 신념에 있다.

혁명승리를 향하여 곧바로 전진해나갈수 있게 하는 붉은 화살표는 신념이 내고거 혁명의 한길을 변함없이 걷게 하는 힘도 신념이 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류레없이 간고한 《고난의 행군》길을 불굴의 신념과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곳곳이 락락장송 푸른 소나무와도 같이 필승의 기상을 떨쳐가고있다.

무릇 인간의 정신적힘에는 반드시 그 지지점이 있는 법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민이 발휘하고있는 불굴의 혁명적신념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나는 얼마전에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은적이 있었다.

성스러운 항일혁명전에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항일혁명투사들이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오늘도 영생의 모습으로 서있는 혁명렬사릉.

지하철도의 락원역을 나설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던 비방울은 점점 굵어지더니 렬사릉의 대문앞에 이르렀을 때는 어느덧 대줄기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다.

두터운 구름장들이 드넓은 하늘을 짙 채우고 시커먼 허공을 짙 가르며 번개불이 일군했다. 세

차게 몰아치는 바람결에 차거운 비방울들이 나의 얼굴을 후려갈겼고 비물에 화락하니 젖은 바지가랭이가 다리에 찰싹 달라붙어 발걸음을 옮기기 힘들었다.

나는 물보라가 뿔뿔하게 일어나는 렬사릉으로 오르는 계단을 승엄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준엄했던 항일전의 나날에 헤쳐온 길, 그 길이 얼마나 간고했는가를 부디 잊지 말라고 깨우쳐주는것인가. 아니면 렬사들이 서있는 저 영생의 언덕이 그저 쉬이 오를수 있는 언덕이 아님을 깨우쳐주는것인가. 왜 그런지 쉽게 발걸음을 내디딜수 없었다.

나는 경건해지는 마음을 안고 렬사릉의 계단을 한계단 한계단 오르고 또 올랐다. 더욱 세차게 쏟아지는 비발속으로 항일혁명선렬들이 걸어간 그 자욱자욱을 더듬는 심정으로...

드이여 교양마당에 올라서니 거세계 나뭇기는 붉은 기폭에 휩싸여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는 렬사들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교양마당에는 곳은 날씨임에도 렬사릉을 찾은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이 깃든 꽃다발을 안고 공화국영웅메달이 부착된 화한 진정대앞에 숙연한 자세로 서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렬사들의 반신상을 돌아보았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의리속에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김일성**장군님께 충성다하던 생전의 모습 그대로인 투사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한별동지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한별 만세!》를 부르며 3층 로대에서 뛰어내린 혁명시인 김혁동지, 자기의 혀를 끊어 적들을 전몰케 하고 사령부의 안전을 목숨으로 지켜낸 마동희동지, 적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친 최희숙동지, 뼈가 부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모진 악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혁명가의 절개와 지조를 끝까지 지킨 박달동지...

참으로 이들모두는 살아서 역적이 되는것보다 죽어서 충신이 되기를 바란 참인간들, 형언하기 어려운 기아와 혹한, 병마의 위협속에서도 겹겹이 에워싸고 달려드는 대적의 포위속에서도 오직 **김일성**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킨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들이었다.

문득 한 시인의 시구절이 떠올랐다.

제 명을 다 살고 간
그런 사람이 련사릉엔 있던가
병으로 생을 맺음한
그런 사람도 여기엔 그리 있던가

10대에 20대에
피줄조차 못남기고-
그래도
아끼던 생을 아끼지 않았던...

여기 련사릉에 있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평균나이는 20대이다.

아직은 앞길에 구만리같은 인생의 초엽, 인생의 봄이라고 할수 있는 꽃나이 청춘시절이다.

바로 그 나이에 투사들은 혁명적신념을 지켜 인간존엄과 영광의 상상봉에 올랐고 자기의 더운 피로 영생의 진리, 정치적생명의 나이는 신념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는 심오한 진리를 우리 후대들의 심장속에 아로새겨주었다.

말 한마디면 생명을 건질수 있는줄 알면서도 웃으며 단두대에 오른 투사들, 낫설은 이역에서 황야의 티끌로 사라지면서도 《미래를 사랑하라!》고 부탁하였으며 《공산주의는 청춘!》이라고 부르짖은 투사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닌 불굴의 혁명적신념,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시련과 곤난 앞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그 신념은 어디에 기초하고있는것인가.

불굴의 투사 박달동지는 감옥에서 놈들이 모진 고문을 이겨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을 승리의 한길로 인도아하고계신다는데 있소.》

바로 그렇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하고 조국은 반드시 해방된다는것, 자신은 비록 죽어도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영생한다는것을 굳게 믿고 싸웠던것이다.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혁명적신념을 지켜 비렬한 배신의 길보다는 장렬한 죽음의 길을, 비굴하게 백년을 사느니보다 혁명을 위하여 떼떽하게 하루를 사는 길을 택하였던것이다. 바로 그 믿음이 있어 신념으로 자기 생을 빚내이고 영생하는 삶을 누리는 정치적생명의 장수자가 된 투사들이다.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지킨 혁명가의 생애는 조국이 알고 인민이 잊지 않으며 력사가 기록하고 찬미하는 법이다.

그렇기에 항일혁명투사들은 붉은기 날리는 주작봉마루에서 위대한 수령님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지켜 영원한 수령님의 전사로, 영생의 모습으로 서있는것이다.

승고한 의리로 이어진 금수산기념궁전과 주작봉마루.

이는 수령앞에서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킨 전사는 수령의 품에서 영생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혁명의 1세대, 항일혁명투사들이 발취한 불굴의 혁명적신념은 우리 혁명의 2세, 3세, 4세들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왔으며 오늘도 수많은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들이 영생의 대오속에 끝없이 들어서고있다.

-우리에게는 **김정일**장군님이 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간고한 《고난의 행군》길을 헤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이 억년 드물지 않게 하는 주춧돌이고 억센 기둥이다.

혁명에 신념을 가지고 하는것이다. 그 신념은 그 어떤 정치적리념에 대한 믿음이기전에 자기 수령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며 자기 수령에 대한 매혹과 절대적인 신뢰, 무조건적인 숭배에 그 사상정신적원천을 두고있다.

혁명가는 신념을 지킬 때 영생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바라지만 그것은 결코 바란다고 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혁명가의 영생은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조건에서도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살아도 수령을 위해 살고 죽어도 수령을 위해 죽는 참다운 신념에 있다. 사람은 신념을 목숨으로 지킬 때 시대와 력사와 더불어 후대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되며 영웅으로 떠받들리우게 되지만 신념을 지키지 못할 때 시대와 력사 앞에, 후대들앞에 영원히 속죄할수 없는 치욕을 남기게 되며 의리없는 인간, 량심없는 인간, 비렬한 인간추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신념으로 만난을 헤치며 승리해온 우리의 혁명력사가 가르쳐주는 진리인것이다.

세차게 내리던 비는 어느덧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낮게 드리웠던 구름장들이 밀려가고 하늘이 환하게 트이기 시작하였다.

소나기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하는 법이다.

오늘 우리가 걷는 《고난의 행군》길이 제아무리 험난하다 하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난관에 지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이 제아무리 악랄하다 하여도 그것은 멸망을 앞둔 자들의 허장성세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하늘처럼 믿고 장군님만을 따르는 혁명적신념으로 오늘의 《고난의 행군》에서 반드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것이며 먼 후날에 가서도 신념과 의지로 헤쳐온 《고난의 행군》을 떼떽하게 긍지높이 돌이켜볼것이다.

나는 련사릉을 내리는 길에 화환진정대앞에 다

시 썼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항일혁명투사들은 다 영웅이라시며 화환진정대에 새기도록 해주신 공화국영웅메달,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한길에서 신념으로 자기의 한생을 빛내인 투사들에게 조국과 민족이 드리는 영광의 찬사이며 력사와 인민이 드리는 영생의 칭호이다.

화환진정대에는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꽃다발들이 놓여있었다.

릉을 찾는 사람들이여
렬사들이 지켜보는 눈앞에
조국을 책임진 맹세로
목숨같은 꽃뭉치를 놓으시라

풍자시

비루먹은 개가 자네를 부르네

리영백

김영삼씨
오늘도 비루먹은 개 한마리
길가에 쭈그리고앉아 자네를 부르네
자네가 타고가는 차창을 쳐다보며
꺼이 꺼이...

자네가 하이칼라머리에
기름칠을 하고
신사복에 넥타이까지 착용했다고 해서
자네에게 동냥을 바라는것 같지는 않네

개의 배가죽이 등뼈에 달라붙고
눈에는 비록 눈곱이 끼긴 했지만
오히려 자네에 대한
동정의 빛이 어려있지 않나

하기는 자네가
민족의 슬픔앞에 불질을 하고

조의길을 막아 족쇄를 채우고
분향소와 추모장에 총칼을 휘둘러댔으니
아마 저 비루먹은 개도
자네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가부지

김영삼씨
자네는 지금도 《대통령》 이랍시고
차를 타고다니며 거들먹거려도
이미 인간세상에서 추방된 자네 물골
사람들은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그래도 저 비루먹은 개 한마리
자네를 가궁히 여겨
어서 오라고
어서 와서 함께 살아가자고
꺼이 꺼이... 불러주니
두귀를 잡고 질을 해야 옳지 않겠나